

贈呈

逸波學報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

11

# 逸波學報

第 11 号

表紙別 朴 在 甲  
그림

## 目 次

- △ 卷頭詩..... 金 慧 聖.....(1)
- △ 卷頭言..... 副校長 徐 商 俊.....(3)
- △ 逸波學報統刊에 際하여..... 會長 金 允 東.....(4)

### 言論 壇

- |                  |     |            |     |
|------------------|-----|------------|-----|
| 새로운 倫理規의 確立..... | 會長  | 金 允 東..... | (5) |
| 社會相의 偏見.....     | 副會長 | 朴 奉 植..... | (8) |

生活의 淨化..... 校監 金 震 熙.....(12)

### < 先輩特別寄稿 >

- 끝까지 배우자..... 民議院書記士 尹 壽 銘.....(14)
- 開拓者의 精神으로..... 李 東 一.....(16)
- 落伍者가 되지말자..... 金 百 坤.....(20)

푸로 필

- 鄭 源 道 先生
- 張 應 根 先生.....(23)
- 金 鎮 基 先生

< 漫 筆 > 責任과親切 ..... 朴 明 籍 ..... (25)

辨 明 ..... 李 如 參 ..... (29)

自我覺醒을 促求함 ..... 金 榮 卿 ..... (33)

배 설 ..... 丁 K C ..... (38)

日 記 抄 (狂人の日記에서) ..... 金 淳 結 ..... (39)

會員 꾸 로 필 ..... (45)

書 先生님前에 ..... 李 英 實 ..... (48)

書 R에게 주는 글 ..... 編輯委員 丁 奎 哲 ..... (50)

簡 어머님에게 ..... 智育部長 金 慧 聖 ..... (51)

文 孤獨한 Y君에게 ..... 編輯委員 金 鍾 壽 ..... (53)

紀 行 文 白雲台登程 ..... 河 大 煥 ..... (55)

鄭源道先生 家庭訪問記 ..... K 記 者 ..... (60)

詩 壇

가 고 파 ..... 金 鍾 壽 ..... (63)

孤 獨 ..... 總務 權 龍 太 ..... (64)

밤 ..... 李 相 鎔 ..... (66)

無 名 의 綠 ..... 曹 重 煥 ..... (67)

微 笑 ..... 張 慶 子 ..... (68)

鄉村의 風景圖 ..... 牟 達 庸 ..... (70)

煙	懷	趙	允	浩	(71)
深	夜	李	錫	來	(72)
인	정	韓	永	燦	(73)
山	洋	李	錫	來	(74)
하	늘	K.	H.	S	(75)

編輯室 狂 始	막	거리	興	談	愛	酒	生	(76)
	識	者	憂	患	馬		生	(77)
	客	說	한	마	自	然	兒	(78)

隨 筆	公園	의	風景	編輯委員	朴	在	甲	(79)
	나는	찾아	본다		車	智	寧	(83)
	昨	夜			朴	明	愛	(85)
	五月	과	베르	레르	金	興	烈	(86)
	雜	想	一	片	李	在	根	(91)
	灰	色	燈		權	星	達	(94)
	悲哀	의	歸	路	P.	B.	S	(97)

♀ 設 問 ..... (100)

☉ (공) (트) 太陽 아래서 ..... 金 珍 ..... (102)

☄ 悲 情 ..... 總務 權 龍 太 ..... (105)

☄ 創作 잃어버린 世代 ..... 張 奎 錫 ..... (113)

逸波教室 ..... 徐在德 (118)

交換一句 ..... (124)

設問 (男子) ..... (13)

編輯後記 ..... (128)

— 中 —



逸波學報



☆卷頭詩☆

逸波

金慧聖

네 마음 살며시 열어 논곳  
내가 지날 때.

逸波가지 매친 한송이 꽃  
듬듬히 서있는 모습.

적은 실 가늘게 줄다름칠 때  
너와 나

곤·종일 건넌 마을

가을 하늘 빨갭게 울드리는 날  
가슴에 한아름 안게 되리.

# 卷 頭 言

今春에도 거듭 諸子와 같은 駁才들을 맞이하여 授業을 繼續하게 된것을 기뻐합니다. 우리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는 開校以來 實力있는 일꾼을 이미 많이 우리 社會에 내보내고 있지만 우리 學校의 年輪이 불어감을 따라 入學生의 資質이 諸子와 같이 漸次 向上되어감을 볼때 心悅하여 마지못합니다.

速記라는 것은 특히 今日과같이 文化가 多角度로 急速히 進展하고 있는 社會에 있어서는 不可缺의 文化的要素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 後進性을免치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速記의 必要性에 이르러서는 先進國에 못지않게 認識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方面을 担當하려는 速記技術者야말로 貴重한 文化役士라고 할것입니다.

우리 學校의 修業年限은 不過 一年밖에 아니됩니다. 이 一年 동안에 速記學을 完成하기도 여간 努力으로는 大端히 어려운 일이나 一般敎養學科에도 아울러 힘을 써서 技術研磨에만 아니라 品性陶冶에도 留意하여 有能하고 善良한 市民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읍니다.

諸子는 明朗하고 自律的인 雰圍氣속에서 自勵하여 相勸하여 明年三月에 이르러 지나간 一年을 回顧할때 우리 學校의 一年間이 大端히 有益하였다는 實証을 얻도록 미리 付託하는 바입니다.

副 校 長 徐 南 俊

# 逸波學報續刊에 際하여

會長 金 允 東

生々流転하는 동안 人類社會  
는 發展하며 發展하는 裏面에는  
피와 땀으로 열크러진 不斷한  
人間의 努力이 潜在하고 있는 것  
이다.

우리의 先驅者들은 꾸준한 努  
력과 強靱한 忍耐로서 固陋한  
歷史的 軌道에서 벗어나 創意的  
理想 發現을 爲한 實踐的 生活  
를 展開하여 온 것이다.

우리 速記學校는 이러한 立  
場에 있는 젊은이들을 벌써  
다섯번이나 世上에 보냈고 우리  
들이, 여섯번째 本校에 入學하  
게 되었던 것이다.

어느덧, 우리들이 入學한지도  
滿 三個月이 지났으며 우리  
自治活動機關으로서 學生會가  
創立하여 發足한지도 已연한  
二個月이나 된다.

漸次로 흘러가는 月輪에 厝

概하면서 現實과 理想을 變  
갈아 보며 微弱하나마 理想  
에로의 橋樑을 놓는 첫 行  
事로서 學報가 우리손에 안기  
게 되었다.

이것이 비록 未熟할 망정 우  
리들의 熱과 誠으로서 이룩  
되었다는 點은 모든 面에 不  
足함을 감추어 주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逸波學報가 지닌 對內外的  
인 價値를 評價하기에 앞서  
오직 우리손으로 이룩된 우리  
들의 思想의 表白일진대 우리  
는.. 이에 滿足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에 努力으로서  
目標 成遂의 可能의 度를 測  
定하는 早急을 避하고 한달,  
두달에 間斷없는 努力으로서 우  
리에게 賦課된 世紀的 使命을  
 覺醒하여 國家와 民族, 世界와  
 人類에 呼應할수 있는 方向으로 一  
步 一步 前進하여야 할것이다.



論壇

새로운  
倫理觀의 確立

— 金 允 東 —



一九五四年 世界第二次大  
戰이 끝난以後 우리나라는 異  
民族의 箝制에서 解放은 되었으  
나 우리들이 自己 匡正에 餘  
裕를 가질 겨를도 없이 胎動 하  
는 現代의 頓痛을 自身의 괴  
로서 堪當하게 된것은 眞實로 숨  
은 일이 아닐수 없다.

爲先 現代의 史的 現實을 살  
펴 보면 政治的으로는 自由와  
共産의 兩大 "이데오로기" 兩大  
勢力이 승가쁜 對決을 하고 있  
고 經濟的으로는 自由나 統制  
나 資本主義體制나 社會主義  
體制나에 對照 對照하는 混亂한  
도가니속에 있는것이다. 民族과  
民族, 階級과 階級이 힘으로서  
힘에 對抗하고 되로서 괴를 씻  
으려는 民族斗争과 階級斗争에  
뒤악한 공기가 우리 周圍를 감  
돌고 있는 것이다.

現代人은 自己들의 人格과 個  
性을 잃어버리고 利를 爲한 競爭  
과 享樂을 찾아 헤매고 있으며 自  
己 頭腦로 生覺하고 自己 頭腦로 判  
斷하는 自主的 批判力을 잃고 低  
落한 輿論에 盲目的으로 휩쓸리고  
있으며 사람과 사람과의 關係는  
돌과 돌이 부딪히는 듯 처럼 매 마  
른 實情이다. 이러한 史的 社會  
的 現實 가운데 喧爲되는 現代人의  
生은 健康하고 幸福된 生이 아니  
라 病든生이 分明한것이다

文化의 發達은 人間의 身體的  
健康과 여러 領域에 進歩를 가  
져왔는지는 몰라도 人間의 精神  
的 健康, 道德的 健康은 別로 發  
展된것이 없다. 現代人은 文化人  
教養人이라고 自處하지만 現代人  
의 精神속에는 野蠻人 그대로 살  
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人間과 人  
間과의 關係가 사랑과 協同과  
調和와 秩序와 職權과 禮儀 禮

~6~

關되어가지 못하고 競爭과 排斥과 猜忌와 混亂과 不信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現代에는 思想과 主義가 너무나 많은 것이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眞實이고 무엇이 虛僞인지 分別할 수 없을 程度로 現代는 思想的 混亂의 時代인 思想的 無政府狀態의 不安한 時代인 것이다.

이와같이 現代가 不安의 世紀라던 哲人은 現代가 史上에서 가장 物質이 缺乏한 時代라는 結論을 맺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事實은 그와 反對로 人間이 物質을 左右하는 能力이 오늘날과 같이 強大한 時代는 過去 그 類例를 發見할 수 없다.

科學을 驅使하는 人間의 生動力을 人口의 增加보다도 빠른 速度로 増進됨에 따라 現代는 有史以來로 物質가 가장 豊富한 時代인 것이다.

有名한 英國의 科學哲學者 러셀 (RUSSEL)도 指摘한바와 같이 現代의 不安은 物質 自体의 缺乏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物質을 使用하는 人間自身の 精神的 貧困에서 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原始人처럼 이웃사 람을 두려워 하고 있으며 깊은 疑義 이 있다는 사람들도 남의 어깨를 밟 고 올라 서려고 하며 남의 成功이나 失敗를 意味하는 듯한 錯覺에 사로 잡히고 있는 實情이며 國內的 으로는 政黨싸움보다 더 活潑한 것 은 없으며 國際的으로는 戰爭보다 더 큰 關心事가 없는 것이다. 人類 가 이러한 危機에서 自救하지 않기 꾀하여서는 物質面에 改革뿐만아 니라 物質을 生産, 分配, 使用하는 人間의 心情自体에도 새로운 秩序를 樹立하여야 할 切實한 必要가 있는 것이다. 人間의 心情自体에 새로운 秩序를 갖기 위하여 深奧한 原理와 不 動하는 信念을 우리는 哲學에서 求해 야 할 것이며 行爲의 實踐에 關한 學인 倫理學에서 求해야 될 것이므로 現代人에 時急히 要請되는 것 은 効用性있는 實踐的 倫理學을 再 建하는 일인 것이다. 그러나 도리켜 生覺해볼 때 從來에 倫理學者들은 듣기 아름다운 行爲에 法則은 많이 세웠으나, 그 法則이 지나치게 아름답 나섰던 關係로 戰爭과 飢困 그리

고 虛無感에 시달리는 現代人에게 實質的으로 神通한 解決의 端緒를 示唆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自己個人도 實踐 못할 空論이 되곤 하였다.

그럼으로 現代의 새로운 倫理學은 現代의 立場에서 다시 檢討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實踐規範은

우리 自身에 切實한 要求에 立脚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를 自身에 切實한 要求를 確脫한 倫理는 우리에게는 他律的이요 實踐을 強要할 何等の 根據를 갖지 않는 것이다.

現代는 現代의 立場에서 本自律의 倫理만이 要請되며 이것만이 오직 우리의 實踐規範이 될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不安한 우리들에게 時急히 要請되는 것은 허트러진 人間性을 바로잡는 일인 것이며 이 人間性을 바로잡는 일은 즐기치게 배척 내려오는 眞正한 "휴머니즘 (HUMANISM)"에 立脚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現代의 "휴머니즘"을 "톨스토이" (TOLSTOY)에 人道主義에서 보듯이 虛偽와 欺瞞과 矛盾으로 가득찬 現代文明의 罪惡을 들어내고 人間愛와 道德的

自己完成의 새 복음을 부르짖는 世界의 良心으로서 나타났던 것이며 또한 "휴머니즘"에 中心 概念인 "휴머니타스" (HUMANITAS)란 概念自体가 人間性이라는 뜻以外에 人情 또는 人類愛 博愛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휴머니타스"란 概念이 모든 人間에게 共通되는 人間性 卽 人類性을 意味하게 된 것은 주로 "스토아" 哲學과 基督教 思想에 말미암은 것이다. "스토아" 哲學에 依하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宇宙와 世界는 普遍的 理性인 "로고스" (LOGOS)의 支配를 받는 것이요, 人間의 理性도 結局 이 宇宙理性의 種子가 人間속에 깃들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으로 이 "로고스"에 順從해서 살때 모든 人間은 民族 階級 國家의 差別없이 다같은 兄弟姊妹요 四海同胞로서 人類는 同一한 全體에 屬하는 것이라고 하여 世界主義를 主張하고 個人은 모두 世界市民 또는 宇宙市民이 되는 것이다. "휴머니타스"란 概念이 이러한 思想的 發展에

~8~

서 「유만이즘」은 世界主義, 博愛主義, 平和主義 등의 思想型態를 갖게 되었다.

오늘날과 같이 戰爭의 恐怖와 飢餓과 虛無와 自暴自棄에 逢着한 現代人類가 眞正한 「유만이즘」에 立脚하여 誇트러진 人間性을 바로

잡고 前述한바 있는 새로운 倫理規程을 確立시킨다면 괴를 돌리지 않고 도 全世界人類의 永遠한 幸福과 平和를 가져 올수 있을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사랑이 매마른 慘憺한 現社會에 있어서 는 眞正한 「유만이즘」에 立脚한 사랑의 哲學과 사랑의 倫理再建이 加一層 要請되는 것이다. (完)

## 二 論壇 二

### 社會相의 偏見

— 先後輩關係를 主로 해서 —

朴 奉 植



흔히 人間存在을 萬物의 靈長이라든가 大自然의 一個微少한 分身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人間을 物理化學的 面에서 본다면 多數의 分子와 原子로 構成된 有機體요, 生物學的 立場에서 본다면 他動物에 比하여 中樞神經이 顯著히 發達된 動物이요 또 比較心理學的으로 본다면 他動物보담 越等한 思考力이 發達된 存在을 意味하는 것이다.

따라서 人間存在의 活動樣相은 複雜多端하면서도 如斯한 萬物의 靈長으로서의 知性과 德性, 藝術的 感覺性에 있어서 透徹한 自己批判과 自我認識이란 極히 簡單한 分野의 理解에서 비로서 眞正한 意味의 建實한 人間存在 活動을 規定할수 있을 것이다.

『나 自身을 알아라』 라는 「그리스」의 哲學者 소크라테스 (SOCRATES)의 말도 卽 自己批判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주어진 天命

을 알도록까지의 不斷한 自己反省을 強調하는 것이다 生覺된다. 人間活動의 範疇속에서 充分과 圓滿이란 期待할수 없다고 自暴自棄하고 現實의 腐敗한 踏級의 社會情을 熬過할수 없는것이 또한 人間活動일것이다. 無所不知의 大聖人 孔子도 曰 三省을 하였거늘 우리 같은 凡人들이야 曰 拾省 아니 百省이라도 개를리 해서는 양되리라 고 믿어진다.

人間生活 行爲中에서도, 特히 德性의 甚한 衰弱을 또한 放縱할수 없는것이다. 오늘날의 國際情勢는 弱肉強食의 野蠻性을 벗어나지 못하고 人類의 不安과 悲慘은 끊임 나뉘 없는 狀態에다가 六.三五動亂後의 우리나라는 東方禮儀之國이란, 太古時代의 이야기 인양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面은 勿論하고 날로 腐敗 一路의 現象을 續出하고 있으니 우리들과 우리를 子孫萬代의 百年大計를 爲하여 漸次的으로 混亂한 社會相을 淨化하는것도 이時代의 靑壯年들에게 附與된 責任이 아닐까 이렇게 生覺되는 것이다.

于先 가장 가까운 先後輩 關係만 하더라도 뒤에나온 사람이 먼저 앞선 사람을 尊敬하고 그에게 後輩로서의 禮儀를 지키는것은 正常的인 社會의 하나의 美點이라 아니 할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社會가 混亂하여지려는 이러한 美點이 잊어버려지는 同時에 後輩의 尊敬을 받는 先輩맞이 先輩로서 後輩에게 當然히 갖어야할 態度를 弄開視또는 忘却하기 쉽다. 後輩로서 先輩에게 非禮의 態度를 갖는것은 더 말할 나위없이 좋지 못한 일이지만 先輩로서 後輩를 弄開視 또는 잊어버린다는 것은 一層더 나쁜일이다.

이러한 傾向이나 思潮가 表面化한다면 그 社會는 틀림없이 交調와 異狀속을 걸어가는 社會인것만은 事實이다. 이 뜻으로, 볼때 解放後 十年이 넘었고 우리 政府가 樹立된지 拾年이나 되는 우리의 上下 各層은 確實히 아직 正常性을 回復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틀림이 없으리라고 生覺된다.

~10~

先後輩의 秩序가 흐리어지고 그것이 날이 갈수록 甚하여지는 傾向  
마저 없지않는 것으로 미루어 우리는 아직 正常性과는 距離가 있는  
過程을 거치고 있다고 보아 마땅하다. 事實 先後輩의 秩序가 흐  
려진 實狀을 살펴 보면 寒心하기 짝이 없을 程度이다.

後輩라는 사람들은 先輩를 한낱 骨董品으로 밖에 보지않는 것  
이 普通이다. 지나간 時代에 살았으나 現在에는 必要치 않다는 無  
能한 殘滓로 보기가 일수이고 先輩의 말에서 그들은 이미 살아진  
時代의 空虛한 부르짖음 以上の 것을 感得하지를 못한다. 甚한  
境遇에는 매마른 馬骨과같이 嚙하는 後輩마저 없지않다. 이러한 不  
遜한 先輩를 對하는 態度가 있는反面에 先輩들 側에는 『젊은이들  
이』 하는 優越感과 그들을 度外視하는 冷淡한 後輩規이 뿌리 깊이  
存在하는 것을 否定할수 없다.

自己네만이 正常的인 訓練을 거치고 確實한 발전키에 서있다고  
自負하면서 後輩들을 短時間內的 速成粗製品으로 깎보는 일이 先輩  
들사이에 뚜렷하지 않으나 마 흐르고 있는것이다. 그 結果 先輩를 相  
互間에서는 普通意味 以上の 含蓄性을 가지고 解放后 解放前이니  
하는 式으로 사람을 評價하는 말이 舉行되고 있다.

區々히 說明할 必要도 없이 解放前이란것은 解放以前에 社會나  
活動 舞臺에 登場한 사람이라는 말이다. 換言하면 나아온지 오랜 先  
輩級과 同類의 사람에 屬한다는 意味를 包含한 말이다. 이말의 意味  
를 좀더 깊이 캐보면 解放以前 登壇이 困難하던 時代에 모든 어려운  
條件을 克服하고 나아 왔다는 것도 包含한다. 그에 比하여 解放  
后라는 말은 解放以後에 아주 쉽사리 自己의 活動舞臺에 뛰어 나  
온 新人을 意味하는 말인것은 두말할 必要가 없다. 解放后의 混  
亂속에 基本訓練과 階梯를 밟지않고 머리를 주저든 實力도 風格도  
없는 『허수아비』란 말이기도 하다.

이처럼 解放以後에 나온 사람들이란 그 實力을 大端 闕缺 것으로 보지

많기 때문에 先輩들 사이에는 後輩에 對하여 恒常 不信과 不安感이  
떠돌고 있다. 每事에 있어서 自己들이 뒷받침을 해 주어야겠다고  
生覺하고 그렇게 生覺할 때마다 解放后 따위라는 輕徧心을 느끼게  
되는 것도 있음직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先輩와 後輩사이의 反目 또는 相互輕視라는 것은  
어느 모로 보든지 서로 지나친 自尊心과 自賈心에서 甞어나온 어리석  
은 自誇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自明한 일이다. 先輩라고 全知全  
能일理 없고 後輩亦是 天才나 麒麟兒만 있을수도 없다. 先輩中에도 悉  
純한 先輩와 人格이나 節操나 才幹있어 敬畏할 아무것도 갖지 못할  
사람이 있다. 其反面에 그야말로 百世무고 찾기 어려운 先輩가 또한  
없으라는 法이 없는 만큼, 甞어놓고 先輩를 不信할수도 없다.

그와 同一히 後輩中에는 瑪望할 사람이 있는 反面에 그야말로 扶  
雜性이 많은 무리도 混在하는 만큼 이亦是 輕率히 無視도 盲信도  
달수 없는 일이다.

그러만큼 相互 簡單히 斷定的인 態度로 對하기 보담은 先後輩  
는 一個의 人間的인 寬厚한 關係로 相互間에 理解와 同情을 究  
이 하도록 努力해야 할것이다. 이러한 同情과 理解에 서로 躰  
合 때 尊敬과 愛重의 情이 흐르고 그곳에 力量과 才質을 超越한 微  
的共感이 胎胎될수 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社會의 여러곳에서 볼수있는 先後輩間의 隔離도 그  
由來하는 바가 주로 社會的인 混亂에 있다고 보아야겠지만 이러한  
相互의 同情과 理解에 對한 努力과 自己修養과 自己反省이 缺乏  
한데도 重要한 原因의 하나가 있다고 보아 틀림없으리라고 生覺된다.

따라서 人間社會도 先後輩를 分間할수 있는 사람 相互 尊敬하  
고 愛護와 鞭撻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要請하는 것이고 또한 그  
러므로써 円滿한 社會가 形成될수 있는것이라고 生覺하는 것이다.

# 生活의 淨化

金 震 熙

우리는 恒常 좀더 좋은 生活  
좀더 보람있는 生活을 希求하여  
關心을 가지고 努力을 繼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고 修業을 쌓  
고 健康에 留意하는 것은 보다  
나은 生活을 하기爲한 準備요,  
努力의 表現이라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學校教育의 目標을  
知育, 德育, 體育으로 根幹을 삼  
는것도 個人生活이나 社會生活을  
좀더 價値있는 生活을 할수 있는  
實力을 養成하는데 있다고 한것  
입니다.

보다 더 나은 生活을 追求渴  
望함은 人間의 本性일것이나 이  
生活은 반드시 善한 手段과 方  
法을 通하여 이루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不正挾雜(惡)의 手段과 方法  
을弄하여 巨萬의 致富가 되어  
豪衣豪食하며 奢侈스러운 生活

을 하는 사람이 있다 假定하면  
그 사람은 或如 不正이 縱露나  
나지않을까 하여 恒常 罪意識에  
사로잡혀 苦痛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生活手段이 不正에서  
오는 應報로서 決코 幸福된 生  
活이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生活보다는 茅屋에  
서 비가 새고 하늘이 내다보이는  
방안에서 팔버게를 베고 누어 있  
어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다 하  
는 式의 風流하고 淸食한 生活  
이 부러울 것입니다.

近者 痛嘆할 일은 學生犯罪  
어깨 學生의 橫行 競技에 있어서  
의 不祥事 其他 學生風紀問題로  
社會面에 大書特書로 報導되고  
더우기 그 犯罪의 種類에 있어  
서 兇惡 破廉恥함에 이르러서는  
知性和 正義의 象徴으로 믿어  
왔던 學生全體에 그 累를 미치게  
하였으니 아무리 混亂한 社會相  
의 反映이라 하여도 가슴을 찢는  
슬픔을 아나 느낄수 없습니다.

이들 犯行의 動機도 追究하  
면 매마른 生活環境과 頹廢한  
生活感情에 周圍의 惡의 強烈



한 誘引에 敗北하여 漸次 惡에 感染되어 及其世는 理性을 喪失하여 自暴自棄에 이르러 極惡하고 可惡할 犯罪를 저지르고 自身을 破滅의 구렁이로 돌아놓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學生犯罪의 原因이 周圍의 惡의 素因의 作用으로 始作하여 우리의 社會生活을 威脅한다면 여기에 우리는 連帶責任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各自의 生活이 直接 隣人의 生活과 連續되어 있는 事實을 손쉽게 理解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生活은 精神的으로나 物質的으로나 一大 變換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各々 異한 生活이 渴望되는 때도 別지 無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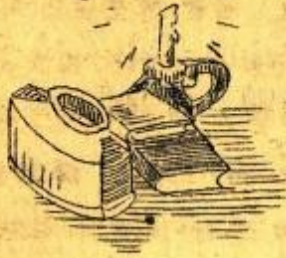
이제 우리는 自身이 믿을 수 있는 生活, 남을 尊重할 수 있는 生活의 理想에서 于先 隣人에게 좋은 影響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素朴하고도 謙虛한 清廉, 努力, 忍耐, 創意의 生活을 實踐에 옮기는 것이 앞으로의 좀 더 보람있는 生活을 얻는 秘訣일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이것이 곧 潤澤한 生活의 前途를 奏曲인 것이라고 믿으며 希望과 勇氣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恒常 착하고 아름답고 情緒가 담겨져 있으니 이 착하고 아름다운 情緒를 잠재우지 말고 항상 生活面에 흐르도록 힘쓰면 우리의 生活은 各自가 矜持할 수 있는 生活이 될 것으로 生覺합니다. 이렇게하여 우리 各自의 生活이 人類과 直結할 수 있으리라고 生覺합니다.

設問

1. 당신이 逕記學校에 온 動機는 ?
2. 당신이 萬一 女子라면 ?
3. 당신의 戀愛談은 ?
4. 당신은 未來의 子息을 어떤 사람으로 ?
5. 당신이 第一 좋아하는 冊은 ?

<先輩特別奇稿>



# 끝까지 배우자

民議院速記士 尹壽鉉

무엇이든 남이 못하는 것을 한  
 다는 것은 틀림없이 자랑일 수 있  
 다. 우리速記만 하더라도 그  
 리 크게 大端한 것은 못되지만  
 처음에는 누구나 나도 나도 하  
 고 덤비다가도 一年이탄 習得  
 過程을 끝장을 못내고 나가자  
 빠지는 사람이 많고보면 그래도  
 그 동안을 落伍하고 廢修한다  
 는 것은 쉬운 노릇이 아니다.  
 다른 學問이나 技術도 그럴는  
 지 몰라도 速記라는 것은 短  
 期間에 最大의 馬力을 傾注하  
 여야 習得되는 것이기 때문에  
 速記를 할수있는 사람은 性格  
 (?)上으로도 區別되었다고 하  
 는 것이 좋은 것 같다.

그것은 뭐나하면 誠意와 忍耐  
 와 努力을 具備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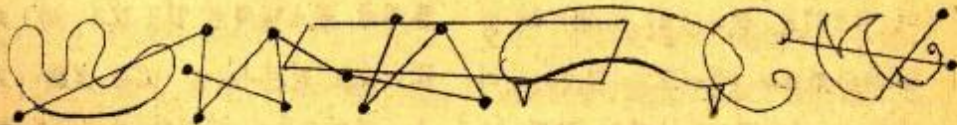
짧다면 짧은 一年이지만 그 三  
 百六十五日을 最少限度 六七  
 日의 缺席도 없이 誠實히 나눌수  
 있는 忍耐가 必要한 것이고 每日  
 每日 學校에서 배운 略字나 記  
 法을 집에 돌아가 二三時間式은  
 暗記하고 써볼라고 하는 努力이 必  
 要한 때문이다.

入學初期에는 누구나 好奇心 絶  
 望 絶반으로 그것쯤 남이 하  
 는것을 내가 못할까 하는것이  
 普通이지만 하루 하루 速記術  
 의 内部를 레치고 들어가면 그 無  
 味하고 機械的인 生活에 곧 壓  
 症을 이르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그리고 略字나 記法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完全無缺해서 적어도  
 「가」하면 「가」字가 아무 變動이  
 없고 눈감고 쓱쓱 써놓아도 알아  
 볼수 있는 그런것이 아님 말하자  
 면 기리나 方向으로 區別하고

「가」字와 「거」字가 비슷한데 幼穉  
 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도 事實  
 이다. 그러나 이런것은 速記라  
 는 것을 確實히 理解하지도 못하  
 고 그저 수박 길할기로 한번 해  
 보자는것이니 마치 그렇게 單純  
 하게 作亂삼어 덩빈 사람치고 成  
 功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이다.  
 누구나 그런것이지만 習得期에  
 는 速記에 對하여 알고 싶은 것  
 이 너무 많아서 鉛筆을 잡으면  
 손은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或  
 은 크게 써야 하는가 적게 써야

하는가 따위에 神經을 쓰는 수  
 가 많다. 그러나 이런것은 그  
 령게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고  
 無條件 꾸준하게 熱心히 努力만  
 하면 누구나 完全한 速記士가  
 될수 있는 것이다. 社會에서 혼  
 히를 떠들어대는 얘기지만 一人一技  
 라는 말이 있으니 말이지 技術치고  
 는 文化人이든 한번 배워야 할것  
 이 이 速記가 아닌가 나는 恒常  
 생각하는 것이다. 一年배워 百年  
 쓰자! 이것이 끝으로 後輩에  
 게 對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筆者 二期生)



**設問**

1. 어찌다 보니 다니게 되었구려
2. 여름에도 옷을 두둑하게 입고 다니 겠다
3. 아직 未定입니다. 窈窕淑女
4. 좀더 살아보고 처짱하지요.
5. 常綠樹有情

沈 章 輔



# 開拓者의 精神으로

速記文化界 李 東 一



이제 苦生門 (나는 敢히 이 나라 速記界를 苦生門이라고 稱한다) 을 두드러진 三個月餘를 經過한 여러분에게 새삼스럽게 「開拓者의 精神으로」라고 題하여 이렇듯 저런중 들어서 얘기한다는 것이 속스럽기조차 하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苦生門을 두드릴때 이미 古려한 精神을 갖고 있었으리라 믿으며 苦生門을 들어서 三個月餘를 經過하였으니 적어도 어렵곳이나 速記가 어떠한 것이라는 輪廓마는 알았을 것이기에 더욱 그런 속스러운 感情이 앞을 선다. 그러나 이같이 速記라고 하는 새로운 境地를 開拓하고자 하는 여러분이나

또는 이 나라 速記文化界에 덜끝반금이라도 清涼劑가 되고 強心劑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一念에서 敢히 이 글을 쓴다.

때때로 우리들은 「스크린」을 통해서 美國의 開拓史를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世界科學文明의 惠澤을 最大限度로 입고 있고 地上天國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美國이 元來 移住해오기 前부터 살기 좋고 華麗한 나라는 아니었다.

自然林 그대로의 大陸에서 最初에 그들의 活動舞臺 斗争對象은 純전히 自然을 相對로한 것이었다. 衣食住



## 李 相 鎔

1. 나 自身의 生活方針을 爲한 것이기에.
2. 生覺치도 못한 일인데 이世界上을 꽃밭으로나 만들어 볼까
3. 꼭 알아야 시원하겠소?
4. 그대에 가 봐서
5. 虎溪의 懸壺

## 金 僕 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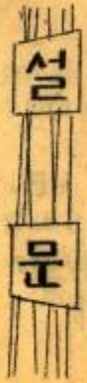
1. 時間原因로
2. 男子들이나 농락하지요
3. 忠愛의 무덤속에 들어간지 오래요.
4. 結婚 아니 再婚하지 않을 것이다
5. 간화좌

를 解決하기爲하여 그들은 荒蕪地  
 를 開墾하지않으면 안되었고 生  
 命財産을 保護하기爲하여 猛獸들  
 과 싸우지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  
 여 그들은 그들이 꿈꾸는 '유-토피아'  
 를 現實化시키기에 온갖 苦楚를 무릅  
 쓰고 努力해온것이다. 그들이 걸어온  
 길은 그 발자취 발자취마다 모두 피  
 땀어린 抗爭이 아닌것은 없었다.  
 처음에 그들의 斗爭의 對象은 다만  
 自然 그것이었으나 다음으로는 그들  
 을 擧取하려는 무리 換言하면 社  
 會惡을 造成하는 惡漢들을 相對  
 로 한 正義와 惡에의 對決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時境가 바로 그들 移住民들  
 에 있어서의 過渡期인지도 모른다.  
 어떻게 보면 이나라 速記界는 별  
 씩 開拓期를 지나서 過渡期에 당  
 到해있는 느낌이 없지않다. 그것은

過渡期에는 모든것이 無秩序한  
 狀態에 놓여지고 「惡貨가 良貨  
 를 驅逐한다」고 하는 「그레샴」  
 의 法則이 適用되는 것같이 생각  
 되어지기 때문이다. 事實上 오  
 늘날 우리의 速記界를 바라보건  
 대 邪道가 正道를 萎縮시키고있  
 는 形便이요, 速記라는 特殊技術  
 이 社會一般에 널리 普及되어 있  
 지않다는 이 弱點을 惡利用하는  
 一部 沒知覺한 무리들이 橫行  
 하고 있으니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無理가 아닐것이다. 여기  
 에 있어서 우리 先輩님들이 걸  
 어온 발자취를 더듬으며 우리의  
 進路가 果然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東西古今을 莫論하고 비록 速  
 記界뿐만이 아니라 어느 分野를  
 不問하고 開拓者들은 刻苦의 勞



咸永一

1. 지개관은 하시않고 그렇다고 높은 자리에 앉을 기력은 없고  
 할수가 있나. 밥이라도 먹볼가 하고 .....
2. 가달 머리 치렁치렁 느린 시골법새풍기는 온순하고 어여쁜 여자가  
 되고 싶소
3. 내가 선드린 여자치고는 나를 따르지 않는 女性이 없드라
4. 子息을 낳고 불장이다
5. "아리랑 행복론"

력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나라 速記의 車輛이란 不過 十數年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의 스승 先輩님들은 이 나라 記錄文化界에 이바지 하시겠다는 崇高한 一念에서 不徹晝夜로 無에서 有를 創造해내시기에 心血을 기울여 보셨던 것이다. 우리 先輩들이 걸어오신 길은 不聞可知로서, 그 까닭도 荊說의 발자취 그대로인 것이다. 이제 이 나라 速記界의 第一段階인 開拓期는 지나서 第二段階인 過渡期에 到達한 것이다. 우리들은 이 過渡期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의 앞에는 뛰놀고 처감이 없은 것이다. 우리의 連絡를 가로막고 우리 速記界의 發展을 막고 있는 것은 우리!

우리는 우리를 自身과 우리의 力을 이을 사람들의 權益을 爲하여 한거름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記錄文化界의 恒久如一한 發展을 爲하여 果敢히 싸워야 한다. 힘에는 힘으로, 實力에는 實力으로 우리의 能力을 다하여 對決 斗爭해야 한다. 그러기 爲하여 우리는 自身의 實力을 培養하여 그들이 活步하고 다니고 있는 根本原因이요 弱點으로 삼고 있는 社會一般의 速記에 對한 눈 을 뜨도록 努力해야 하는 것이다. 社會一般의 速記에 對한 認識이 새로워지는 날에 그들의 存在란 한낱 이슬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날까지 우리는 黙々히 스스로의 實力을 키워야 한다. 森羅萬象이 無心히 서있는 것 같



金 興 烈

1. 친구의 권유로
2. 料理法을 研究하여 國民體力 向上에 힘쓰겠다.
3. 2번 해보고 나서 다시
4. 나의 進業을 받들고 私慾이 없는 者로
5. 'B. Russell의 The Conquest of Happi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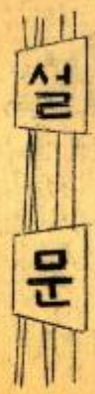
徐 在 德

1. 우리 速記學校에서는 勿論이지요. 現下 速記界에 들도 없는 人物이 되고 싶다.
2. 自殺해 버리고 말겠다.
3. 그저 내성애애로 무엇이든 할 줄 아는 人間 내가 할 줄 아는 것이라면 다 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Get away
4. 極限에 맞는 人間
5. 國語冊

으나 산은 산으로서의, 물은 물  
 으로서, 나무는 나무로서의  
 目的과 價値가 있어서 서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人間은 人間  
 으로서의 生의 目的과 存在  
 價値가 있어서 살고있는 것이다  
 한箇의 꽃봉우리가 后日에 한송  
 이의 꽃으로 피어나기 爲하여  
 참고 기다림 같이 우리 人間도  
 人間으로서 태어나 生의 喜悅  
 生의 보람을 누리고져 하는 意  
 慾에서 生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할일이 泰山같이 많은  
 것이다. 그 할일이 무엇이던  
 間에 人類社會에 貢獻할수 있는  
 것이면 좋다. 무슨 일이던 間  
 에 달려고 하는 일은 끝까지 마  
 칠려고 決斷하라. 決斷했으면  
 遂行하라. 不屈의 精神을 가

지교하면 무엇이 우리의 進路  
 를 막을 것인가!  
 美大陸으로 移住하여 菩提를 겪  
 은 그들의 괴와 父母의 代價로서  
 그들의 后孫들이 安逸하고 幸  
 福된 生活을 누리는 것과 마  
 찬가지로 우리의 先輩들이 피  
 땀흘린 開拓精神을 본받아서  
 우리가 힘써가면 반드시 后日  
 에 피땀 흘린 보람이 있으리  
 니 우리 다같이 빛나는 그날을  
 爲하여 遠記界의 基盤을 든든  
 히 쌓고 뛰어 나아가야 할 것  
 이다.

(끝)



金 浮 話

1. 生活를 좀더 활발하게 하기 爲하여
2. 슬머는 男子를 理解하기에 努力하겠오
3. 失戀이 全那, 아마 未來도 그럴것이지요?
4. 子息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5. Tolstoy의 著作록.

金 海 成

1. 사실 그대로를 말지 爲해서지 무엇이나 無識이 常識인걸
2. 青春의 흥사정을 음습이라도 할지?
3. 말하나 마나 青春의 附屬品인 戀愛야 지난날의 追憶이지 그이거 기기란 精談 누구에게나 秘密로움이 如何?
4. 잘 못하고 잘을수 있는 人間으로나 만들지
5. 들스도이의 人生觀本이리코나 할까오



# 落伍者가 되지말자

長謙 速記士 金 百 坤

落伍者----- 이렇게 한 單語로서의  
 語感은 別로 좋은 印象은 주지못한다.  
 社會通念으로 보아서도 落伍者하면 무슨 犯罪者  
 처럼 先入感을 가져오는 수가 例事다. 何如  
 든 落伍者하면 좋지않게 생각되는 것에 들  
 림이 없으니 그러한 面에서 본다손치드라도 別  
 로 좋은 「실패」이 많인바에야 不可能하다고 본다. 그러면 果  
 然 落伍者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 然 生徒들에게 바라는 協助라는  
 각한다. 그런데 우리 速記習 習은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  
 得過程에 있어서도 흔히 落伍 分들은 第一 먼저 생각해야 될  
 者가 생기는데 學校側에서도 每 問題인데 그것은 비단 學校側  
 年 이것을 救濟하기 爲해서 無 限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 努 分에게도 結果적으로 有益하  
 力도 亦是 生徒들의 協助가 여 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기에 介在하지 않고서는 到底히 一週日에 한번 잘하면 두번쯤

설문

### 金 倅 源

1. 물음自体가 속스럽습니다.
2. 나같은 사람의 安해가 되겠습니다.
3. 나의 愛人은 이미 이世上을 떠났다. 그러나 痛없이 天堂에 갔으리라.
4. 이 세상에 만들어내놓고 싶지 않다.
5. 李光洙著 ; 원호대사.

### 崔 权 興

1. 하나의 生活技術을 習得 하려고
2. 美大統領을 구어함아 돈을 많이 얻어 오겠다.
3. 별로 없음.
4. 救國의 指導者
5. 厂史人物을 中心으로한 野史集



여러분들이 速記를 習得하고 있는 것을 보는 저로서 唐突하게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이 전방진 말이 될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은 먼저 體驗한 사람의 말이나 多幸으로 여러분에게 재촉질을 加해주는 말이 된다면 恰足하게 생각된다.

勿論 여러분들은 여러 先生님들의 좋은 말씀을 듣고 이미 마음속에 굳게 決心한바 있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速記를 習得코저하는데는 그 注意 말씀도 自己自身이 隨時로 喚起시키지 않으면 瞬間적으로 忘却해버리는 수가 例事이며 또한 이것이 落伍者가 되는 第一 첫째 段階인 것이다.

모름지기 여러분들은 職業速

記士가 된다든지 或은 速記士로서 할수있는 職業에 從事하든지 或은 常職程度로 習得한다든지 이렇게 그目的은 서로 異하다. 할찌라도 窮極的인 目的이 完全速記를 願하는 분이라면 지금 現在부터라도 忍耐에 努力을 加하고 그것을 재촉질하고 奮勵해서 해나가야지 그렇지않고 單純히 速記라는것을 단 習學과 같이 생각했다가는 結果에 不名譽스러운 處地에 이르게 될것이다.

옛말에 「가다가 곧 中止하면 아난만 못하다」 하는 말이 있어 이것은 어느 배움에서나 마찬가지로 重要な 警句가 되겠지만 亦是 이 速記習學에 있어서는 보다 重要的 警句이다.



林明鎬

- 1. /人/ 枝主義
- 2. 나의 짝사랑이 끝납니다.
- 3. 말 뜻할 事情
- 4. 速記士

南基璽

- 1. 速記士나 될까 하고.
- 2. Miss Korea 에 선발되겠지
- 3. 現在進行形 -----
- 4. 1대 6석
- 5. 捲炬

速記習得途中에 落伍者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時間的인 損失은 가져왔어도 가져오는 利益이란 秋毫도 없는 것이니 그點까지 銘心있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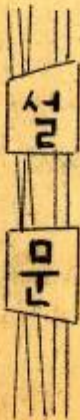
그러면 萬若의 境遇를 생각해서 本意 아닌 落伍者가 될 때 이것은 時間과 努力의 浪費를 가져 올 것이니 지금 고만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될 것이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杞憂이요 이 길은 非坦 여러분만이 걷는 荊棘의 길이지 아니고 現在 社會에서 機械처럼 움직여 社會에 이바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先輩들도 그러한 杞憂을 克服하고 모름지기 忍耐와 努力의 結果로 이루어진 것이니 오직 熱誠을 다하여 習得에 一路邁進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의 講義時間의 習學狀態를 보건대 勿論 熱心히 先生님의 말을 傾聽해서 練習에 努力한 結果 相當한 進度를 보여주고 있는 學生이 있는 反面에 時間內에 晝閑視한 學生들은 實力이 보기에 도 惝恍程度로 顯著한 差異를 내고 있는 사람이 더러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해볼 것은 先生님들의 一言은 오래동안의 經驗과 研究를 綜合한 語句인 것이기 때문에 先生님들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傾聽안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付託하려는 말은 어디까지나 이 速記習學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못되기



双星連

1. 速記 하고 싶어서
2. Miss Korea 되었으면
3. 가진바 없다.
4. 武人的性格의 所有者도
5. 論語

朴在甲

1. 묻지 말事.
2. 奸字에 女字가 많어지도록 하시오.
3. 幻象의 藝術이 있습니다.
4. 眞理의 用牛로
5. 韓史의 전쟁과 평화

때문에 지금 現在보다 加一層 忍 記者가 되기 까지 落伍者가 되지  
耐와 努力과 여기에 常識을 陶冶 말차는 것이다.  
하여 最後의 目的----- 完全速

(鄭源道先生)

「막거리 좀먹고 들어왔다」  
아마 「그렇게 쓸거야」와 같은  
少年다운 꾸밈없는 말말엔 一種

學生들에게는 別無支障.....

「르」 받침 배우든 時節 또한 꿈속  
같은 追憶일뿐..... 先生님  
과히 걱정마시기를.

의 애교와 같은 어리광  
이가 숨어있다.

어디까지나 少年다운 美  
貌와 풀잎처럼 연한 키  
와 하이얀 피부빛 같이  
두려움을 모르고 자라



(張恩根先生)

大部分의 學友  
들이 興味를 喪失  
한 速記學을 たく  
한 地下室 空氣속

난 貴公子 같다고 「Baby」라  
는 愛稱을 先生님의 別名으로  
特許나낼까? 또한 와걸리와  
「르」 받침과는 調和가 잘되니

에서 時間가는줄 모르게 끌고루  
親切히 例文을 불러주실 때에는  
배고픔과 더불어 「스릴」과 긴장  
을 느낀다. 어디까지나 총과다  
운 「제스추어」는 당々 學生들

신  
아

尹應遠

1. 速記學 專攻次.
2. 賢母良妻가 될까?  
까만 양은 候補者면 무엇이든  
OK.
3. 女子란 求복도 못했는데 忍愛  
가 뭐람
4. 남기도 前에 어떻게 말해 남  
되야 알지.
5. 韓國獨立運之血史.

來在鶴

1. 卒直히 말하면 그것이 容易할까  
해서
2. 놈평이의 親友가 되겠어오
3. 自然戀愛
4. '학기도 간난 지지매가 퍼대기 먼저  
잠만하는 格式이더군요 마야님.  
斷然하면 어려워합니다.
5. '로지 만화책이 하나 주겠지요

~24~

의 興味를 돋우고 있다. 무뎡々하  
 면서도 아기자기한 모습 그대로  
 來日이면 豪華로운 「웨이딩 마켓」  
 의 가벼운 스텐을 밟아 열광을 살  
 짝 붙히실 총각 趣味를 언제나  
 버리실는지 깨가 쏟아질 것 같이  
 즐거운 「스윛트 톨」 일랑 장만하  
 여 「엄마 아빠 이리와 오것 보  
 세요 짹々궁 짹々궁」 부부 합  
 장이 창밀으로 언제나 월 사이  
 없이 흘러나올런지? 先生님 結  
 婚促進을 종결기하자!

(金 煥 基 先生)

緻密하고 빈틈없는 先生任에  
 당떨막한 키와 뚱々한 몸집은  
 밝은 古木과 같은 믿음성을 暗  
 示해준다.

또한 親切의 度가 "오바" 할 때

마다 어딘지 웃고추 냄새를 풍  
 기는 전녀 마을 개똥이네집 머  
 슴 같다고 學友들이 合評도  
 가만히 웃고만 있을수는 없는  
 일 —

넓은 이마에 굵은 주름살은 速  
 記界에서 찾아 볼수없는 線 또  
 한 우리들의 자랑이기도 하다.  
 때에 따라 先生님의 低氣壓 같  
 은 神經的壓縮은 아연교 學生들  
 을 긴장하다.

아마 이것이 先生님 마음속  
 의 設計圖일런지도 모르는 일



禹 銀 出

1. 一流速記者가 되어 靑史에 남  
 을 重大人物을 그려내기 爲하여
2. 女子라면 여우가되어 入道江山  
 流浪生活을 하고 싶어 (황진이)
3. Man about town 이렇게  
 思春期와 더불어 몽상합니다.
4. 우선 자녀 교육에 힘쓴다. (솔아지  
 제멋대로 놓아두면 공덕관에 닿만  
 물으니)
5. 옛날 로마의 철학자 황제 (마아카  
 스. 오오렐리아스)의 瞑想錄.

金 炳 斗

1. 누구나 다 비슷하겠지
2. 學校는 家事科에..... 옷과 밥  
 을 손수 짓고 싶어
3. 묻는 便이 쏙, 차와 예기합니다.
4. 아버지보다 좀 나은 아들.
5. 마아카스 오오렐리아스의 瞑  
 想錄.

<漫 筆>



# 責任과 親切

朴 明 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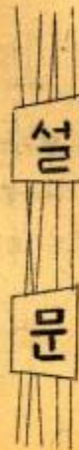
에 對해서 各己 責任이 있는 것  
입니다.

親愛하는 朋友 여러분에게 이 面  
面을 通하여 人事의 말씀을 드리며  
아름다 小身이 一段을 被擱하게된  
것을 榮光으로 生覺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일을 합니다.  
그 일하는 것이 반드시 먹고 사  
는 方法으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  
고 사람마다 제各己, 技長技, 能  
力에 따라서 社會人의 한 사람  
으로서 죽는 날까지 일해야만 하  
는 것입니다. 그 일이라는 것이  
그 業種이 肉體勞動이건 精神勞  
動이건 間에 제各己, 任所在

우리 나라 通弊의 하나로서 責  
任所在가 分明치 않고 가지 못하  
서 하는 일이나 그럭 저럭 자리  
(位置) 保存이나 하자는 심뻐가  
各界 各層에 傳染되어 그것이. 오  
늘날 社會를 混亂케 하는 것입  
니다.

各其 責任下에 있는것을 못사  
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되며 못사람의  
눈치 교치를 보고서 옳지 않은  
줄 번번히 알면서도 脾胃를 傷  
할까 怯내서 聽從하는 風習이



金 永 祿

1. 好奇心과 親知의 도움으로
2. 더 善하고 純眞한것을
3. 素朴한 女子와 人生觀을 問答  
해볼때가 언제 올런지?
4. 社會人으로서의 協助할줄 아는  
人物
5. 4의 信條

鄭 寅 浩

1. 모두가 그러할텐데 구려어 말  
러 무엇하리.
2. 못남자 容안에 안기고 싶다.
3. 별로 신동치 않아서
4. 아들은 社長, 딸은 마담으로
5. 漫畵世界

各계에 蔓延되면 社會秩序는 바로  
 잡힐 道理가 없고 世事는 모두 厄망  
 진창이 될것은 變환 事實일것입니다.  
 감루病 患者들은 감루를 쓰고 다니면  
 그 감루에 適切한 일을해서 爲國愛  
 民하자는 中心보다는 어떻게 한자  
 리 얻거던 잘 遊泳해서 나라는 어  
 썸되든, 民生은 어썸되든, 한류 단  
 단히 보고 오래오래 기리기리 자  
 리나 保全하자는 生覺이 骨髓에  
 박히었으니 이런 爲人을 때문에 골  
 당먹는 것은 國民뿐입니다.

정말 良心있는 者, 實力있는 者는  
 杜門不出하거나 第三者的 處地에  
 서 世上을 잘못 概歎하면서 獨高  
 獨立主義로 나가는 一部類가 있  
 습니다만 이것은 옳지 않을 것입  
 니다.

世상이 그릇되어 가는것 或은

남이 잘못하는 것이 왔거든 勇敢  
 히 나서서 是非를 따지고 輿論을  
 喚起시킬 義務가 國民各自에 있  
 고 봅니다.

그것이 消極的으로 잘못을 指摘  
 批難하는데만 그쳐도 未合합니다.  
 '너는 이러 이리한 部分이 잘못  
 되었다. 내가 한다면 이렇게 하  
 겠다'고 分明히 代案을 내놓아  
 야 합니다. 代案없는 批難은 辱  
 說에 不過한 것입니다. 建設的으  
 로 이렇게 하라는 意思表示가 必  
 要한것입니다.

民主社會란 憲法을 民主主義的  
 으로 判定했다해서 저절로 되는것  
 도 아니고 民主社會란 國民의 民  
 主主義的 努力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누가 저지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丁奎 樞

1. 글세요.
2. 글세
3. 글세요
4. 글세
5. 글세요

朴 鍾 亮

1. 秘密便紙, 吾 學라고
2. 老婆는 齡고 靑다운 處女라  
면 미스리 프리아에나 나가불까
3. 方今 MRS XXX氏와 進行  
中
4. 編造
5. 戀愛教室

各自은 責任을 充實히 履行함  
으로서 自身의 發展向上을 圖謀  
하고 나아가서 幸福과 繁榮이  
約束되는 것입니다.

지금 世上은 『저만 잘살자』  
는 觀念이 박힌듯 합니다. 個  
만 살어도 餓되고 全만 살어도  
餓된다는 말입니다.

個없는 全을 想像할수 없는것  
과 마찬가지로 全없는 個는 完  
全한것이 되지못하는 것입니다.  
個와 全의 利害關係가 마치 부  
채의 兩面과 같이 되지고 달하면  
같이 달해지는 그런 關係에 있어  
야 할일입니다. 個와 全이 共同  
利害 關係에서 움직이게 된다  
면 오늘날 우리 社會에서 보는  
모든 矛盾 不合理 犯罪는 거의  
全部 除去되고 살기좋은 世上을

보게 될것입니다. 貪官汚吏나 惡  
質謀利輩나 오사히 돈히 말하  
는 「사바사바」나 詐欺나 橫領  
이나 等々 新聞社會面(三面)을  
날마다 더럽히는 모든 醜惡이 없  
어질 것입니다.

모든 人間은 慾望이 있습니다.  
이 慾望을 限定없이 發展시키는  
곳에서 남의 自由를 박탈하고 남  
을 훔치고 더 나아가서는 남을  
죽이는데 까지 이르는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聖인이 아  
닌바에야 모든 사람에게 남만 屬  
해서 살라고도 할수 없는 것입  
니다. 勿論 個々人도 잘 살어  
야 합니다.

그러나 저도 살고, 남도 잘  
되게 하는 努力이 있어야 할지  
나, 그렇게 하는데는 自己가 살

설문

- 元光 淵
1. 一次 二次 모두 그렇게되 M가 없어서라고 해두지
  2. 生覺안해보았오. 두고 두고 生覺해 볼 依處
  3. 잊으면 좋겠는데 유감스럽게도... 앞으로 進行
  4. 무々한 그리고 훌륭한. 그런데 무심 이 많아서 될까
  5. 元來無識이라 어떤것을 알릴까 모르겠오.

- 金 鍾 壽
1. 速記文字의 研究次
  2. ? ..... 언택은 速記士
  3. 귀낙 덜되서 자기 자기한 戀愛를 못해보았오. 景손은 康祥의 獨特한 美德이라고들 하지만 귀의 경우만은 確實히 다르다는 點만 理解하십시오
  4. 有能한 世界第萬의 速記士(第一 이나고)
  5. 逆波著書

기 위해서 하는 行動이 社會와 國家의 利益에 背馳가 되지 아니 할것은 勿論이요. 關係를 더 나가서 自己의 言動이 直接 또는 間接으로 남에게도 利益이 되어야 할 일(事)입니다.

그 方法은 大端히 어려울것 같으나 至極히 간단합니다. 個人이 自己가 맡은 일에 充實히 責任을 지고 하는데 잇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면 社會는 自然 明明해지고 各者는 愉快하고 삶의 幸福感을 느

끼게 되어 文化는 점점 向上될 것이 分明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까? 親切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親切은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남에게 親切하면 나의 親切을 받는 사람이 기뻐하고 남에게 親切을 베푸는 自己 自身이 愉快해질 것입니다.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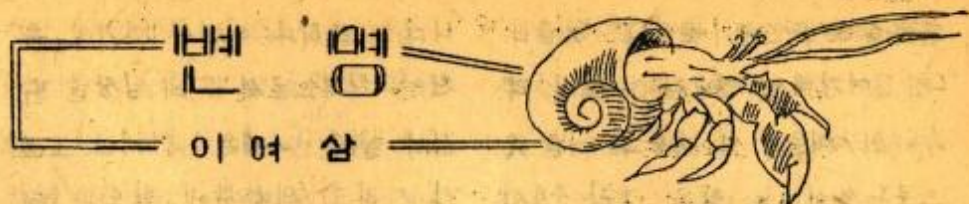
張奎錫

1. 二等選記人으로 國會에 出入하기 爲하여.
2. 賢母良妻
3. 바를 가는 곳에 실이나 ---- 더러 있을데지.
4. 政治家
5. 좁은 문.

駸人 (林慶澤)

1. 一人一枝라는 오늘의 教育理想을 明確히 認識하고는 나머지지 않지요.
2. 女性戰線에서 解放派 및 戰后派를 吸收하여-
3. 經驗이 많은 그러나 나 혼자만이 좋아하는 사람은 있었습니까만-
4. 醫師
5. 韓何雲詩集 「보리피리」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言語란 그 민족의 民族性을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言語로서 民族性 또는 그 민족이 過去에 걸어온 社會制度를 考察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各道 言語의 相異點은 오랜 歲月 自然의 人爲의 環境의 影響이 큰 것입니다.

前者의 境遇는 氣候 土質 地形等에 關係되는 것이며 後者의 境遇는 大部分 政治的 影響에 關係되는 것입니다.

이 言語의 性格이라는 것은 音調라든지 速度 強弱等으로 表現되며 여기에 對한 考察의 領域

은 너무 廣範圍함으로 이 部面은 專問的 知識이 있는 國文學者에게 마끼고 우리는 여기서 辨明이라는 單語의 使用 交遷과 關聯해서 우리나라 民族性을 考察해보기로 합시다.

本來 辨明이라는 뜻은 글자 그대로 事物의 現象을 詳혀 說明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不拘하고 一部面에서는 本來의 뜻과는 距離가 먼 意味로 쓰이고 있습니다. "왜 변명하느냐" 또는 "아니 이것은 辨明이 아닙니다" 라고 할때에 그 뜻이라는 것은 어떻게 避하려고 囂설 수



- 壼 皇 喚
1. 求職次 來棧
  2. 吳男과 사거봄이 何리까?
  3. 아직 끝마친것이 없으니 保留
  4. 男은 文學家, 女는 貞淑한 女 子이면 -----
  5. 倭人 倭

- 車 智 奪
1. 남보다 좀더 알기爲해서
  2. 男子가 되고 말겠소
  3. 천하히 말하지요
  4. 백과 사전을 -----
  - 5.

~ 30 ~

실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어란 一種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다른 뜻으로 쓰인다는 것은 그리 중요시 될바가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어휘로서 변했으나에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변명의 사용범위를 넓혀서 지배계급인 양반사회와 피지배계급인 평민을 등장시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또한 협의로는 가족제도에도 적용될수 있는것입니다.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입장을 밝히려고 변명할때 (본 뜻으로 쓰임.) 주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비위에 맞지 않으면 "무슨 변명이나" 하고 호통칠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은 "무슨 잡 말을 말하느냐" 하는 뜻이되고 말

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기의 특권인 권력으로써 "네 입장을 밝히지 말라. 어째든간에 너는 그러다." 라고 세치밖에 많되는 혀로써 변명의 뜻을 전도시킬수 있는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피지배계급으로써는 선의로든지 악의로든지 아부와 클 종감 또한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말할수 없다는 즉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제현상이 동조함으로써 급기야는 변명의 그 참뜻을 알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언론의 자유와 투지력이 없었던 이들과 근자에 세칭 "지당파"라고 하는 유행어에 속하는 위인들은 어느면으로 보아서는 同類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民族의 언론의 자유가 확보되었고 강건

서  
문

沈 鉉 洙

1. 하나의 特技를 習得코저
2. 無條件 좋겠음. 꼭 좀 그리되었으면 .....
3. 高校時의 沈沈이며 한창 무르익고 있으나..... 죽어버릴까 걱정.
4. 남자라면 나와 같은 사람. 여자라면 K 같은 사람
5. 한국..... 순애보  
외국..... 스텝이여 안녕

성과 독립자주 정신이 강했든들 이러한 전세가 들에 의해서 변화된 변명이라는 내용 전도를 불허했을것입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완고한 처세만 취들을줄 아는 지배계급의 동향을 알수 있는 것이며 자기변명의 참뜻을 짐해당한 소위 서민들의 생태를 파악할수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왜 지위의 상하를 따져 논하느냐 동등한 지위에서 논할 수 없느냐" 라고 이의를 가지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같은 지위로서도 변명이라는 말을 쓸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쓰이는데 고치고 마는 것이며 그 뜻을 변화시킬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 지위가 같은 잡을 이었다고 합시다. 잡이 환종이를 보고 "이것은 희다" 할 때 "아니 그렇지 않다. 그것은 적다" 라고 할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설령 앓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자기주장에 불과한것이고 잡을 굴종시킬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비록 주종의 관계일지라도 언론의 자유가 확보되었드라면. 투지력이 강했드라면 결코 변명의 뜻이 변함을 인정치 않았을리라는 사실을 발견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써 반드시 상하의 차이에서만 변명의 변화를 성립시킬수 있는것입니다. 또 한가지 과도기에 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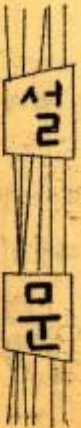
白 允 基

1. 서울의 거리에서 금병이같은 인생속을 살다가 여기에 오게 된것이 多류이나 .....
2. 해주지마 (한복의 그림과 같은) 시골의 순박한 女性이 되련만.....
3. 아직 종각이니 염려 말고 물어보지 마시오. 왜냐? 순진하기 때문에
4. 장가가서 子息이 있고 할말이나 .....
5. 英韓辭典



재미있는 일이 있겠습니다. "무슨 변명이나" 할때 그뜻에 적당한 용어를 쓰지않고 거리가 먼 변명을 대응했는가. 이것도 역시 흥미있는 일입니다. 자기 입장을 변명 할때 양심을 속이는 진이나 가나 역시 변명은 변명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견지에서 변명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편으로는 변명을 인정하면서 위압으로써 뜻을 변천시켰다는 것을 볼때 얼마나 그들이 위선적이었나를 가히 짐작할수 있는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세대는 이렇게 왜치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도시킨자 그 누구이며 그들에게 대항도 투쟁도 버리고. 국복한자 그역시 누구냐"라고 과연 오늘날까지 전자

나 후자나 그 근성을 완전히 버지못하여 천적으로써 법을 키집는 자가 있는가하면 이 월권행동을 수수방관하는 부류로 있는것입니다. 특히 무교양자일수록 인간의 숭고한 천부의 인권조차 누리지못하며 고달픈 인생을 견고있는 현사회 실정을 볼수 있습니다. 이들이 정당한 인권을 옹호촉성하는데 우리들이 손수 실천해야될 앞날의 커다란 과제인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변명의 뜻이 오늘날과 같이 변천 했다는 것을 결코 우리로서 퇴명할바 못되는 것이며 과거를 돌이켜볼때 우리들은 굳센 결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대 세계문명을 접하여 조화된 치사선택과 융합과 실천으로써 힘차게 건설로 매진하는 기백은 우리들 청년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살도 강지를 가질수 있는 일이며 의의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趙允浩

1. 그저 막연해요
2. 이전 自尊心이 커라지 않아 연필이 stop.
3. 이래봐두 이면에는 굉장한 인기연애 담이되게끔...이런 지경에 있수다레
4. 이문제는 배필과 함께 論할 문제나 말하기 두려운데요.
5. 주제넘는것 같아서 잠시 보류.

李錫朱

1. 한가지 기술을 갖어 보자는 뜻에서
2. 현모양처가 되려하오
3. 글씨 연애같은 연애들 못해봐서 주저할뿐이요
4. 眞實한 人間을 만들어 하오
5. 百科詳典을 좋아하오



# 自我覺醒을 促求함

金榮卿

밤은 먹을 가라 부른 듯 森羅萬象은 고요히 잠들고 백죽이 슬피 우는 어느 봄날 저녁 피로한 다리를 이끌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國民學校 三學年에 在學中인 어린 同生에게 이러한 質問을 받은 일이 있었다.

“ 오빠! 왜 우리는 文化人의 生活을 하지않수 ” 한다. 도저히 國民學校 學生으로서는 生覺할수도

없는 質問이었던 것이다. 그래 나는 곧 反問하여 말하기를 “ 너는 文化人이라는 소리를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으며 또 너는 文化人의 生活이라는 것을 어떻게 生覺하느냐? ” 고 말하였더니 同生은 조금도 꺼리낌없이 回答하기를 “ 오빠! 저전녀 영화네 말이야요. 그애네 집에는 하루종일 電氣를 켜놓고 音樂소리가 항상 끊이지를 않고 또 들은 언젠

설문

甲 世 奉

1. 速記士가 되기爲하여
2. 모트겠다.
3. 敵音
4. 노래를 잘부를줄 아는 사람
5. 敎學冊이였었는데 지금은---

李 金 定

1. 好奇心과 必要性을 느끼기 때문에
2. 漢江 人道橋에 이력서 提出
3. 사절 때는 안타깝고 3키로보나 심접고 차버릴꺼나 設々하고 차고나나 또 그립드라
4. 티가있는 人間으로
5. 金榮卿詩集

나 차로 실어다 먹으며 外出을 할 때에는 좋은 自動車를 타고 나가곤 하는데 이것이 文化人의 生活이라고 하던데요,, 하고 回答를 한다. 참 놀라운 回答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도 文化人의 生活을 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 어린 同生에게 어떠한 方法으로 說明하여 주어야 좋을지 ამ담한 느낌을 주었음을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그리하여 나는 얼떨결에 "우리도 지금 文化人의 生活을 하고 있단다. 네가 每日 學校에서 熱心히 工夫를 하고 있는것 이것이 곧 文化人의 生活이란다." 하고 말하였더니 그러면 누가 자신이 할일만 文을 다하면 文化人이라고 한다.

참 맹랑한 質問이다. 그리하여 나는 얼른 回答를 못하고 우물 우물하고 있으려니 同生은 소르르 눈을 감으며 가냘픈 微笑를 띠며 잠이 들고마는 것이었다. 참으로 多幸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三時가 지나도록 잠을 못 이루고 깊은 思索에 잠겨있다. 果然 自己에 할일만 完遂한다 하여 文化人의 生活狀態 말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또 하나는 이와같이 순진 담백한 어린이 까지도 世紀의 煩雜한 波動속에서 病들고 있음을 마음속 아득 느꼈던 것이었다. 나는 分明히 어린 同生에게 거짓말을 했던것이다. 누구나 自己의 義務만을 다 遂行한다하여 文化人이라고 할수는 없는 것이



金 慧 聖

1. 길을 가다 잠깐 들렀지요
2. 아휴 잠! 자꾸만 보지마세요.
3. 六十이 青春이라(?) 아직 青春이 못되어서.....
4.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보고 아르게 드리지요.
5. 「어기스탄」의 「懺悔錄」

柳 得 煥

1. 資本主義國家이니 돈을 벌기 爲해서도 過言은 아니죠
2. 이스코리아에 入選되어 男子들의 人氣를 独占하고 싶소.
3. 感覺하면 너무 길어지나 그만두는것이 좋은것 같소
4. 물론 말할것도없이 저같은 사람입니다
5. 별로 있음니까. 생각하면 앙드레 作 좋은문도 印象관드군요.

아닌가. 비근한 例로서 農夫들이 논밭에서 熱心히 일을 한다하여 文化人의 生活이라고 할수는 없을 것이며 國家民族을 어지럽게 하여주는 모리간 상배들이 그들의 모리행위를 遂行한다. 하여 文化人이라 할수는 없을 것이며 또 各處에서 自己의 利慾과 名譽心만을 爲하여 國家民族의 將來를 어지럽게 하여 주는 自稱 愛國者이며 자칭 인텔리인척 하는 그者들을 또한 우리는 文化人이라고 할수는 없을것이니 그럼다면 果然 文化人의 生活이란 어떠한 것일까. 寸박비재 하고 우둔한者이니 尙상 研究하고 思索한 뜻을 솔직히 略述하고자 하는 것이다.

「人間은 빵으로만 生存할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어느 老賢은 밀직히 말했음을 나는 들었다. 果然 眞理인 것이다. 그렇다면 果然 好衣好食만을 하고 高級自家用 自動車를 들고 이들은 이茶房 未日은 저 料亭으로 두루 排廻하며 표면에 싸여서도 그곳에서도 眞理를 찾고 衆을 求하고자 하는 그者를 보나도 우리에게는 오늘날 韓國의 實情을 認識하는 한사람에 실천者가 要求되어 저속한 流行歌에 맞추어 dance는 못추더라도 이民族의 아름다운 美風良俗과 또한 고 유한 古典音樂이나마 애기며 감상할줄 아는 그 態度가 文化人의 生活일것이다. 감비싼 화분은 사다 놓칠 못할 芒正 들에 낀 한 떨기의 들국화나마 table에 갖

설문

張 京 錫

1. 大韓民國의 一流速記士가 되려고 들어온것 같습니다.
2. 순결하고 결백한 大韓의 딸
3. ?
4. 클세요 그당시에 보아야 알겠습니다.
5. 하이네 詩集입니다.

鄭 宗 燦

1. 이 나라 言論의 正確을 期하기爲해.
2. 男性의 心理를 파악해서 將來의 男便감을 글들레야.
- 3.
4. 政治家
5. 카로릭스

다 놓을수 있는 아름다운 精神의 所  
有者다. 곧 文化人일것이며 또한  
文化人의 生活 態度일것이다.

우리 나라는 확실히 시들어 가고  
있으며 病들고 있음은 심히 유감  
된 노릇이라 아니할수 없다.

우려로 들어온 外來文化의 思潮  
는 내나라 經濟를 紊亂케 하여 주  
고 있으며 一部 沒知覺한 知性人들  
은 國家民族의 光明을 招來하기는  
커녕 破壞的인 行動에만 눈이 어  
둡고 特히 이民族의 主軸인 青年  
學徒 亦是 아직도 깊은 잠에서 깨  
지를 못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倫  
理道德觀은 그자키조차도 찾아볼  
수없고 遊興과 自己 혼자만의 安  
逸만을 地上最大의 樂이라 生  
覺하고 있음을 볼수 있으며 또한  
社會的인 갖인 罪惡을 演出하고있

으니 筆管 亦是 學徒의 한사람으  
로서 뼈아프 느끼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때는 分明코 國家存亡  
의 大戰에 臨하고 있으며 危急  
存亡의 때를 당하고 있는 것이  
다. 우리나라와 같이 人物을 要  
求하는 國家는 없을것이며 今日  
과같이 偉人輩出을 符望하는  
時代는 없습니다. 全人類의 至  
高 至美 至善의 精神과 行動을  
表示하여야 될 青年들이 病摩되  
고 있으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으  
라. 第一次世界大戰에 있어서  
最後의 勝負를 決定하였던 마루  
누의 大會戰은 1914年 9月  
5日 France의 마루누 강변에  
서 열리었던 것이니 그때 青年軍  
人들은 滿身에 勇氣를 내어서  
敵을 무찌르고 大勝利를 얻지않

年 運 庸

2  
만

1. 他人이 못하는 技術을 나만이 行使濫用(?) 해보겠다는 만용(?)  
에서 果敢히(?) 投身했소이다.
2. 그럴리는 없겠지지만 萬一 女子라면 팔없는 의장 걸치지 않고 먼저  
나 鄉土美스러운 韓服을 휘감으리
3. 未表進行形 但 나혼자만이 애애했던 그리운 愛人이 千로別離 내고  
향에서 在學中이니 어찌 야기자기한 戀愛談이 있으랴오.
4. 나보다 知識을 더 받아서 나보다 知性이 具備된 사람만 된다면야
5. 國內---- 빙어리빙가슴(隨筆集), 外國---- 復活



왔는가. 우리 靑年들에게도 이 제 할바 義務가 泰山같은은 재 음할 必要조차 없을것이니 靑年 學生여 눈을 떠 事物을 直觀함 시다. 善과 惡을 區別할수 있는 良心에 눈을 떠 이民族을 救援 하고 괴로 물든 山과 들에 正義 에 깃발을 높이 높이 들어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自己一身의 利害를 超越하여 全力을 기우릴때는 分明코 온 것 이다. 國家를 爲해서 民族을 爲해서 풀리는 땅보다 偉大하 고 또한 尊貴한것은 없습니다. 배움에 굶주리고 새로운 歷史에 創造者인 우리靑年들은 過去에 虛望된 生活觀과 宇宙觀을 打破 하고 좀더 前進할수 있는 民族 의 燈불이되고 生命섬이 되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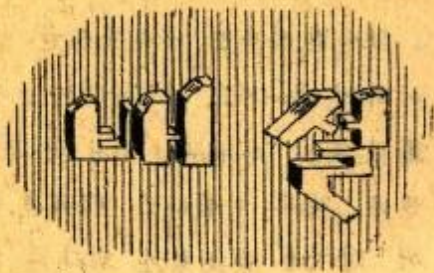
할것이다.

다시말하자면 우리民族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나갈수있는 三千萬民族의 지개꾼이 되어 꽃 되고 열매 맺어 아름다운 結實을 맺 어 時代에 開拓者가 되라는 것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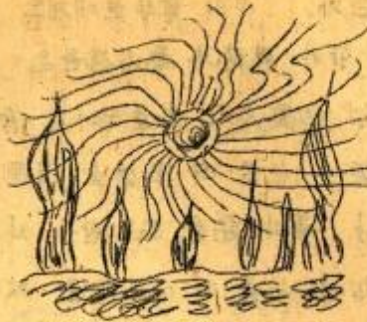
河 大 煥



1. 速記士가 되려고(?)
2. 꿈에도 생각해보 일 없소.
3. 뭐 주로 짝사랑이었으니까요.....
4. 아직 숫총각인데 무슨 말씀을.....
5.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J. K. C.



그 뭐가 인생은 아름답다느니 하는것이 있다. 인생을 '잔등안'이라云々한다면 우선 먹어야 산다. 먹을려면 허위를 조작해야 하며 허위를 조작하려니 너무도 허덕여야 된다. 그래서 先人은 "손음을 아끼라"고 한것 같기도하다. 또한 먹고나면 마즈막으로 배설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배설하지 않고 살수 있다면 한번을 배불리 먹으면

그대로 千萬을 누릴수 있지 않는가. 아무리 먹어도 먹고 또 먹고 해야 되지 않는가?

배설이 좋은 때는 너무 많으니 略記하기로하고 배설이 나쁜때를 열거해보자. 물론 좋고 나쁜것은 相通이었다.

內室近處에있는아니 內室을 거처야 변소를 갈수있는 벼를 찾았을때 便을 참아야 되는수가 여러 번있다. 또 끼니때를 배놓으면 만나보기가 힘든 벼를 찾아 가면

설문

韓弘仁

1. 經濟的인 理由이지요.
2. 그건 영 모르겠음나더
3. 꿈에도 생각않던 말이니까?
- 4.
- 5.

曹萬允

1. 萬若을 準備하는 職業代
2. 생각해 본일이 없고 .....
3. 적당히 했고
4. 環境에 따라서
5. 詩集 (自然編)

마음에 맞는 끼니를 身勢져야한 다\*는것이 바로 그 배설기관 대  
 다. 이것도 배설덕택이다. 문에 허덕여야 되는 人生이 아  
 그렇기 때문에 점차 찾아가기가 름답다고 하는 것이리니 그렇  
 거북해지고 또 먹는것이 없으 게 알고 살아가는 것도 멋진  
 면 흥을 돋구기가 힘들니 이덕 것이라고 해둘수 밖에 없다.  
 시 배설덕택이다. 이쯤 해두고  
 先人の 말대로 \*人生은 아름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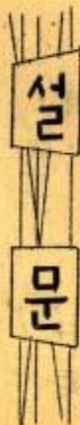
# 日記抄

(狂人の 日記에서) H. S. M.

X月 X日

人間이면서 人間을 모른다.  
 웃음의 武裝. 화사한 계집의 웃음!  
 完全한 나의 敗北다. 흥분은 여우같은 웃음에게 진다.  
 아니 사내의 노여움이 계집의 웃음에게 졌다.  
 계집의 웃음속에 숨겨져 있는 秘密을 내 어이 알수 있으리오.....

## 全命植



1. 우선 살아야겠으니 就職을 求하기 爲담
2. 아름다운 사랑을 놓겠다.
3. 中學를 大邱에서 마치고 路費란돈 없이 積막한 서울로  
 발을 옮겼을 때 당시 三月間의 乞食과 三年間의 生活苦
4. 世界의 偉人 사랑의 人間
5. 聖書

그러나 .....  
아마도 잊지 못할것 첫사랑인가 보다.  
무엇이..... 무엇이 나를 불태워 버렸는지 모르겠다.

×月 ×日

저녁때 YO네를 갔었다. 스처가 버리고 만줄로만  
알았던 악몽(惡夢)이 다시 「크로즈.요」 된다.  
YO!

苦惱. 煩惱. 따위는 잊은지 오래라는 듯 그의 얼굴  
엔 언제나 平和로운 微笑가 담백 담겨져 있다. 千古의  
秘密을 간직한듯한 그 검은 눈이 나에게 사랑을 呼訴하  
는것 같기도 하다.

이것이 妄想일까?

모르겠다. 어쨌든 오늘 삶의 보람을 느꼈다. 오랫동안  
喜悅을 맛볼수 있었으니까.....

×月 ×日

—— 前 略 ——

우물대 보려는 人間의 本能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또

朴 奉 植

1. 一人一校의 時代要請에 呼應한다면 「動機」  
가 될런지.

그러나 우선 살기爲해서죠. 「무엇보다 먼저 살아라.  
그후에 哲學하라」.

2. 내가 萬一 女子라면 子女들의 養育에 精力을 다  
하고 父母에 孝하고 家長께 더 잘하는 賢母良妻



한 우물, 빈민, 고뇌에서 발허둥 치는것이 弱點인지도  
모른다. 丁酉年은 닳아왔다. 기쁨의 人間群과 함께 기쁜  
感情을 리갈만치는 용케키며 또한 두려움을 不可抗力的으로甘  
受하는 激感의 認識이 엄습한다.

X月 X日

허출한 생을 二十年間 끌고 온 나의 過去가 새삼스러이 이상스러워진다.  
無節調한 渴望, 希求는 갈데없는 無知한 妄想, 夢想을 마음껏 그  
리면서 되리에 추구해도 간직한다.  
그리고는 季節을 따라 日光도 넣어주고 때맞추어 물도 주고 양분  
복돋아 가꾸어 주기까지 한다.

—— 中 略 ——

이것이 나의 抗辯인지도 모른다.  
어림없는 수작이라는 正當한 客觀的인 判斷을 無視치 못하면  
서 主觀的인 矛盾된 의지가 自尊心인양 存在함인지도 또한 모  
르는 일이다.  
虛構된 空想 妄想을 思索이라 自慰해보면서 머리맡에 담배만  
수없이 태워버리다가 軀身도 모르게 꿈길에 이끌리는.....  
이런것 全部가 나의 생의 全部는 아니겠지..... 몸부림치며 反抗

의 뜻을 實現해보겠오.....

思 堂申氏도 人間이며 女子이기게!

3. 戀愛談이라면 「로맨틱」한 것이면서도 어느때면 이다.  
금식 煙標을 하게 되는 것인가 봐요? 나의 단 한번의 戀  
愛란 結局 相對方의 行方이 三年前에 不明하게 되었  
으니 말하기조차 싫습니다.

4. 子息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萬一 多幸히 있다면 運轉

2  
10

해본다.

×月 ×日

「플스토이」의 人生 說本은 聖書 다음 가는 聖典이 아닐 수 없다.

× ×

자꾸 초조해져 간다. 努力이 虛事가 된다.

남을 비방하고 있는 自身이 너무도 쉽게 發見되지 않는가?

「恒常 끊임 없이 自己의 完成을 爲하여 努力하는 사람은 聖人이다。」라 했다.

×月 ×日

도시 알수없는 것이 人間의 心理이고 나의 心思다. 哀愁에 젖은 달밤을 즐겨 맞고 합박눈을 期待하는 센치한 氣分을 가지고 悲戀을 渴求하는 飛酒를 例事로 여기는 '나' 이면서 宗教에 관한 書籍을 討하게 되면 어찌 할수 없는 煩惱의 猨을 當하게 된다.

「가령 사람들이 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理解하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善을 自己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라 한 孔子의 말씀과 같이 나의 마음속에도 善이 있다고 믿게 될

農村의 農夫를 시켜야 합니다.

5. 異邦人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때 기쁨과 함께 자기가 생긴다.

X月 X日

착한 생활은 다만 긴장한 注意와 끊임없는 努力에 依해서  
만 얻을수 있다」고 聖書에서 가르치고 있다. 生에 대한 회  
의심은 끝지 말라고 하였는데 자꾸 의심이 생긴다.

X月 X日

지극 지극한 眞實의 眞實」을 맛보려 하기前에 「苦惱와 歡樂  
의 現實을 清算하여야 할것이다.

x x

眞과 眞은 妥當하다고 認定해보자. 貧과 富, 喜와 怒  
黑과 白 (暗黒과 太陽): 知와 無知..... 이것들의 眞然  
한 存在 認定 否認, 反抗意識, 贊成同調, 嘲笑, 冷笑, 阿附  
自虐..... 詭辯 有無, 無知의 世界, 狂憤.....  
되돌아 善에의 길을 指向한다.

眞, 善, 美란 이러한 것이며 人生은 보다더 값있게 營爲해야  
한다고 絶叫한다. 그러나 이 절구는 哲學와 理念 信念에서가  
아니고, 反抗意識, 神에 대한 회의심으로서 起因하고 그로 組  
成된다



黃기성

1. 글씨 나는 잘
2. 나의 꽃을 그대 나비뜨에게 바치겠어요
3. 그건 왜 몰소. 정 알고싶으면 조용히 만남시다. (但 女子에 限함)
4. 後悔하는 人間이 되지 말아다오
5. 世界 偉人傳

懷疑, 反抗, 同調, 贊成, 歸念, 屈伏

眞善美 打亂으로 反抗 無節調한 憤怒와 그의 暴發과 함께 狂憤.

번복이다.

人間은 造物主와 함께 살지못한다.

世上은 멸망한다. 「하이네」가 읊은 「뒤죽박죽인世上」이 實現된다.

x . x

간다. 砂漠을 걷는다. 나 하나뿐이다. 있다면 宏大無  
辺한 모래의 世界에 덕덤 덕덤있는 砂丘. 그리고 밤  
마다 찾아드는 哀愁에 젖은 둥근 달 —— 이것은 虛  
徨되히 不完全하게 空中에 걸려있다. 그리고 또하나 외  
로운 나의 그림자. 끝이 있다는 生覺은 아예 없기로 하  
고 深淵에 靑속히 처박아 버렸다. 한발 한발 걸음이 進  
行되는 것이 現在고 過去는 砂場위에 밟어놓은 無節調하게  
고려져있는 발자욱 —— 발자욱이 있다고 느껴질때 그것이  
過去의 現在일것이고 未來는 몇발자욱 앞에 展開되어 있  
는 모래언덕과 희오리 바람이 全部가 된다.

現在, 過去, 未來는 現在로부터 刹那的인 時間과 不可分의

李 昌 一

2

마

1. 돈을 버는 手段을 삼고저.
2. Miss Korea 選拔大會에나 나가 보겠소.
3. 하면 靑이질때나 그만 들시다.
4. 꼭 나같은 사람
5. 어떻게하면 致富할수 있는가 라는 冊이 있다면 들라도.....



間隔을 가진 空間을 지나고 存在한다

x x

나.는 現在에 있는것이 아니다.  
 荊那的인 過去와 未來에도 있는것이라고, 二律背反的인  
 自己矛盾을 哲理처럼 내세운다.  
 廣大無邊한 砂漠과 나와 그림자  
 이것이 全部다.  
 나의 存在 同時에 娑婆世界上에 살고있는 온인간의 存在 것이  
 다.

x x

Love is vanity, Selfish in its  
 Beginning as its end.

—Byron—



# 會員 會報

金 允 東 (會長)

언제나 深刻한 長情으로 깊은 思慮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君  
 은 筆者의 豫測과도 같이 哲學專攻이라고.....  
 每事에 남다른 誠實性과 치밀함을 보여준은 비단 그가 會長이래서  
 가 아니라 一箇의 坎투를 벗은 (?) 어진 百姓(學生)으로서도 다  
 큼이 없으리라고.....

~ 46 ~

君은 速記學校 會長에다가 沈熙至上主義 黨首로서 감투運動도 하고 싶다는 學友들이 統出하여 어깨가 무거워 질듯. 哲學徒는 감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信條를 하느님 믿듯 信奉하고 싶다는 君은 過去 너무나도 많은 로맨스에 어느것부터 먼저 얘기해야 좋을지 順序를 잡지 못하겠다고.....

### 朴 奉 植

警備隊 守衛마냥 (?) 누구보다 먼저 教室에 나와 앉아있는 朴君은 아마 授業이 끝나면 速記學校 專用 테리폼라를 타고 오는 잡다고 學友들間에 숙덕 공론.....

教室에 들어서면 언제나 두툼한 速記錄을 들고 人氣 卞 퍼-센트인 鄭先生 제스튜어를 活用하다가면서 골갈 演說體로 말하는 (?) 熱辯은 警備隊가 소란하다고..... 副會長으로서의 朴君은 情熱派 第一人者라고나 해둘까.

그런데 딱하나 질식인것은 速記錄朗誦時에 學友들의 健康도 民主主義的으로 참작하여 너무 길게 부르지 말라고 輿論이 비등.....

### 崔 姬 貞

紅六點中에서도 가장 알려졌있는 崔孃은 男學生도 못쓰는 크 다란 모자(?)를 썼어가 아니다. 財政部長이란 本分을 어찌지 못해 女子大丈夫다운 가냘픈 音聲으로 언제나 會費督促에 速記練習하나 못할 地境이라고 하도 애먹이는 男學生들에게 個的으로 會費를 徵收하겠다는 暴彈宣言을 한뒤 會費 納付成績 卞 퍼-센트로 좋아졌다고. 崔孃은 無慮 十餘日을 缺席했어도 一流速記士 못지않게 서간다는 定評이 있어 아마 女流速記士의 最高權威者가 될 模樣..... 부디 速記 때문에 工夫에 支障이 있을것 같은 것은 崔孃의 杞憂.....

鄭寅浩

지난번 光陵遠征以來 速記學校에서 鄭君을 모를 사람이 있을 만큼 그 갖인 技術을 總發揮한 鄭君은 이제 일천이 넘는 模樣..... 언제나 痛快한 웃음과 유모어를 子息보다 더 좋아하는君은 將來 꼭 韓國의 「에디슨」이 되겠다고 豪言壯談 世界의 大科學者 發明家까지도 速記士 免許證(?)을 無條件할 科學者가 되겠다니 참 딱한 노릇? 아무튼 되 봐야 알겠지만 發明家가 되기 前에 國會速記士가 되리만큼 그는 速記에 가장 迅速하고 正確하고 超特級 스티-트라고..... 지난번 速記競技大會에 逸波式代表로 健康上의 理由로 그냥 두었다나? .....

朴在甲

잘떡한 키에 암전한 朴君은 꼭 보통학교 校長같은 印象을 준다. 特色있는 慶尙道사투리를 꺼리낌없이 내 걸기는 朴君은 現在 裸體國 系科專攻이라나.

지난번 總會에서 음악 學報 編輯委員으로 대단한 감투를(?) 차지한 朴君은 學報 "걸" 그리기에 五五 동안을 밤을 새웠다나..... 아무쪼록 韓國의 "모나리자"가 되어달라고 付託드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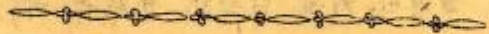
張慶子

어떻게 보면 哀愁서린 少女처럼 귀엽게만 보이는 張嬢은 가장 年少하게 보이니 事實은 그렇지도 않는 模樣..... 이제 피어나는 꽃송이 마냥 特色있는 웃음의 人氣는 대단하다고..... 누구보다 人事性이 빠르고 貞淑하다고 議政壇上(?)에서 까지 所聞이 났드라나. 아마 賢母良妻는 맡아두고 될 모양 그런데 特別 筆者는 張嬢의 學報에 投稿한 作品을 貯하고 女流速記士보담은 女流詩人이 되기를 勸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金 慧 聖

幹部中에서도 가장 活躍이 大端하고 情熱的인 사람이 바로 金君이다. 學報를 發刊키 爲래 原稿提出을 두손 모두어 간청하든 것이나 會費發刊資金(?)이 모자라 手발을 동동 칼르는 것을 보면 금방 잔돈이라도 있으면 주고싶은 마음이다.

會長이 沈黙派의 黨首로서 모자라는 점이 없다면 智育部長은 多辨派 最高代表委員長이 될만큼..... 그는 速記學校 이나 出세이기도 하다. 金君은 學友 한사람 한사람의 이름과 家庭環境에 까지 알 정도로 그의 交遊는 誠實하고..... 先生님들 宅도 無處 몇차례나 苦惱는 憂患을 斷行하여 先生님들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고..... 하나 못이루워 癡癡症에 걸린 金君은 女學生들의 訪問을 하고픈데 函面을 양그려 주겠다고 不平을 만하고.....



書 簡 文

先生님  
前에



李 英 實

先生님! 초여름 검푸르는 草木들의 질은 春氣에 가슴이 미어질 것만 같은 안타까움은 이땅의 암담한 現實을 바라보며 自身을 잃어 보고도 싶은 마음입니다.

숨막히게 찾아드는 生의 공허가 있어 미칠 듯이 부르짖는 生

의 고통이 갓길래 —— 초여름의 싱싱한 들뜬이 삶은 것이 아납니다. 오로지 이民族의 生의 態度가 삶은 것이오며 創造의 地지가 없었던 우둔한 少女의 存在가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무한한 여름의 眞理가 질서없이 少女를 呑食하는 지금 그래도 虛空의 끈 外的인 人間이 되지 않기爲하여 오직 未來가 있는 이나라의 眞實된 한 少女가 되고 싶기에 참다운 배움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피도움 속에서 少

女는 분명히 人間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외로우니까 그리운것이 아니라 부족하니까 그리웠던 것입니다.

언젠가 少女의 부질없는 몇 마디 이야기를 들으시고 앞날의 希望이 가득찬 그리고 높은 배움에 길에있는 사람이 여러 그릇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少女를 위하여 병담히 이르시든 말씀!

先生님! 學理 그것이 생의 全部가 아니며 名譽 그것이 생의 全部가 아니지 않습니까.

眞理를 超越한 곳에 우리 人間이 디려다 볼수 있는 영천한 나라가 있을까요

지금 少女의 마음속에는 울분의 感情이 서로 衝突되어 있습니다.

이제 社會의 出發을 대기하고 있는 少女의 어설픈 마음에 情熱을 理智로서 높히며 근로

로서 情의 理想을 삼어 이 社會의 앞날을 빛낼 수 있는 강력한 意志를 갈게 해 주셔요

現實의 두려움이 안개 마냥 마음을 덮어요. 마구 울고 싶어 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제보다도 오늘이 소중하고 오늘보다도 내일이 또한 소중하며 옛는 오늘보다도 있어야 할 내일을 이룩하기에 골몰해야 되겠지요.

그러하기에 마음을 가다듬고 작은 용기를 가져보았습니다.

先生님! 두서없이 되겠다 봅니다. 그러하기에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는 가운데 이 글을 맺어야만 할것 같습니다.

내일의 안녕을 빌면서.

1920年 六月 어느날

李 英 實.





# R에게 주는 것

丁 奎 哲

나는 그저 당신을 R이라 부르는 것이입니다. 당신의 성이 좋인 때문에 말입니다. *forget me not* 이라고 愛稱을 부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막연히 나는 R... 하고는..... 또 한번 나의 身分, 職務을 잊어버리고 지난날들의 追憶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해와 달과 들과 봄입니다. 나는 봄의 들에서 해와 달을 思念하는 것입니다. 지난날들의 未安한 일 이제 용서를 求하려 합니다. 아마도 나는 틀러버린 夢유환자의 思念의 蓄積으로 消日하는 運命에서 잠시나마 당신에게 힘든 追憶을 도리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두번 쓰거나 많서

리며 쓰는것은 아닙니다. 내가 人間의 태두리를 벗어나서 行動할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나의 單 한번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오후 해질 무렵 당신과 걸으면서 이길이 끝나지 않았으면하고 막연히 자꾸만 걸었지요. 효자동에서 市庁, 市庁에서 南大門 무려 한시간을..... 그리고 나서 나는 乙支路電車를 타고 당신은 원효로 電車를 타지요. .... 이것이 당신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걸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잊을수 없는 또 한가지가 있었지요. 그것은 어떤 사랑하느니 해서 길가 로타리에 서 둥그렇게 돌는 말을 伺해 — 한없이 걸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말하며 南山의 달이 아잠구나 하면서 들은 저 달을 지키자고 .....

나는 아직까지 그 영롱한 달빛을 잊지 않습니다. 그 달은 그以前 그以後에도 돌았읍니다. 그러나 그렇게 맑고 영롱한것은 영영 돌지 않았읍니다. R! 이제는 또한번 그런 機會가 있으리라고 生覺치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런 날이 한번쯤 더 있으리라고 생각하시

는지요. 나도 잊기를 願합니다. 그렇지만 感激이 식었을것만 같습니다.

우리도 再希望을 안고 보따리를 만들었읍니다. 이것은 勿論 당신과 나의 思念에서 그렇게 보따리를 쌓다는 것입니다.

기대되는 먼날 꿈의 당신을!

四=八九. 四.

丁 奎 樞



電車 自動車 소리 마져 씻은 듯이 고요하고 嚴肅한 밤물성 만이 窓가에 고요히 이슬을 감치고 흘러가는 이밤은 시름없이 서 있는 街路燈 반짝이는 곳에 밤은 건너가는가 몰나다.

窓가로 살며시 새어나오는 電燈불로 비치기가 고단 판지 환한 달빛속에 하나 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荒廢한 이民族 이땅에도 大自然은 꽃을 싣고 왔다가 달아나버린 봄의 자국만이 아련히 달빛에



어  
머  
님  
에  
게

金 佛 聖

아물거립니다. 이 얼마나 이땅  
이 쓸쓸한 變化입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 人間은 삶  
을 憧憬하고 때로는 이 永遠  
한 꿈에 살기爲해 自殺까지 너  
그럽게 해버리는 것을 新聞紙  
上을 通해 많이 보았지만 이  
쓸쓸한 丁叟의 변덕스런 괴쿠  
리에 사람은 생이 價値以上으로  
어떠한 매력을 느끼는가 봅니  
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매력속에  
서만 살수 없는것이 슬펐습니다.  
누가 좋은 옷감으로 몸치장을  
하면 저도 하고 싶은 생각이 떠  
오르는 것도 그만큼 周圍環境의  
華麗한 모습만을 꿈꾸고 왔다는  
것—— 몸부림칠만큼 버리고 싶  
혀 했지만 젊은이의 心情이란  
이렇게 오늘은 누가 무엇을 입고왔  
나 나는 그것을 입고싶다라는 不  
純한 慾望에 사로잡히는데 예전  
과 달라진 이 子息의 마음이겠지  
요.

어머님! 容恕하세요. 옛날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그들진 사람  
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추우나 더우나 다만 살아가야  
한다는 굳은 마음으로 죽엄 의  
글짜구니에도 헤매어 보았고 또한  
어느날은 봄잔디가 파랗게 방석을  
잔 잔디에 두리 누어 후련히 비  
취 주고 있는 달빛에 손짓하면서  
모르나마 神祕한 自然이 꿈속에  
서 쿠로바이 꽃잎으로 목거리  
를 만들어 즐거워 하던 때도 있었  
습니다. 또는 길거리에 터덕이는  
거리의 天使를 보면 옷이라도 벗  
어 줄수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꽃이  
가득한 저였지만 只今에와서 저는  
그리한 回想만이 가슴기슭에 살  
아있을 뿐 오히려 미우리만큼  
냉々한 現實을 바라보는 自身이  
또한 限없이 무섭습니다.

어머님! 또한번 容恕를 빕니다.  
너무나 靜肅한 밤 이고요속에 저  
省할수 있는 마음을 발견한것이  
끝없이 부끄럽고 기백 容恕를  
빌따름입니다.

그리운 어머님! 무거운 밤의 숨  
결이 들리는 이땅에도 먼데서  
찾아오는 새벽의 鐘소리는 뜻  
心靈들에 눈을 뜨게 하는가  
봅니다.



동쪽이 먼 - 하늘에 찾아 드는 계 내々 健康이 있기를 伏願하  
 曙光은 요란한 時計 소리와 오며 오늘은 이만 구리 깃음 나  
 함께 빛을 渴望하고 있는 저의 어 다.  
 두운 마음속에 살며시 깃드리나  
 봅니다. 하나님의 祝福과함

해성 올림  
 六月 XX日



孤獨함  
 Y 唄에게

金 煙 壽

그리 좋지도 않고 그리 나쁘  
 지도 않다는 이땅엔 그래도 變  
 함없이 落葉이 지는 追憶의  
 離賞的인 季節 가을이 찾아 왔  
 나 보이!

나 亦是 궁금하든次 그대 즐  
 겨 다니든 灰色茶房에 발을 움  
 켜었네.

정녕 豫則한대로 그대의 눈  
 들어린 環境의 支配를 받아야  
 만, 한다는 아니 그대가 熱々히  
 더러운 생과 싸우며 黙々히 걸  
 어가야만 한다는 .....

그리고 온갖 孤獨과 俗世의

虛無함을 그리 그대의 眞正한  
 마음의 表現인 길고 쓸쓸한  
 書信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소.  
 그러니까 그대의 두번째 온 書  
 信을 不規則한 雜音과 선를  
 로 뒤번박이된 茶房안에서 단  
 숨에 읽고났소.

그럼소!

世上이란 그리하되다  
 아마 兄은 '모닥쌈' 作品에  
 나오는 "잔주" 라는 女人을 記  
 憶하고 계실거요.

『人間의 本來의 급다란 希望  
 과 感情을 간직한 "잔주"!』

~ 54 ~

이는 一女性에게만 고치는 것  
이 아니라 아마 온 人類의 代  
表的인 人物의 名詞일겁니다.

그래도 처음 곱다란 希望을  
成 就 해야 서로 情을 나누면  
男 便의 방 당 !

오직 하나의 安 息 處 였던 아 들 의  
背 叛 ! 그리고 더구나 全 生 涯

水 滴 似 히 있 고 追 憶 으로 가 득  
찬 모 근 한 故 鄉 “레. 부블.” 의  
移 舍 畢 連 이어 而 親 의 死 亡 情 的

로 가 득 하 찬 尙 ( 父 ) 의 老 死 !

이 樣 히 “잔누” 아 나 人 類 가 希  
求 하 며 갈 망 하 는 것 은 잔 악 한  
運 命 的 농 락 으로 하 나 도 이 루 어  
지 지 않 고 이 模 樣 이 구 려 !

그래도 人 間 本 來 的 的 순수한  
感 情 即 神 을 拒 否 不 可 的 宗  
教 的 인 良 心 과 그 아 침 의 밝 은  
햇 빛 과 밤 의 無 數 한 별 과 달  
때 문 에 .....

그 아름다운 自然 을 보 고 서  
人 間 으 로 서 그 어 찌 希 望 과  
追 憶 을 더 들 지 않 으 리 요 !

그 렴 으 로 해 서 “잔누” 는 그  
래 도 그 無 數 한 별 과 茂 盛 한  
채 소 발 과 太 陽 이 밝 게 大 地 를

비 치 는 위 를 “로자리. (잔누의  
食 母) 의 “이 卼 卼 이 란 그 리 좋  
지 도 많 고 그 리 나 썩 지 도 많 다

고 하 는 말 을 들 으 면 서 背 叛 당  
한 子 息 의 딸 을 만 고 그 래 도 한  
가 닷 의 希 望 만 이 라 도 지 님 체

아 들 을 기 다 리 고 왔 지 않 소 !  
兄 이 여 !

運 命 的 依 亂 이 란 때 로 는 이 樣  
게 人 間 을 甚 하 게 農 락 하 는 구  
려 !

저 “마농.레스코” 에 나 오 는

“슈바리에” 가 “셈.라자-르.  
감 방 에 서 神 을 저 주 한 文 句 가  
지 금 락 내 키 를 뛰 다 리 고 가 는  
군 !

하나님!

당신은 당신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사람에게  
이 무슨 참혹한 대접을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희들을  
저희들이 不幸 에 알 맞 는  
몸 으 로 마 련 해 주 지 않 았  
습 니 까 ?

우리들은 재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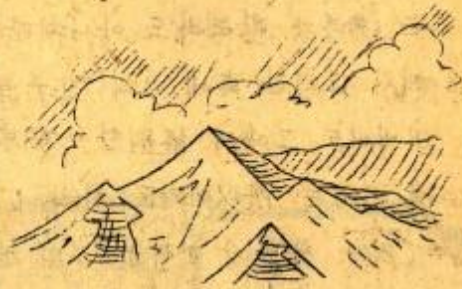
좋은 취미나  
 윤곽한 정조를 갖고  
 태여 났읍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열마나  
 수치스런 모욕에  
 그것을 더럽히지않으면  
 안되느나 말이요!』

오호!

그렇게 분한 孤独과 그리고  
 삶과 싸우는 그대에게 무슨 形  
 容詞를 使用해서, 慰安하리요.  
 그저 昔痛과 孤独을 衆으로 삼  
 고 생을 芻蕘하여 가는 藝術의  
 境地속에서 사는 又學生가 되  
 시라고 하고 싶소.  
 그런 生活環境中에서 그대 豊  
 富한 追憶과 不幸한 現實을 조  
 용한 心境으로 深思熟考하시여  
 시 한번 거짓없는 마음의 表現을  
 붓으로 흰종이에 옮겨보시요.  
 그러면 그것이야 말로 人生은  
 가고 없어도 길이 길이 그대의  
 영혼과 같이 남을것이리라.  
 생에 허덕이며 분한 怨氣과  
 刺戟한 그대에게 이機會를 쫓

으로 처하고 참되게 利用하시기  
 를 빌어 頭序없는 글꼴을 이만  
 올립니다.

4290. 6. 16. 밤



## — 白雲台 登程 —

河 大 煥

S君이 뜻밖에 登山行裝을  
 차려가지고 와서 지금 即時로  
 行裝을 꾸려 登山을 가자고  
 한다.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흥두깨도 분수가 있는데에다가  
 더군다나 當日로서 끝나는 것이아  
 니고 하루쯤은 캠핑을 하는것  
 이라고 한다.

나로서는 너무 뜻밖의 일인  
 자라 準備가 있을리 萬無하다.  
 따라서 그의 請을 거절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S君은 이러  
 한 나의 事情은 아랑곳 하지도  
 않고 어서 빨리 行裝을 차리라

~56~

는 것이다. 원체 性味가 좋은 그는 行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이와같이 意外의 일을 끝 잘 마련한다. 그러해서 때로는 失手が 많은바도 아니지만 역시 그러한 뜻에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그에게 格別한 好感을 가지는 所以이기도 한다.

거의 強要에 가까운 그의 권고로서 어쩔수 없이 寢具 洗面 道具 洗濯 屈을 주섬 주섬 아무렇게나 꾸려가지고는 그를 따라나섰다. 光化門의 어느집에서 S君과는 約束이 되어 있었던 K君을 만나서 目的地를 向해서 떠났다.

돈암洞에서 下車하여 그곳 公設市場에서 若干의 副食을 산뒤 徒步로서 貞陵을 向해서 올라 갈때에는 주위는 어느새 어둠에 쌓이기 始作하였다. 걸어 올라가기 約 20分 가량 되니 바로 머리위에서 무척고도 길다란 鐘소리가 어둠을 타고 퍼져 나온다. 여기 慶國寺의 저녁 鐘소리인 것이다.

予定은 이近處에서 저녁을

지어 먹고는 밤으로 그냥 山에 올라갈 생각이었으나 予定을 바꾸어 白雲臺에 올라가는 山初頭의 개울가에서 tent을 치고 다소 行裝을 수습하는 동안 어느새 저녁 食事가 마련되었다.

좁은 天幕속에 촛불을 켜놓고 자리를 마련하고 찌개와 밥냄비를 들여다 놓고보니 웃음보가 더질 지경이다. 어찌 생각하면 썩스러운 일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여기에 또한 이번 登山에서 빼놓을수 없는 하나의 즐거움이 있을런지 모르겠다.

K君이 애를 쓰고 마련한 저녁이라는 것이 찌개는 짜기가 소금국이요, 밥은 되다가 말은 이틀이면 죽도 밥도 아닌 그러한 것이었다. 그러나 밥맛은 비길데없이 좋았다. 품시시장하던 터이라 서로 사양함도 없이 마구 퍼먹는 것이다.

S君은 밥을 한입 물은채 으지직, 들을 씹으며 상을 찌푸린다. 그러나 오늘저녁 취사를

담담한 K君은 泰然하게 태풍  
엄마호가 불어도 安坐할것이라 말  
한다. 이라고 보니 들을 심으  
며 웃지 않을수가 없다.

和氣 애애한 가운데 저녁을 마  
치고 나니 半月은 이미 중턱에 떠  
올라 있고 밤하늘을 장식하는  
無數의 별들은 가만히 소리 거  
리고 있다.

더욱이나 山속의 高요함은 우  
리들로 하여금 더 먼 꿈속으로 이  
끄는듯 한것 낭망적인 詩感에  
잠기게 하여준다.

우리들은 가슴 가득히 박차  
오르는 衝動을 柳制할수 없어  
노래를 부르기 始作했다. 술한  
독을 입에 대지않은 우리들이 었  
건만 그순간 우리들은 흡사 술  
에 취한 사람 같았다. 아마도  
취했다면 이 어두움속에 展開  
된 自然속에 마냥 도취한 것이  
되라 한참후 천막속으로 돌아  
와 자리를 펴고 누웠으나 잠은  
쉽사리 오지않아 다시 노래와  
이야기로 時間가는줄 모른다.  
이제는 조각달도 우리들의 視  
野에서 完全히 자취를 감추었

고. 皎皎한 달빛만이 무성한 나  
무순 사이 사이로 들러들 즈음 결  
에 누운 K君은 코를 드르렁 거  
린다. 그러나 K君과 나는 이야  
기를 계속하여 K君의 지난날  
그렇게도 熱々했던 로-맨스의  
始末을 들었다. 나는 그의 이야  
기속에서 그의 깨끗하고 믿음직한  
人格과 그 男兒다움을 마음속으  
로 칭찬을 했다.

그리고 K君과 나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울수 있는  
人生에게 있어서도 特別 青春의  
아름다움을 讚揚했다.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청하  
려하나 감자의 개울물 소리가  
밤공기를 깨들며 소란스럽게 들  
린다.

「졸졸 흐르러 쉼 .....」  
이리뒤적 저리뒤적 하다가 관밤  
이 깎아서야 잠이 들었다.

다음날——

오늘아침 취사는 내가 달기  
로 했기에 새벽 일찍암치 일  
어나 흐르는 물에 쌀을 씻고  
는 본데로 흥을내어 쌀의 들을  
플라 본다. 된장에 이것 저것

통조림을 뒤섞어 놓고 찌개도 고  
렸다. 이렇게 해서 아침 食事が  
다 마련이 된 뒤에야 두 친구  
어물 어물 일어난다.

산에 잠시 올라가 신선한 아침  
공기를 삼호흡을 돌아와 아침  
食事を 시작했다. 찌개만은  
결실 珍味로운 것(?)이었지만  
밤에 틀어 쉬어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食事を 마치고는  
다시 行裝을 꾸려 등 에 지고 바  
야흐로 白雲臺를 向해 산을 올라  
간다.

이미 시원중순이라 벌써 산에  
는 단풍이 들기 始作하였다. 울  
긋불긋 그림같이 아름다운 風景  
이다. 숨을 헐떡 뿔떡 거리고 진  
땀을 흘려 산을 올라가기 한시  
간쯤 지나자 一城門에 이르니  
여기가 輔國門이다.

여기서 잠시 쉬고서 다시 城  
을 뒤편에 끼고 계속 걸어서 大同  
門을 지나고 露積峰에 이른다.  
여기서 目的地 白雲臺가 저천  
녀에 바라다 보이고 이제 부러  
는 이 白雲臺 登山 코-스에서  
가장 難코-스에서 가장 難

코-스로 접어든다. 바위틈으로  
기어 오르는가 하면 다음은 나무  
가지에 매어달려 아래로 떨어 나  
려야 한다.

바로 발 밑은 몇十尺인지 헤  
아릴 수 없는 낭떠러지다. 지  
금 우리는 白雲臺앞에 우뚝 솟  
아 있는 萬鏡臺를 넘는 것이다.  
너무 높은 탓인지 大小의 나무  
들이 모두 아래쪽을 向해 자라  
고 있다.

관참을 오르고 내리고 쉬고  
매달리고 하여 다달은 곳이  
衛門이다. 여기서 서울 周邊  
을 에워싸고 있는 옛 城壁이  
끝이 나는 것이다. 오래 동안  
風雨에 시달려 城壁은 와해되  
었고 門樓 그것도 쌓아올린 돌  
들이 많이 어긋나고 깨져 금시  
앞으로 문어질것 같다.

바로 눈에 보이는 石峰이 서클  
崗邊서는 가장 높은 봉우리의  
하나이고 北漢山中에서도 最  
高峰인 白雲臺이다. 우리는  
봉우리 아래 어떤 퇴폐된 절터  
에서 點心을 지어 먹고는 다시  
숨에 오르기로 했다. 위부 嶺

一  
四  
內

아지른듯한 돌봉우리라 높이나  
 나무가 없으므로 올라가는 도  
 중은 쇠사슬 증계를 만들어 놓  
 았다. 빙빙 돌아오르기를 한十  
 분쯤 하니 海拔 873 呎인 高峰  
 白雲臺 꼭대기에 이른다.  
 마침 동쪽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한대가 바로 우리들 발 아래로  
 날아 간다.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 보니 늘 地圖에서만 보  
 아오던 山과 平野의 區別이 어  
 쩌면 그렇게도 뚜렷한지 모르  
 겠다.

지금 내가 디디고 서있는 발  
 밑 돌바닥에는 己未獨立宣言記  
 事가 적혀있고 그 어느 바위에  
 서나 보아오는 터이지만 無  
 數한 이름과 날자들이 색여져  
 있다. 이러한 산봉우리 바위  
 들에 자신의 이름 몇자를 색이  
 여 놓는 것이 都是 무슨 必要나  
 意義가 있으랴마는 아마도 습  
 己가 지나간 흔적을 꼭 남기  
 고 싶어하는 것이 또 어쩔수  
 없는 人間의 타고난 性癖이기  
 도 하다.

하기야 이같은 人間의 타고난  
 性癖으로 말미암아 千年이 넘는  
 훌륭한 藝術의 遺品들은 그들  
 先祖가 이미 땅속의 한줌 흙으  
 로 化한지 오래이건만 오늘에도  
 남아서 오래도록 찬란히 빛나  
 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저 멀리 南쪽으로 내가 사는 서  
 울이 손바닥만 하게 가로 놓였  
 고 그뒤로 둘러친 漢江水가  
 한층 더 뚜렷이 境界를 지어준  
 다. 이쪽 東南쪽으로 牛耳洞  
 이 보이고 조금 떨어진 옆으로  
 는 貞陵이 보인다.

— 臺에서 잠시 몸을 쉬고는 다  
 시 臺를 내려와 一路 歸路에  
 올랐다. 萬鏡臺를 넘는 골  
 짜기가 상당히 험하고 우뚝우  
 뚝 솟은 바위들과 大小의 떡  
 갈 나무로 해서 주위를 分別하  
 기 힘들어 처음 얼마동안은 길  
 을 찾느라고 머뭇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露積峰을 다시  
 넘고는 半은 땀다싶이 하며  
 大同門近處에 이르나 太陽은  
 바로 日沒直前이라 주위를  
 진분홍色으로 물들이고 붉게

~60~

계 타는듯한 太陽은 참으로 환  
홀한 光景이다. 輔圃에 이르  
해도 이제는 完全히 西山을  
넘어가고 四方은 이미 어두웁  
이 짙아들었으며 멀리 暮煙에  
잠겨 보일듯 말듯한 서울이 안  
라 감게 내려다 보인다. 이제여  
기서부터는 코-스를 바꾸어 세검  
쪽으로 내려 가기로 했다. 때

로는 45°程度로 기울은 비탈  
길을 달빛에 의지하여 헤메이  
기 무려 4시간 드디어 세검정을  
지나 孝子洞에 이르니 새삼스  
럽게 꿈속에서 現狀로 돌아온  
氣分이다.

— 鄭源道先生 家庭訪問記 —



貯蓄에 빛나는  
家庭의 香氣

— K 記 春 —

모처럼 밝게 개인 日曜日의 하  
늘에는 都市人의 마음을 담고 떠  
도는 1름조각들과 함께 우리 一  
行은 鍾路三街 轉 모퉁이에 자  
리잡고 있는 先生님宅의 大門을  
두드렸다.

알맞는 키에 仁情이 넘쳐 흐르  
는 師母님의 얼굴에는 끊임없  
는 微笑가 실린채 우리를 반가  
히 맞아주었다. 師母님은 정말 마  
음 좋은 잔여누리로 先生님

에게 너무나 알맞는 분같은 印象  
이 뚜렷하게 나를 엄습하였다.

先生님께서 손에 뽕을 칠하  
시고 後園에서 일을 하시다가  
우리들의 訪問을 마음껏 歡迎  
하여 주시었다. 아마 뽕을 무척  
사랑하시는 模樣이다.

나는 房안에 들어서면서 新  
婚夫婦의 房처럼 단란하게 잘  
정돈된 방을 둘러보았다.

라디오, 日刊新聞, 溫度計等



各々 놓여질 位置에 잘 整頓 되어있으며 門에 길게내린 발 은 마치 春香이와 李道令에 灼熱된 사랑의 꽃을 피운 房갈은 錯覺을 일으킨것은 筆者뿐만 이 아니었다. 先生님은 熱々한 사랑으로서 두분께서 結婚하시 어 十八年이란 卅月이 흘러간 오늘에도 아직 사랑의 香氣가 감돌고 있다.

발사이로 내다보이는 庭園 북판에 아담하게 꾸며놓은 花壇속에는 菴舍화, 활련, 國화, 백일홍, 석류나무 等 이름 모를 花草들이 즐비하게 푸르러가 고 있었다. 아마 이것이 先生님의 家庭의 香氣 그대로 일른 지도 모른다.

잠시후 우리들을 爲해 師母님께서 손수 점심을 지어 오셨다. 先生님의 先祖 때부터 내려온다 는 珍貴한 상위에 그득하게 차려져 있었고 持히 여름철의 別味인 삼이며 또한 고치장의 맛이야 말로 여러 학우들과 다같이 맛을 보지못한것을 유감으로 여길 程度로 모두가 정말 맛있는

요리였다.

나는 明確히 말해 두거니와 우리班 女學生들은 師母님께 料理講座듣기를 勸하고 싶다. 萬一 나도 女子라면 速記보다는 料理講座를 듣고 싶은 心情이다.

先生님과 우리는 장기와 바독속에 묻혀 時間가는줄 몰랐다. 한가지 신기한것은 장기할이 우리나라 各道別로 만들어져있으며 二十餘年前 장기쪽을 오늘 날까지 한조각의 분실도 없이 그대로 保存해오셨다는 點, 뿐만이 아니라 百餘年이된 "호두, 기타 옛날의 遺物이 많이 保管되어 있는 點을 보고 나는 先生님의 貯蓄生活에 對해서 말로서 形容할 수없는 무엇인가 심오한 충격을 받았다.

梨大體育科라고 別名을 가진 先生님의 여섯살먹이가 절값으로 白환을 얻어가지고 貯金통에 넣는것을 보고 先生님宅은 이와같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貯蓄을 實踐하는 無言愛國의

標本的 家庭이라고나 할까 그렇  
지 않으면 貯蓄第一主義의 最  
先鋒者일까?  
다만 貯蓄은 滿足한 듯이  
黙々히 黙아있었다.

複雜한 都市生活에 不平 같  
은 것을 조금도 모르고 오직 未來  
를 爲하여 끊임없이 努力하시는  
先生님께 無限한 尊敬의 念을  
禁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더 머뭇머뭇하고 싶었으나  
時間의 흐름을 어찌지 못해 親  
切한 先生님宅을 나오면서 先

生님의 家庭에 永遠히 幸福  
이 깃드시기를 빌며 다만 家事  
에 奔走하신 師母님께 先生님과  
結婚生活中 어떤 "에피소드"가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慚히  
짐작하면서 한마디의 口頭彈  
을 던져보지도 못하고 先生님宅  
을 別쳐나온 것이 後悔막심하였다.  
거리에는 화려한 巨상들이 物결  
치듯 돌아가는데 해는 벌써  
산위에 斜려있었다.



詩 壇

“가 고 화” 金 鍾 壽

정녕 平和로운 農村이 그리워  
피피오——

번동이 어슴프레  
암람은 알을 낳고 쌀쌀개는 부시시  
흥겨운 콧노래로 호미들고 팽이매고

x x

멀리 農樂소리 들리는 마을이 그리워  
음매에——

숯물결 銀물결 바람에 살랑  
둔덕위 송아지 풀뜯고 도야지는 꿀꿀  
흙범세 안주삼아 두둥실 둥실

x x

플래방아 도는 마을이 그리워  
멍멍멍——

삼쌀개는 풀랑 풀랑  
숯수래 銀수래를 살찐 소가 끌고  
이렇게 子孫들이 代代로 사는  
眞正 平和로운 農村이 그림소



詩

孤

六目を 기다리는 마음으로  
당신을 잊지 못하는 것은  
痛뽏하고 싶은 당신의 사랑이  
끝내 .....  
枯湯되어가는 가슴. 가슴 속에서  
자꾸만 되사려 오는 것은  
百습같이 희였던 당신의 마음 때문인지도 모른다.

오늘도 .....  
孤獨한 나그네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참새같은 외롭을 지니고  
실날같은 바람결에도 공포를 느끼며  
포도송이 같은 하늘 속에서  
포근한 어머니의 품을 찾는  
어린애가 되고 싶은 것이다.

금방이라도  
痛뽏이 쏟아질 것만 같은 가슴속에  
아! 無數한 悲喜가  
噴水처럼 솟아 오르고



# 權 龍 太

어두운, 倫理들이 제 멋대로 번식하는 하늘 아래서  
 꼭 한번은  
 不信任을 쏟하고 싶은 마음 일꺼다.

몇 해를 두고 ... 하염없이 지나간 나날들을 두고  
 반가운 사람을 기다리는 어느 驛에서 처럼.  
 내가 나를 모르고 ...  
 참새 같은 가슴을 어찌지 못해  
 이렇게 기달려 보는 것이다.

끝내 무슨 기별이라도 바라는 마음으로  
 偽善을 좋아하는 사내들 속에서  
 빛을 絶망하는 마음을 지니고  
 해바라기 같은  
 당신의 웃음이 피어날 때까지  
 이렇게  
 안라깝게 기다리는 지도 모른다.

詩



李相鎔

이건 오솔길이 아니외다.  
 시끄러운 인적이 흐르는 곳도 아니외다.  
 신비한 생의 울동이 가슴막을 찌르며  
 꿈틀거리는 적막이외다.

보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이렇게 고요한 삶의 무리 속  
 여기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무색의  
 꿈을 엮는게 좋다.

어두움속에 주워 모은 그리움을  
 원무를 긋고 화살을 튕겨 본다.  
 화살이 소리없이 소리치는 생을 쏘았을 께다.

약속어 남아 이를 기다린다고  
 우는 부엉이에게 모은 그리움을 보여 주다.

이건 정말 밤이다.  
 파릇한 表情이라곤 조금도 없는 신비한  
 밤이 외다.  
 울켜 어두움이 넘어 몰듯한 밤이 외다.

詩

# 無名의 綠

曹 重 煥

환한 擴散 빛이 퍼져 나오면  
 蒼 분홍 구름이 면취 집니다.  
 行人의 거름은 느릿 느릿 ...  
 그 멀리 익고 핀 황혼은 좋은데  
 정다한 사람 말은 없고 길은 멀다.

분홍 빛 구름이 날오면  
 피었던 들꽃도 살아 집니다.  
 축축히 나리는 이슬에  
 感觸을 느끼며 밤에 動化인듯  
 시든 靑綠은 다시 生動합니다.

낮에 고인 먼지가  
 하얀 달빛에 어려  
 보라색 무늬가 섬세로운데  
 無名의 綠 안키워 주변  
 후묵한 얼굴 다시 싱글립니다.





微

笑

다른 말은 잊었다 하고

죄를 안짓는다는  
約束이나 해 불가요."

少年의 말을 듣고 나는 웃어 보였습니다.

이젠 나도 말을 할 줄 알아요"

해말간 웃음을 먹음고 이런 말을 옮겨 논 것도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담장 곁에 해바라기가 구개를 돌리고  
햇살이 곱게 비친 날  
少年은 언제나 처럼 병아리에게 말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모이를 달라는 거냐? 어여쁜 친구"

"그러나 罪를 안짓겠다는 말과 무에 달라서"



圖景風心林眠

# 張慶子

어느 새인지 병아리가 세 살이 되었을 때도  
少年은 병아리의 열갈을  
부벼주고 있었습니다.

“이젠 병아리도 말을 알아요  
그러나 이젠 價値 없는 노력이지요.”

“언어를 안다는 건 괴로운 의무입니다.”

비오는 날엔가 소년이 내게 傳해준 이 말을  
나는 그 後에도 記憶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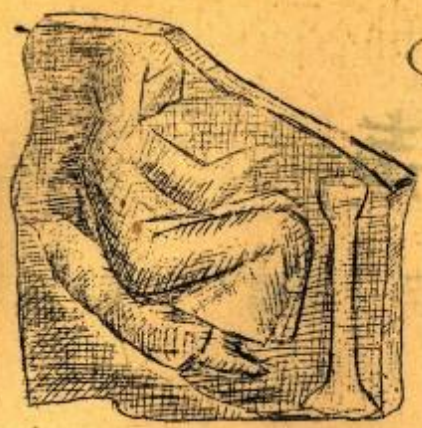
일년 하고 한달이 지나서  
조용히 미소도 지을 줄 알던 때 부터  
少年은 같은 말을 되풀이 외었습니다.

“말을 한다는 건 ——

안하는 말만 찾는거란다.”



廢墟된 寺刹	세마리 鶴이	갑대우는
깨여진 인경속에서	나르다	하이얀 煙氣가
머얼리	고대로	감도는
餘韻을 던지는	떨어져	儒達山の 夕陽이
그 아늑함이며	섬이 되었다는	
	아지랑이 같은	먼지와 휘발유를
소용돌이 치는	≡鶴島의	배알는
갯바닥 辺	俗說도	서울의 廢路와는
거기엔		너무나도 蹉跎된
나도	그섬에도	靜寂이 걸려
그도		鄉愁에
없었던	즐기던	미치도록 젖은
그리움은	내 자리	이 가슴이
잔잔히 그위를 흐르고	잔디 위엔	必是 찢어져야만
		울을 것이나
논두렁 위에선	빨간 진달래가	내 故鄉아.
개고리가 泣訴하였다	고이	
	버무러 있을 테지	
相思하던	≡鶴島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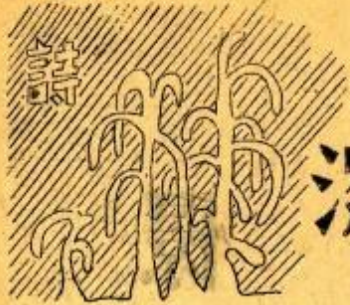


(詩)

# 憧 憬

趙 之 浩

밤이면 유난히도 반짝이는 별  
 누구나 저 별은 보지  
 나 만은 그대의 자태로 아오  
 내 귀엔 들린다.  
 온 세상 온갖 잡음속에서도  
 그다지도 상냥한 그대의 음성  
 일할 때도 아니 슬플 때도  
 환희의 쾌락 속에 몰아 넣어  
 그대 내곁에 있을라 치면  
 나는 아오 그리고 당면 할께요  
 未知의 새 生活.



# 深夜声

李 錫 來

天地가 잠 들고  
 밤 깊었건만  
 哀願의 嗚聲이  
 寂莫을 깨트린다.  
 배곡 배곡  
 무슨 생각이나 한 듯  
 잠시  
 침묵을 지키다간  
 다시금 애처롭게  
 배곡 배꾸국

새도록 안타깝게  
 熱情을 呼訴함에  
 애타는 心情  
 당장  
 오.....  
 날음 못 할 이 맘  
 어이 하리만은  
 앞날의 보람만을  
 굳이  
 참고 보리라.

慕山 詩 人 情

한 영 찬

아무리 인가의 마을을 뒤찾아 다녀도 인정이란  
것은 없어.....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모르는 체 이 지옥의 계절  
은 질어만 간다.

그저 뒤섞어 배알는 너 세월 속에서  
인간과 짐승은 마주 서고.

선과 악을 기르는 곳에

인정 아닌 생존 경쟁의 상대자로 삼아야 하는  
이 세기 비극 속에서

나는 소태 씹어 먹는 사람 처럼

오늘도

내일도

또한 미래에도

인정없는 인간을 찾을지 ——

인간없는 인정을 찾을지 ——

~74~



慕山

# 慕山洋

李錫來

먼- 먼 산 밑  
 그윽한 속에서  
 數年の 沈黙  
 그대로 이은  
 지점은 . . . . .  
 속에서  
 비 바람에 시달리고  
 눈보라에 부딪쳐도  
 변함 없이  
 말없는 삶 속에  
 해  
 달이 갈수록  
 善美되어 가는다.  
 純眞하고 또  
 수집어 하는 樣은  
 무엇보다 그 모를 사람들  
 몰라 주어도  
 먼- 먼 곳 山洋  
 내 못 잊어 하노라.



詩

# 하늘나라

K. H. S.

고요히 눈을 감고  
손을 합장 한 곳에  
남 몰래 발견한 새벽이 있어  
정처 없이 해메고 싶은 마음

달도 해도 없이 밝고 화안한  
죄없는 세계에  
헐 헐 날르는 구름  
마음이 창가에 아롱거린다.

敎會堂의 종소리가 지금도 들려오는  
나의 마음에는!

그러나

이 품에 안긴 한권의 붉은 책을  
주여! 내 갈 길 밝게 비치소서

# 編輯室의 狂追

編輯生

그러니까 벌써 兪齋 두  
개가 지나버린때다 내가  
既成人이 될려할즈음 이  
미 既成人이라는 行  
勢를 함으로 小兒態  
를 벗고자 막걸리집  
이며 「食者」 떡집이며  
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完全한 既成人 耳順  
이나 된것처럼 아니  
이제는 生活에 지쳐  
버린듯 또는 지금의  
余暇으로 남겨둘려는  
듯이 시침은 우와기  
와 험크러진 머리를  
자랑하며 지내던것이  
또 覺난다.

술! 알콜! 추위도  
알콜 더위도 알콜 알콜  
이없는 보은 슬프고 피  
로운 잠시들 잊을수없다  
알콜은 보통의 男子가  
愛用하는것인즉 女子들은  
대개가 싫어한다

싫어하는  
이유는 먹어보지못했고 먹  
어보면 다된 기집이라느  
뿔뿔의 別稱을 듣게 될가

## 막걸리

## 異談

愛齋生

해서 그런것같다 그러  
니까 알콜을 마셔본

女姓 古時 現在를 통  
털어 當時의 社會制度  
內에서 비난을 받는女  
姓 그들은 알콜을 안다

그女姓들이란 男姓이  
취했을때 매우 좋은 男  
姓의 伴侶(??) 아니  
部屈品이되는것이다.

그러나 男子가 취하  
지 않았을때는 스스  
로가 취한척하여 못  
난행세를 알콜에게 뒤

집어 씨우는데 능난하다.  
俗稱 내야가라라는 特殊  
한거리에서 나는 비싼술  
알콜을 마셨다 그리고서는  
그알콜을 아는 女姓에게  
서부터 商業術이 열마란한



가 술이 깬 뒤에야 알았다. 그 후 또한번은 내야가 라  
 를 지나가는데 그런 女姓들이 나와서는 칭크를 한다  
 못본체할려고 해야 안되는 男의 이름의 男子인 나는 그  
 칭크를 받아 드렸다 그 女姓은 나를 學中에 있는 듯  
 가진 표태를 띠며 길거리에서 술을 한잔 권하는 것이  
 아닌가 이때 多후에도 내게는 돈이라고는 없었기 때문  
 에 거절했다. 그랬더니 女姓曰「그냥 잡수세요」 그리고 들어와  
 서 奇怪한 人庄談을 들어보라는 것이다

아무튼 그 술은 그냥 준다고 하는 것이다 나는 그 술  
 을 먹었다 그리고는 그 담배하고는 삼십육계 출행낭을  
 쳐왔던 것이다 이렇게 술은 OK 하면서도 女姓은 물리  
 쳤다 알뜰에 變換한 渡語를 적을라면 이 밤이 설까.....  
 염려된다

벌써 알뜰을 입에 대본지가 그렇게도 먼 2年前  
 이제는 成人이 되어 보냈다는 死品도 없어지고 술々히  
 그날그날 죽지 못해 사는 人生의 산지체를 꾸리고 있  
 는 것이다

人生 70 이 古表稀과!  
 70도 수위라고 하지 않다가  
 ? 그 人庄 70 이  
 드물다고 한다

簡單히든 화장을 하고 또는  
 흔히 무덤을 만든다 무덤  
 을 만들고는 그 위  
 에 나는 풀마저 썩

### 識者憂患?

最近에는 60 이  
 靑春이라고 하니까 너靑春  
 이라고 할진만 10 年만에  
 더살지 못할것이니라...?  
 ?? 한 世相을 살피나면

馬 庄 아 버 리 고 는  
 「저기 저산에 쪽박  
 얹어놓것이 무엇이냐?」하든  
 草童의 수수께끼 하나  
 품으로 가얏게 죽어질 우

리들의 運命이아니냐 혹 義스러운 일을하여 그이름을 남긴다 하나 그數가 몇々이나 되느냐 말이다

草土에 툇한 雜草이 적지 않으니 ---- 죽어서는 들이다 산이다하여 죽은자의 旃額대로 무덤을 만들고 또 해마다 腐草라느것을 하니 그 무덤된자 雜草를 기을 너를조차 되지못하지 않는가 그뿐이랴 그무덤된자 거름도 못되고 오히려 밭에다 무덤을 만들면 밭만 줄어들고 景致 좋은 山頂에 무덤을 만들면 과이한 쪽박이 외롭게 서있게된다 그主人은 물론 우리를 ---- ...? 그러나 ぜ발 義롭게 ---- 벗된 자에게 말하노라 아예 雜草일량은 그대로 두소 ----

### ◎ 객설 한마디



무엇을 쓸러니 옛일을 더듬게된다 그렇지 않고서 무엇을 쓸수있으랴 파거의 경험 그리웠던말 떠도는 나그네 어찌 옛이없고 무엇을 쓸수있으랴 우선 抱覺 나는대로 아마나는 하늘에서는 자라지 않았을것이요 分배땅에서 자랐을 것이니 땅을 모를리없다 그땅 / 나는 땅이니 흙이니하면 내가 지금 먹는밥 또 그의의것들이 屢次的으로 抱覺난다 이것은 一部에 지나지않고 ---- 어떤 先人이 해기한 「사람은 땅에서 낳아 땅이주는 음식을 먹고 그의 永포를 땅에 맡긴다」는 말이 抱覺난다 이것은 必然이다

또 나는 自然發主用인지 혹은 父母가 나를 大號領으로 만들었다느니 혹은 長官을 만들었다느니 해서 일부러 꼭 만는것인지 ---- 이것은 잘모르되 自然發主用으로 봄이 내게 自由롭다 그래서 나는 自然發主用

인 女子와 연애라도 하고 싶은 것이다 아님 男子라도 좋  
다 前者는 내가 弱冠이라는 데서 이고 后者는 거칠줄  
모르는 友情의 余韻으로 적적치 않게 살아보고 싶은 데  
서이다

世間最有 斷腸處 하나 --- 하는 심청의 詩初句가 生覺난  
다 이것이 어찌 父女雜別의 心琴을 울릴 뿐이라 世間  
最有 斷腸處 하나 이 또한 女子 欲는 男子의 서름이라 이  
잠해 두세 -----

# 公園의 風景 隨筆

— 朴在甲 —

五月의 陽地에 新綠이 茁  
뜻을 들우는 맑게 개인날  
씨인 지라 오래간만에 鐘路  
를 거닐었다 발걸음은 어  
느듯 파고다 公園 앞까지 이  
르렀다 門 앞에서 한참 同安  
망서리다가 入口를 들어섰  
다 入口를 들어서니 바로  
正面에 初代大統領 李承晩  
博士之像이라고 새겨진 銅  
像이 公園을 새로 장식하  
는듯 우뚝서 있는 것이 첫  
눈에 띠었다 드나드는 觀  
覽客 中에는 銅像 앞에서 記  
念寫眞을 찍고 있는 이도 있



었다  
出入하는 사람들을 向하  
여 "이리오세요 記念寫  
眞들 안 찍으세요 갈래드  
립니다 자! 見本을 보  
시구려 마음에 드시도록  
찍어드립니다. 하면서 포  
고 넓은 寫眞舍內의 여  
러가지의 포-즈로서 찍  
어놓은 寫眞들을 가르키  
면서 勸하고 있는 寫眞  
師들이 줄을 이어 있었

더구나 거기 아해들이 호크  
 를 허리에 차고 이리저리 다  
 를 박질치며 흥겨워하고 있는  
 모양을 보니 이상아듯하고 허  
 족한 威이났다 나는 천々히  
 빌어서 소園을 一週하기 始  
 作하였다 걸으면서 사람들을  
 하나 하나 관찰하여보니 形  
 々色々의 人物이며 스러일로  
 서 마치 人間家族屢과 같은  
 느낌을 주었다 公園中心의  
 入再樓에서는 扶養者나 求景  
 群等을 몰아놓고 厂史와 時  
 局을 講論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마치 俳優와 꼭  
 같이 祝辭를 올려서 敍讚을  
 吐하기도 하고 急速히 諷은  
 表構으로서 가느은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있었다 또한 花  
 壇의 遊두리 樹木이 육어져  
 그늘진 곳곳마다 老人비들이  
 모여앉아서 野談을 하는지  
 時代를 評하는지 或은 鄭誼  
 錄을 풀이하든지는 몰라도  
 興味盡々한 것같이 이야기하기  
 도하고 숨가쁘게 웃음을 터  
 트리기도 하고 있었다 나는

원일인지 사람통인 곳마다  
 求景하고 遊어서 차례  
 차례 돌기 始作하였다 花  
 園의 遊두리마다 카라멜  
 파 담배를 줄줄이 붙여  
 놓고 그옆에는 色々를  
 칠한 둥근板을 놓고 누  
 구든지 娛樂하기를 기다  
 리고 있는 장사꾼도 있  
 지만 불쌍함이 없이 깡들  
 러서 高声파 蹻을 蹻하  
 면서 盜擄에 醉한 무리  
 들이 많히 있었다 이러  
 한 娛樂은 原未는 作難

에 不過하든 것이 지금에  
 와서는 큰 盜擄으로 化  
 해버린 것이다 가만히 사  
 방을 살펴보니 그늘진 곳  
 파 사람이 침만 한 곳에는  
 아이스크림장사 아이스케  
 기장사 빵장사 파자장사  
 樂장사 四柱 規象 手鏡  
 作名 身敎 日敎 宮合장  
 이들이며 더구나 求舍私  
 演하는 光景이며 名唱을  
 자랑하는 潤添의 名技?  
 或은 썩덕공론등과 노름꾼

으로서 珍風景을 이루고  
 있으며 豪華찬란한 景致  
 를 形成하고 있었다. 저  
 便 十三重塔앞에서 高價  
 高級品인 洋服과 洋裝으  
 로서 단장한 紳士淑女가  
 鳩翼을 짙는다고 熱中하  
 고있는데 노름꾼 무리속  
 에서 들들던지고 있는者도  
 있었다. 이치는 너무나의  
 일에 神經을써 아마 심  
 술이 생겼든 모양이었다  
 나는 덮고해서 그늘진 곳  
 에서 좀쉬었다.

그런데 내가 샅은옆에  
 는 지개꾼 몇사람이 제  
 마다 지개를 땅에얹어놓  
 고 하늘을 쳐다보고 들  
 어누어있었는데 이들은  
 풀파리가 없어서 이곳에  
 서 놀고있는것이 分明하  
 였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  
 어지기를 기다리는지는  
 모르다 무슨 空想에 사  
 로 잠긴것날이 보았다.  
 옷차림이나 신발을 보아  
 서 褻교 幸福된 生活을

하고있다고 斷定하기 어려  
 을 外形을하고 있었다.

이사람들을 드러다보니  
 광연히 나도 神經이 예민  
 하여져서 이사람들의 象族  
 은뭇? 집은 어디에? 日  
 收入은 얼마? 畝地인지  
 木郷인지하는 여러가지 辨  
 覺이들며 나도모르게 同精  
 心이들었다.

이런辨覺을하고 있는차에  
 左便에 사람들이 웅성거리  
 고 있음을보고 발을 옮겼  
 다. 兎舍히 辨인파같은 모  
 양을한 市井女人이 손에는  
 聖經冊을들고 눈을감고 하  
 늘을 우러러보면서 무매인  
 소리로 天國과 地獄과 輪  
 判을 부르짖다가 또 노래  
 도부르고 하는것이 狂人이  
 아닌가하는 인아침을 내게  
 하였다.

이女人이 神秘主義인지  
 또는 狂人인지 모르나 저  
 사람이 읊사 해룻王때 약  
 대가 죽으로서 옷을삼고  
 메뚜기와 蝻을먹은편

서 요단강과 온 유대 廣野  
로 돌아다니며 梅改하라  
天國이 가까웠나니라, 하며  
외치든 "요한" 과 같으며  
같은 時代가 아닌가 하는  
感覺이 들었다

또한 "소돔고모라城" 의  
審判 聖都 에루살렘의 最布  
와같은 感을 주었다 또한  
*the last of Pompey* (폼페  
이의最布) 라는 冊에 나오  
는 폼페이 市街의 凡景이  
눈에 아물거리었다 더구나  
내가 살고있는 이곳 서울  
은 그야말로 豪華版이기도  
하고 一面으로는 地獄과같  
은 穢慘한 環境이라고 主  
觀되었다 이런生覺 저런生  
覺으로서 나의 머리는 차  
차 들지경으로 複雜하여져  
갔다 어느듯 해도 기울고  
집에 돌아갈때가 되었음으  
로 出口로 向하며 발걸음  
을 재촉하였다 이곳에 통  
인 大多數의 사람들이 내  
가 高等學校時節에본 伊太  
利映畵 "自軛車盜賊" 에 나

오는 失業者의 무리와살  
이 보였다 또한 우리의  
現狀이 모두가 숨기고  
쑥이고 빼앗고 하는 무  
질서한 社會現狀이며 貪  
困에 헤메는 무리가 그  
映畵에 나타나는 場面과  
같다고 느껴졌다

하여튼 이公園에 休息  
이나 마음을 安靜시키려  
오는사람이 있다면 오히  
려 팔을 잡고 돌아갈지  
경으로 複雜多難한 公園  
임이 틀림없는 事矣이리  
라 무엇보다도 이公園은  
우리先賢의 거룩한 피와  
生命을 바친 곳이며 世界  
萬國에 널리 알려져 있는  
聖地이며 萬方에 자랑할  
國史와古蹟이 있는 特殊  
한 公園인데도 不拘하고  
失業者, 장사, 盲인, 乞  
人, 狂人...等 特殊한  
存在들만 모여서, 公園의  
珍風景아닌 이상한 風景  
을 이루고 있으니 恨心  
하기 그지없다고 絶矣히

느꼈다 이것만으로도 무  
엇한데 이 자리에서 이러  
가지의 犯罪行爲가 일어  
나고 있으니 정말 기절  
할 事뭇이 아닌가 하는  
主覺을 가지니 두번 다  
시 이公團에 오기 싫은  
主覺이 들며 공포감이 쏠

身을 회감는고로 풀다름처  
나오고 달았다 거리에는  
빈틈없이 쏟아져 나오는  
自動車波水와 人波로서 해  
저무는 서울의 거리를 요  
란스럽게 하고 있었다

《End》

자 자 자 자 자

(隨想)

# 나는 찾아본다

車 窓 聲

녹음이 죽어진 늦은봄 나는 市內한구석인 용산 어  
느 거리를 지나 이리저리  
돌아서 南山을 伺하며 날이  
슬라가게 되었다 거기만 하  
터라도 南山이 가까워서 그  
런모양인지 으스스히 나무가  
죽어저서 불철에 기분을 한  
층더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한적한곳에서 아침  
일찍이 出勤하면 저녁 늦어  
야나 집에 돌아오게 되면  
좀처럼 쉽지 않으리라고  
러한 한적한곳은 대개가  
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은 느낌이든다 그렇다면

Salary man 같은신분들은  
생각드는것같다 그러나 이  
양쪽으로 아름답게 지어져있  
소위 (所爲) 클이나 자는곳날  
나는 어찌하여 이곳까지

어오게되었나 이곳이 環境  
 이 좋아서도 아니다 그렇  
 다고해서 조용한곳을 즐겨  
 서 찾아온것도 아니다 여  
 기에는 우연히 곳이학표를  
 通해서 알게된 친구에 인  
 도로 찾아오게된것 뿐이다  
 열껏 생각하기에는 이곳에  
 서 몇일동안만 살면 몸과  
 마음은 물론이고 이 肉體까지  
 健康해질것같은 기분이든다  
 즉 林養處가 된다고 볼수있  
 다 그러나 막장 양육집문  
 을 필고 들어서니 웬일인  
 지 찬바람이 첫부는데 음  
 산하기 짝이없다

더구나 어느程度의 기미  
 를 가지고 왔던 까닭인지  
 는 모르겠으나 상々파는  
 天地間이라 할만큼 공기는  
 쌀々하다 어떤지 地形은  
 모든 조인이 구비되어있다  
 翰으로는 漢江水가 流々히  
 흐르며 또한편 산숲사이로  
 는 각종 새들이 노래를  
 불러주며 정면으로는 현히  
 트인 龍山洞內에는 마치

개미들이 자기들 먹이를  
 求하러 들숲속을 헤매이  
 는것과 마찬가지로 오고  
 가는 사람들에 발걸음은  
 生存경쟁에 일단락이라고  
 아니할수없겠다

그러나 왜 이친구가  
 여기까지 와있게된것도  
 이제서야 비로서 깨닫게  
 되었다

누구나가 느껴질수있는  
 것은 고독함이다 그러나  
 그러한 그리움과 고독함  
 을 참고 견뎌나가면서  
 짝을 잃은 외기리기모양  
 으로 음산한 지하실 一  
 隅에서 生活을 하고있는  
 것도 生存경쟁에 아니할  
 수없다 그러다 어디까지  
 나 生存競爭에서 뒤떨어  
 지지 않아야된다

어디까지나 전보적이며  
 발전정 ~~있는~~ 生活을 해  
 야한다 나도 여기와서  
 어딘지 모르게 은연중에  
 심的인 동정심을 발견하  
 였다 삶이란 모든 사



람마다 그 방향이 다를것이다 그러나 生存해 있다는 存在만은 누구나 다 同一한것은 아닐까?

그러한 人間이 그 生活 方向이 어디서 부터 달라지느냐 하는것을 한팔로 말하자면 各者 그 生活 環境에서라고 主覺한다 그

러나 우리는 누구보다 두 감고 가치있게 살아보려고 할것같으면 時々々々 닥쳐오는 環境에 適應할수있는 습관을 기르는 가운데에 진실한 삶의 맛을 알게될 것이다

END.

〔 隨想 〕



밤은 이속해서 눈 뜬장 남이된다 묘안이 없고 나 아침까지는 별수 없다 어쩌다 主覺이 계속되니라 그만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게 갔다

다시 누이본다 그리곤 비좁은 자리를 헤쳐본다 특이 비틀릴 뿐이다

꿈도 없다 ----- 숨소리를 듣는다 이것은 아침이 가까워지고 肉體에 쇠약을 촉진한다 아니 절대로 人爲的인것은 아

니다 自然의 法則이다 許多한 醫學博士들도 九川行을 끝마쳤기 때문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一秒一秒의 過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죽임의 路程에선 혼장을 탄다 一秒가 키에들리면 또 一秒를 알면 一秒의 혼장을 타고 被單로 前進한다 그것은 틈씨도 빨리갔다 「밤마다」 「밤마다」 ... 「-----」 되가려보며 이상한 내물은 磁石이된다 이불과 衾이

를 재근 것이 平常時라면  
 웃으실 것이다 나르 거리엄  
 飲이 滿이를 전다 두채의  
 이불 / 하나는 6 밤 3 다  
 른 하나는 8 밤 틀른 正確  
 不正確은 모른다 그렇지  
 만 아무튼 6 밤 3 에 磁石  
 있다 불이 켜졌다 내가

전 촛불은 두번째 켜졌  
 다 다시 켜다

다만 눈 뜬 장남을 면할  
 가 해서 었는데 누웠  
 꿈도 없다 아침엔 잠이 든  
 다 아아 오늘이 火요  
 달이 되는구나 火요일이 되는  
 路程이라 수난 많은 路程이다.

# 5월과 베르테르 「隨」

— 金 興 烈 —

五月은 萬物이 面蘇하여 生의 躍動을 뱃내며 大地  
 는 百花로 繡를 놓아 裝飾되고 大氣는 葦暢하여 點은



마음은 限없이 부풀러 올라 우리에게  
 希望과 情熱을 담뭍 안어다 주는 時節이  
 기도 합니다 여기에 五月과 같은 情熱과  
 感激을 담 한 베르테르에 行程을  
 꺾안고 查 場하여 點은 마음에  
 強한 感動을 주고 無 殺한 靑年  
 을 自身과 變이 自殺 까지 하게  
 情熱을 담뭍 안어다 주는 時節이  
 기도 합니다 여기에 五月과 같은 情熱과  
 感激을 담 한 베르테르에 行程을  
 꺾어 보며 理想보다도 情熱과 感情이  
 앞서 點은 이로서 激하기 쉬운  
 우리의 呼吸狀態를 다시  
 한번 生覺하여 理性과 情熱에  
 調和와 均衡을 이루며 이것을  
 유지하기 爲한 意志 다시 말하면  
 點은 點에 激하면 點에도

强하다. 라고 혼란을 말  
 하는 强함도 있어야겠음  
 니다. 精熱에 度가 加해  
 지면 理性에 判斷力이  
 무다 어저저 前住를 병정  
 히 注意해볼 사이도 없  
 이 一身을 滅亡하게 할  
 지 모르는 危險에 接近  
 하게 됩니다. 勿論, 感情  
 에 倒醉해 있을 때는 그  
 사람은 自己信念에 自己  
 自身을 불러워 不幸이란  
 것을 잊고서 幸福할수있  
 을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不幸하  
 게도 沙上樓閣이 되었을  
 境遇에는 어찌할수없이  
 一身에 幸福까지도 斷念  
 해야 될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幸福이  
 一身에 何한것이 아닐때  
 말하자면 우리의 幸福이  
 一身에 局限된 知識이  
 아니며 量과도 아니며  
 美를創造함도 아니요 理  
 想을 수행하는것도 아니  
 고 돈이나 土地나 財物

을 所有하는것도 아니며  
 하듯처럼 우리라 받드는  
 尊敬도 아니라할때 勿論 이  
 러한것들도 다 빼낼수없는  
 重要한것들입니다. 오로  
 지 만인을 위하여 힘써  
 일하고 만인과 더불어 幸  
 福을 향수할수있는 理想의  
 良現이 더 重要하다 할것  
 입니다.

이렇게 만인과 더불어  
 呼吸한다는것은 人間의 義  
 務가 될것이며 人間의 最  
 大의 幸福이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 自身의  
 것이로되 나 自身을 爲한것  
 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  
 러면 우리人間은 어떻게  
 살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우리人間의 제일큰 宿題  
 이며, 이宿題를 解決어가느냐?  
 못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幸福에 尺  
 度가 定해진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없이 부푸려  
 오르는 우리의 精熱을 어  
 디다 발산시키고 우리의

力량을 어떻게 集中시키느냐? 여기에 理性의 冷澈한 協助가 없이는 小我를 편지 못하고 自身の 精熱에 自滅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精熱의 몸이 휘싸이고 감격에 자는 정열의 像徵 베르레르에 行蹟을 다시 한번 面顧해봅시다

나무에는 꽃이 만발하고 大氣는 화창한 五月 어느날 베르레르<sup>1</sup>는 무도회 초대를 받고 들길을 걸고 있을 때 여섯의 동생을 가진 롯데라는 아가씨를 알게 되고 곧 그에게 맘이 끌림을 어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롯데에게는 이미 약혼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 베르레르<sup>2</sup>는 失望합니다 만 명랑하고 伶俐한 롯데에게 맘이 끌리어 그날부터 매일같이 롯데의 집을 방문하고 교제가 시작됩니다

롯데는 베르레르가 하나

의 일에 몰두하는 性質인 것을 조용히 종교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얼마안가서 롯데의 약혼자 알베르트가 여행지로 부러 돌아왔을 때 그가 學識과 理性이 豊富한 溫和한 靑年임을 알고 苦悶을 하나 드디어 그와 친한 사이가 되고 갑니다 그래서 베르레르<sup>3</sup>는 두 사람의 幸福을 齋해서 자기는 롯데와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幸福을 祝福합니다

그뒤 베르레르<sup>4</sup>는 그 땅을 떠나지만 얼마 안되어 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롯데는 결혼한 후이기 때문에 또다시 苦悶하기 始作합니다 얼마후 베르레르<sup>5</sup>는 불순한 사건의 변호인으로 법정 에 섰습니다 . 그로써 해서 알베르트로 부러 주위의 平和를 어지럽히는 者라고 낙인을 받고

룻대로 부터 . 멀리하든  
存在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안 베르테르는  
룻대에게 경원시되고 그  
의 사랑을 잃을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는것이  
낫을것이라고 표覺하고  
불시에 룻대를 찾아가

언제나 조용하고 理性을  
잃지 않는 룻대에게 미친  
듯이 最初이며 또한 最  
후의 키스를하고 돌아와  
죽음의 準備를 하고서

룻대가 손수 내여 주었  
다는 권총에 키스를 하  
며 幸福에 희하면서 자  
기 가슴에 권총을 쏘는  
것으로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작품은 主人

소베르타르가 自단의 벗  
에게 보내는 편지를 엮  
은 書簡體小說이며 이小  
說은 作者 *Geathe* 가 25

才 때 단 二週日間에 써  
낸 作品이라는것도 너무  
나도 잘 아는 事實이며

우리가 지독하게 사랑

하며 애기는 作品인것도  
事實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로  
멘틱하고 표기에 한 이작품  
을 感愾하거나 作品을 論  
하거나 著者의 偉大性을  
찬미하려는것도 아니고 짐  
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베르테르와 같이 사랑하고  
룻대와같이 사랑받기를 願  
하며 그것을 이루기에 바  
치는 熱々한 우리의 이갈  
은 種類의 모든 精熱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것을  
표覺해 보려고하는것입니다  
이작품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같이 正當으로부터 쏘  
아져 나오는 정열 이것이

룻대에 바치는 사랑하나에  
흠뻑 기울어져 우리의 熱  
으로 어찌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합니다

豫表 이러한 狂信이라는  
것은 人生의 여러가지 目  
的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 들만알고 그것을 이  
루기에 人生의 여러가지

황한 目的을 짓밟아도 상  
관 없다고 忠實하는 態度라  
고 보아줍니다

여기서도 베르테르가 룻  
머에게 사랑을 바치다가  
룻대에게서 사랑을 잃고  
배척을 받을 바에는 차라  
리 죽어 버리는것이 낡을것  
이라고 忠實하고 베르테르  
는 죽습니다

그러나 人의 目的이  
한가지밖에 없다고는 할수  
없을것입니다 가령 룻머  
의 사랑을 잃었다고 할지  
라도 룻머가 베르테르에게  
말한것과같이 『이 넓은 세상  
에 당신 마음에 드는 아  
가씨가 따로없다고 생각하  
세요 마음을 단々히 가지  
시고 찾으시면 꼭 예쁜아  
가씨가 눈에 띠일것이에요』  
하는 말과같이 우리가 한  
가지의 커다란 理想의 目  
標에서 失望하고 살맛을  
잃는다 할지라도 '명철한  
理性의 도움을 얻어' 마음  
을 단々히하고 目前의 일

만 내다 보지 말고 活動  
을 넓혀서 또 다른 遠  
대한 目標을 바라보고  
꿈같은 努力을 기울인  
다면 나는 孤獨한 一今  
의 個人이 아니고 人類  
를 幸福에 이끄는 大行  
계속의 一員이되어 또다  
를 나의 希望 理想에 目  
標를 찾아 나의 情熱을  
모을수있고 나는 偉大한  
一死과 運命을같이 할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세상에  
머브르는 동안은 極히  
짧으며 또 나의 生命  
은 微々하고 나 한個人  
에 存在하는 보잘것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나 한個人에  
만속에는 世界를 비칠  
수있고 世界를 안이들수  
있음으로 人間은 어二意  
味에서는 世界만큼 커지  
고 宇宙가 가지고 있는  
온갖 價值있는것들을 나  
의 萬속에 모조리 뭉아

나의 理想대로 料理할수  
도 있음을 압니다.

그럼으로 또한 나 한  
個人에 極限은 偉大하며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것을 압니다. 그러기때  
문에 나의 生活은 절대  
로 좁아서는 아니 될것이며  
人生과 事物에 對해서

多情과 良心과 興味를 잊  
어서는 아니 될것이라고 覺  
하며 또 무엇보다도 만  
져 넘치는 우리의 希望과  
情款을 無限히 많은 義理  
를 흡수하는 공부에 集中  
시키고 나의 天性에 따라 理性  
과 情款에 調化美를 기울여 낙  
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것이다  
라고 覺합니다 (大月을 보며면서)

[ 隨想 ]

꽃집에는 '췌립' 이 그  
고 싱싱한 줄기에는 푸르름이  
어는 파스란 봄빛을  
받아 금비늘이 유난  
히 반짝인다. 悠々히  
꼬리를 흔드는 樣은  
美의 세계에 包含되  
리라

江물은 예나 至今  
이나 疲乏없이 흐르  
고 하늘도 역시 그  
푸르름은 가지질 않  
았다. 담장은 봄을  
맞아 새로운 樣으로

담을 기어 오른다  
모든것은 萬새없이 흐

아담한 꽃봉오리를 이  
것들었다. 어항에 금봉  
룬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머물러 예전의  
것은 아니다. 그저  
無限없이 흐르기를  
繼續한 뿐이지 많은  
人間이 망위에 솟았  
다가는 스러져 갔고  
물구미와 같이 일었  
다가는 스러졌다.  
그들의 生命이란?  
그저 하고 많은 사람  
이 흘러 갔고 또 흘러  
오는 이 無限히 이  
여지는 한 空間을

雜

想

一片

李衣根

術弱한 나의 存在로 매우  
 게 함은 또 그 무슨 戲弄이  
 나? 나의 거름은 指向없  
 이 거리를 헤맨다  
 그저 人波에  
 쓸려서



물위에든 나무잎파도 같이  
 파른다 자동차의 숫한 무  
 리들이 나를 더욱 피로하  
 게 만든다 那終에는 다  
 리가 지치고 허기가 저서  
 脛이 풀리고 눈이 아찔할  
 때까지 쏘다닌다 악착스  
 런 兇의 反抗일지도 모른  
 다 아— 이세상은 두렵  
 다 모든것이 왔기에 —

두렷한 現與 苟且한 現與  
 모든 感情으로 용솟음치는  
 現與! 生命의 더러운 殘  
 着心 모든것은 現與파람에  
 苦樹의 原因이 된다

사람이 純粹한 本末의

아름다운 人間으로 돌아  
 가며 모든 因緣과 雜多  
 한 感情에서 벗어날 때에  
 모든 恐懼는 비로소 解

消된다 죽음의 찌릿  
 찌릿한 恐懼  
 마저 모든

器械의 핸들과 같이 너  
 를 操縱하는것은 너의  
 精神이다 너의 마음을

세차게 먹고 너의 身體  
 를 세차게 움직여 보아  
 라 너의 그 세포는 破  
 壞되리라 허나 人間은  
 끝없이 이어진 삶에서  
 보고듣고 말하며 행동하  
 는 모든것이 苦痛을 기  
 르는 行爲이다 人間은  
 죽기까지 苦痛이다 :

나는 神이 있다면 마  
 구 저주한다 造物主는  
 苛酷하다 人間에 기쁨을  
 주고 슬픔을 주고 生과  
 死 모든 因緣과 迷緣의  
 一律的인 고된 感情을  
 주어서 人間을 괴롭히고



있다 기쁨은 슬픔의 짝  
 이요 憂은 死의 接道  
 因緣은 迷緣의 작만 이요  
 만나 는 것은 難別을 짓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아  
 니다 그저 서로 부딪쳐  
 相殺해 버리는 倏然한  
 無의 存在다

一瞬間 반짝이는 衍光  
 에 不遇하다

인간아! 너는 저해를  
 붙잡아매고 病魔를 잡아  
 죽일수 있고 너의 모든  
 感情을 버릴수가 있기에  
 그다지 苦惱하고 모든 일  
 에 너의 神經을 쓰느냐  
 이것이 이세상에 네가  
 더 머물지 못한다는 것파  
 자는 理致가 아님을 알  
 라 너의 마음을 크게 하  
 여 廣大無辺한 저 蒼空  
 을 나르고 있는 白鷺를  
 보려마. 너의 좁은 마음  
 이 한결 풀릴터이니  
 人間이여! 許多한 感情  
 에서 벗어나 좀더 廣濶  
 한 天地로 너의 날개를

펼수가 飯느냐? 人間이기  
 때문이라고? 可笑로운 일  
 이다 뜻내기 人間 —  
 무엇하나를 現處과 妥協하  
 지 않는 것이 있으며 무엇  
 하나가 普遍性에 脫皮할수  
 있으랴 이 囹圄한 人間아!  
 造物主의 戲弄物아! 너의  
 기쁨이란? 얼마나 큰 것이며  
 그 기쁨이란 또 어떠한 存  
 在이며 너의 生命이란 열  
 마치나 길고 또 얼마만한  
 價値가 있는 것이냐?

너는 하루살이 生命을  
 짧다 팔하고 서러워 하려  
 느냐? 마즈막 저간 落葉  
 을 哀歌에 띄어줄수 있게  
 너의 生命은 길다고 보느  
 냐? 하늘에는 소들도 내  
 일도 저렇게 구름이 흘렀  
 고 바람은 커억 없이 나무  
 잎을 스쳤으며 고돌은 太  
 古로부터 흘러가지 않았느  
 냐? 또한 많은 人間の  
 무리도 어리석은 人間!  
 너는 함으로 저들을 들어  
 라 — 소들도 해는 자가

窓가에 黃昏이 沁드리면  
나는 차디찬 방바닥에 등  
을 대고 人間이라는 存在  
를 터듬는다

모든 人間은 至極히 平  
等하다 "살고 가늘게" 쿨  
고 짧게 산다. 는 삶의  
形態를 評한 一句도 역시  
그러하다 그것은 살고 가  
늘며 쿨고 짧은것은 역시  
살기 때문이다 "努力 끝에  
成功" "苦盡甘來" "至誠이  
면 感天" "哭盡悲來" 이런  
것은 모두가 相對的이요  
結局 그面便의 比重은 같  
다 이것은 至極히 平凡한  
眞理에 屈한다 "甘盡苦來"  
"悲盡哭來" 도 마찬가지로 말  
이니» 우리는 空手來 空  
手去다 잣아진 수풀의 메

두기의 生理 꽃잎의 이  
슬방울 하루아침의 산개  
落葉의 運命 / 시모든것  
은 人間의 삶에 一貫된  
무엇이 있다 악착스럽게도  
삶에 몸부림치 反抗한다  
는것같이 어리석은것은 없  
다 너는 運命 宿命이란  
말을 듣지도 못하고 그  
말 自体를 主覺해본 일  
이 없느냐? 지난날을  
主覺하여본 일이 있느냐?

和平한 마음 ——  
부슬 부슬 비가 온다 그  
렇게 지겨스럽게도 보지 않  
던 지나간 이세는 만날  
수 없는 그여인마저 그리  
운積을 가지게 하는 밤이  
다 참된 삶 永遠 幸福  
기쁨 이런 文句를 되씹  
어본다 大地는 寂寞한  
속에 묻힙니다

《· 隨想 ·》

# 灰色燈

~ 推 星 謹 ~

「灰色燈」 決코 가야만 되는가? 이걸을 ----- 알곳은 運命  
가혹한 人生! 夕陽에 지는 해는 오늘의 終息을 표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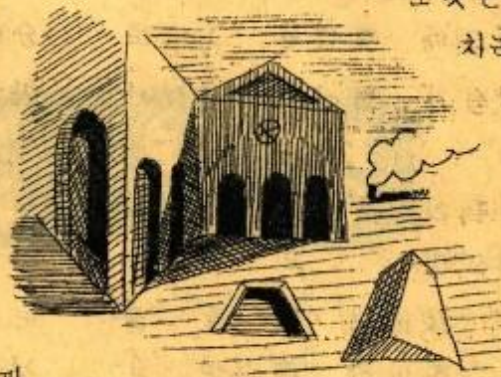


울리면서 자취를 감춘다  
 치밀어 오르는 疲勞와  
 咀呪를 온 몸에 느끼면  
 서 街路樹에 振持하고  
 있다 가냘픈 街路燈은  
 나의 倉卒한 얼굴을 빛  
 어준다 지름없이 내  
 품기는 큰한숨 -----  
 얼굴에는 구슬같은  
 땀방울이 맺혀있고  
 누추한 옷자락은  
 지나는 이의 嘲笑  
 를 받고 있다

낮의 粗糲은 파  
 람께 밝은 高요히 앞어  
 간다 隣近 家々戸々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였지만  
 나에게서는 하나의 의혹으  
 로 밖에는 生覺되지 않았  
 다 아! 이 瞬間! 피  
 로운 心思는 다시금 湧  
 솟음 치며 머리를 뒤흔  
 들었다 이 瞬間에 生을  
 營爲하는 數 많은 人間이  
 너무나 가엾고 불쌍히  
 여겨진다 나는 머리를  
 돌려 庭處 없는 발길을

催促했으나 거름은 쉽사리  
 옮겨지지 않고 疲勞는 深刻  
 하게 全身을 사로잡는다  
 알 없는 이련 ----- 언제까지  
 나 가야하는가? 永遠히?  
 아니다 알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平坦  
 치는 못하다



險 한  
 길이다  
 비바람  
 이 들  
 아쳐도  
 暴風이

살을 여이어가도 가지 많  
 을수 없다 가야만한다 명출  
 수도 없다 疲勞도 참고 虛  
 耗도 참어가면서 가지 많  
 으면 많될 運命線을 向해  
 다시 한번 숨을 쉬었다

땀은 땀을 쫓고 誤는  
 正을 陵駕하는 이 現狀!  
 犯罪를 도리어 자랑하고  
 善에 逆行한 者를 賢明한  
 人間處世에 有能한 人間이  
 라고 讚揚하는 이 現狀도  
 하나의 尸史의 수레바퀴속

에 파묻혀 간단 말인가?  
 祖上들이 쌓아놓은 崇高한  
 理念을 결코 저버릴수는  
 없다 人面의 眞正한 良心  
 이란 결코 滅하지 않는다  
 忘覺했던 이良心을 다시  
 찾아보자 後孫에게 傳하여  
 不潔한 이 世代를 그대로  
 계승시키지 말아야 할것이  
 다

그대들의 足跡에 躍動하  
 는 良心과 의 불에  
 다시금 拔掘의 根을 울  
 리자! 희미한 街路燈  
 가는 行人의 발걸음을 밝  
 혀주는 街路燈이 었건만  
 / 메터 앞도 밝혀주지 못  
 할만큼 어둡다 仄色~~이~~이다  
 밝음이 없다 나는 다시  
 한번 仄色燈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빛은 確實히 있다  
 있기때문에 尙或 지나가는  
 行人의 흐린 얼굴이나마  
 볼수있었다 그者의 顔面에  
 는 무엇이 있다? 亦是 같  
 았다 自己와 同一한 呼吸을  
 發見했다 그네들도

에 젖어있었다 咀呪에  
 가득차 있었다

왜? 나는 여러角度에  
 서 살펴보았다 單只  
 漠然할뿐... 두려운 焦臭  
 을 發見하지 못했다, 仄  
 色燈 밑에 나마 明確히  
 分別할수있는 화려한 衣  
 裝으로 丹粧한 青春男女  
 가 지나간다 나를 嘲笑  
 하는 눈으로... 人生은  
 이러한 것이라고... 나  
 는 主覺했다 결코 어느  
 것이 適當한가를 祖國을  
 主覺했다 背後의 家族를  
 主覺했다 人生의 眞實를  
 主覺했다 永藏한 幸福도  
 그려보았다 나의 머리  
 에는 한줄기의 光明이  
 燦爛인듯 스쳐간다 "움지,  
 너가 걷는 길이 결코  
 틀림없는 길이라는 것을!  
 걷지 않으면 안되는 길  
 이라는 것을! 幸福은  
 必야호로 여기서 求할수  
 있는것이라는것을 確實히  
 알았다 다시금 仄色燈

을 바라보았다 가들 가들  
 즐고 있다 그러나 어지  
 지는 않는다 바람이  
 불어도 눈비가 심하게  
 내려도... 아침의 밝은  
 햇빛이 동녘에 떠오를때  
 까지는 은은하게 빛을내  
 어 通行人을 도울것이다

나는 했다 밝은 街路  
 矧보다 뜻지 않음을 샅이  
 느끼고 무거운 다리를 더  
 뻗 더뻗 옮겨놓았다 멀리  
 背後에는 즐고 나는 赤日  
 의 庄의 빛을 찾고 있었  
 다

—\*  
 隨  
 想  
 \*—

# 悲哀의歸路

P.B.S.

오늘도 또다시 灰色  
 故路의 一葉을 걷고 있  
 었다 浪漫地域 流行歌부  
 르는 女人의 體美와 美  
 바람이 誘惑의 미끼라느  
 겠을 알면서도 흔히 勞  
 苦와 經費의 消費를 大  
 少롭지 않게 庄覺하는  
 蕩男 蕩女들의 野性的인  
 嘲笑를 詭譎하며 어디서  
 부러인지 들리는 曲調모  
 를 음향의 方向을 따라  
 綠色 그들말을 나는 平  
 後를 느끼며 걷고 있었  
 다

날카로운 흙투에  
 싸늘한 눈초  
 리의 粧  
 女  
 弄樂의  
 独占인  
 極致에  
 癡醉된  
 蕩男들의 野蠻的인 才劣한  
 웃음과 함께 비저내는 曲  
 調와 音波에 키를 기울여  
 나는 또 걷고 있었다  
 平後는 이렇게 曲調모를  
 悲鳴으로부터 田舎한다.  
 그것은 分明 읽었던 煩



惱를 말려한 것처럼 할날날  
 이 날카로우면서도 한번쯤  
 은 나의 心身을 多事롭게  
 감어주는 人間 本然의 음  
 향인것 같기도 믿어보며  
 이 曲調모를 悲鳴속을 徘徊  
 하다가 끝 이어 散擾地  
 域을 넘어가면서 香料와  
 燒櫛와의 濁한 合理를 爲  
 하여 나는 私淑을 盛長케하여  
 왔다 어떤 이름모를 願因이  
 나의 私淑을 盛長케 했던  
 시간에 나의 이 끊임없는  
 生理에 嚮한 人間들의 口  
 說의 階段을 拒否하며 至  
 當한 나의 生理를 따라  
 『피다고라스』의 苦心에  
 占領당하고 말았다

이것은 紛沓한 知覺으로  
 充滿한 自己反抗일것이다  
 깎여진 知覺으로만 지켜온  
 나의 體質은 其夷 象牙의  
 堅固처럼 決然하러 努力했  
 던것이다

오늘도 適當한 나의 理  
 解를 爲하여 缺食을하고  
 常識처럼 회여진 軌道를

타고 이 浪漫地域을 찾  
 는것이다

周圍에는 別나게 女人  
 들이 많다 양키비처럼  
 別나게 어여쁜 美妙의  
 女人们도 많다

나는 그게 무척 반감  
 고 즐거우면서도 現實의  
 躊躇를 意味하는것같이  
 恐怖만이 充滿하기도  
 했다 그것은 本質은 어  
 명든시간에 나는 그것들  
 의 均等의 口號와 原始  
 的 微笑와 誤解 그리고  
 虛榮뿐만인 그春椎를 나  
 는 異狀스리히 愛護하는  
 것이다

그들은 黃金을 願하고  
 好衣好食을 願하고 安逸  
 을 願하고 幸福을 願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勞苦의 代價와 志願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人間들  
 의 確信을 批評할수 없다  
 나는 그것들의 모든 操  
 行에 忠告한다 『人生은

虛無하다』 『人生一場春夢  
이요』 『뜻은비가 내리는  
구려-----』 마취의 취장  
은 流行歌와 驕慢한 빛  
바람으로 數多한 順男을  
動盪케 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茶屋을 記憶  
한다. 헤아릴수 없는 罪  
와 罰-----驕慢으로서의  
体美(영동미)-----凸凹  
等々----- 그러나 오늘  
의 나에게도 그것의 紛  
뜻은 永遠한 것이다

그것은 나같은 人生  
그들의 宿命이기 때문이다

苦樹과 隘路와 恐怖와  
悲哀와 驕慢과 嫉妬와  
詐欺와 그리고 覺醒과  
異踐과 獨創이 又々하는  
及包으로 展開된 一葉의  
故路여기에서 마음의 射  
視를 모르는 人種들에게  
그 自覺을 勸하고 兼秩  
序하고 不公平한 社會의  
故視를 盲看처럼 黙々히  
보고만 벌어와야 했다

悲哀의 故路에서 나의 口  
味는 限界線을 잡지못하는  
兇狂作談일뿐이다

그러면서도 맘에긋은 自  
身을 発見하며 또 行進하  
고 있었다

無敎한 그것들의 人事가  
그렇듯이 나는 常識처럼  
人間稼穡을 死守하면 그뿐  
인 것이다 이것은 有-의  
나의 位置다 그러면서도  
또 어떤 地帶을 건고 있었  
다 거기에는 또 矛盾과  
虛飾투성이의 女人들이 劣  
等한 微笑를 보배고 있었  
다

夕陽街 隘路의 錯誤로 因  
한 女人이런 願했다 그러  
나 나는 分明 意識의 流  
域에서 그 女人을 記憶한다  
그 女子는 人種들의 生覺  
처럼 많은 人種들에게 浪  
費와 良心의 分限을 要求  
했다

그리고 兇증나게 우리들  
의 作業服을 담내지는 양  
을 生理했다

그녀는 人種들의 良心의  
 分烈을 生注하게 消化하며  
 어테를가 사라져 버리고 만  
 다 나는 어떤 地獄에서  
 悲哀를 느낀다 虛榮…… 그  
 리고 生命…… 또 順男順女  
 …… 이러한 瞬間의 視野로  
 는 그들의 田想이 가득할  
 뿐이다 살기爲한 生命……  
 살아있는 屍體의 活動이  
 알뜰기도 하면서 어떤 後  
 階에서는 그들의 幻想이  
 나에게 良心의 射視를 재

촉해왔다  
 宿命 그렇게 말하면서  
 …… 문득 주름진 뺨갓으  
 로 물기 어린 나뭇잎이  
 떨어져 네린다  
 이것은 이미 暗黒이  
 은우리를 包圍하였다  
 떨어진 나무잎 사이로  
 이름모를 별(星) 하나  
 반짝이고 있었다

4290. 6. 16. 記



說問

女

1. 당신이 述記學校에 온 動機는?
2. 당신이 萬一 男子라면?
3. 당신의 戀愛談은?
4. 당신은 未來의 子息을 어떤 사람으로?
5.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冊은?

차明愛

1. 그것도 모르세요!
2. ????????? 모르겠다야!
3. 쉰래가 無能해서요
4. 시집장가간後에 決定하지 뭐 그리 바빠쿠  
 십니까?
5. 「파스칼」의 「冥想錄」



- 李英奭
1. 클세요 낙제할 可能性이 99.999% 이니 어디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까?
  2. 어머니! 큰 열받소리 왜나고요? 우리아버지가 기막히게 슬며 팔레니까요
  3. 대단히 죄송해요 이제부러라도 경험하게되면 꼭 가르쳐 드릴께요
  4. 어-후 난 몰라요
  5. 國産岳으로 「齣」

- 金 珍
1. 피자 일반이요
  2. 알아 무엇하겠다 자비!
  3. ??? = 666 이쯤 해두게
  4. 나는 그만둬세
  5. 「聖과울」의 「로마서」

- 崔姬貞
1. 一流女速記士가 되려고 왔읍니다
  2. 天下를 호령해 보고 싶군요
  3. 비달르 해두지요
  4. 그들의 希望대로
  5. 「양드레지드」의 「좁은문」 또는 펄빅著 「大地」

- 李王順
1. 一流速記士
  2. 誠實한 男便과 어진 아버지가
  3. 수집 어서! -----
  4. 클세요 그사람의 個性에 따라서
  5. 「펄-빅」 작 `숨은곳`

- 張慶子
1. 「양」
  2. 「쓸」
  3. 「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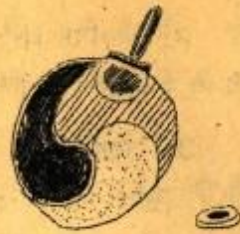
4 「예」

5 「요」

(공  
트  
)

# 太陽아래서

金 珍



7.8月 太陽의 열이 폭  
폭 비려쫄이고 있다

아침에 싱々하던 나무잎  
들도 흐졸그니 축々 느러  
져 맥이 빠진 사람살기도  
하다 자동차 엔진소리가  
멀리 지나간다 '상진' 이  
는 이런날이면 으레히 뿌  
연 흙몬지가 이른 번잡한  
길거리를 눈에 그리며 널  
편히 누어 자색에 잠기곤  
하든것이 버릇처럼 되어있  
는것이다

그가 누어 있는곳이란  
다리를 겨우 필만한 큰방  
이다

여기 저기 페결핵균이라  
도 들끓고 있음직한 후지  
나부령이 새까맣게된 이불  
깃 여기에는 아마 밤낮  
내불은 피를 빨아 쳐먹는

벌레  
틀모 양을깨라고 主覺도  
해본다 '괜찮어. 아무상  
관도 없어 굶주리지 할  
고 내더러운 피나마 삶  
깃-뱌야 쳐마셔! 너도  
나의 무슨 이 짧은 세  
초이라든 곳에서 무슨  
인연이라도 싶질래 맞단  
것이야 이 물장한 곰들  
아?'. 이렇게 혼자 중  
얼거리다간 또 다른 생  
각으로 굶기는것이다

자기 주위에서 흔히  
보는 人間들 物件들 그  
리고 다지는 못볼 뿌연  
흙먼지 이른 길거리에서  
슬쩍슬쩍 지나치던 인연  
없는 모르는 얼굴들 뒤  
라고 서모들 짓별인 아  
무런 관계도 없는 대화

들을 짓궂게 主覺도 해  
본다

이런 主覺 自覺 覺에  
는 覺국 뿌연 흙먼지를  
비며 달리는 자동차의  
엔진소리에 또다시 3번  
전 동부전선 적포탄에  
뿌연 흙먼지가 나뉠 짜  
음타를 현상하게되고 그  
러면 거기에서 또다시  
포리를 불고 전우들의  
햇볕에 탄 건강한 열권  
들 그래서 잊어버렸던  
추억을 터듬는 것이다

그러다간 마침내는 절  
름밭이 신세가 된 第二  
의 自覺을 발견하게 되  
는 것이다

"아유 잠야 먹일것들,  
이렇게 입버릇처럼 씹으  
리고 나서는 으레히 두  
손으로 머리털을 췌어 들  
는 것이다

일어나면 진담인지 식  
은 땀인지 알수 없는 범  
새나는 물이 축축히 온  
몸에 내배고 그 햇볕에

탄 점은 열줄 위에는 땀방  
울이 흘러 못건넬만치 쓰  
린 것이다

이런 自覺의 꼴도 못본  
체 아니 모르는체 하고 누  
어 자빠져 코를 고는 마  
누라의 풀이란 패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련하고  
축은하게 여겨진다고 主覺  
하는 것이다

첨약한 世波에 시달릴때  
로 시달려 보기 흉하게  
이그러진 코며 툭 리어나  
온 광대뼈며 반쯤 벌러진  
입술 자이론 근검이 지르  
르 흐르고 누런 잇빨이  
들어져있다

숨을 쉴때마다 콧방울이  
벌름벌름 무엇이랴도 날래  
는듯 샅다고 主覺도 해본  
다

오색 찬란한 장식올하고  
배머기가 통통이 나온 파리  
라는 벌레들이 너무나 많  
이 앉아서 빨고 있다 는 것  
을 알자 그는 손을 흔들  
어 쫓아 버렸다 그러고 그

들은 또 와서 잔뜩 붙었다  
머리서 자동차 소리가 커  
에 들러왔다고 意識한다  
또 다시 파리떼에게 눈을  
들렸다

동작한 뱀때기를 지닌  
파리라는 참와 마누라의 여  
윈 알뜰이 너무나도 미조  
적이라고 느낀다

큰몸히 약한 짐을 밀어  
재치고 혼자 빨려고 "부릉  
부릉" 야단들이다

"죽일놈들 같으니라구, 잡  
어 죽여야겠다"고 忠覺한다  
철컹 두손바닥이 마추치는  
소리가 난뒤 손바닥에는  
비참하게 러진 파리가 있  
다고 알았다

그러나 세법 운이 좋은  
짐들은 조롱 하듯 "윙" 소  
리를 내며 피했다

이그러진 짐승의로 눈을  
들렸다 누런하늘 가운데서  
볼을 뿜고 있는 시뻘건  
태양을 저주스럽게 노려본  
다 그 모양이란 왜 이  
렇게 터운 열을 뿜어 여

름이라는 무거운 이름을  
짓기하고 파리란 짐을 만  
들어 놓았느냐고 하는  
일종의 변태적인 원망하  
는 래도 일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이 虛無와 증오  
로 곱찬 世道를 오를  
이살이 무섭게 뜨거운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러벌 러벌 人間의 삶을  
무시 못해 곁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忠覺한다  
날카 쓰레기통에 달라붙  
은 파리떼 "회" 옆으  
로 민지를 일으켜 차들이  
지나간다

뚝고 시달린 그의 입  
가에는 무섭게 빠른 정  
현이 지나간다 저쪽편  
끝목에 높은 거지가 피  
부리고 양통의 밥을 간  
도없이 먹고 있는 꼴을  
본 모양이다 가엾다고  
忠覺해본다 그때서야  
자기도 시장기가 돈다고  
意識한다

땀방울이 눈섭을 지나

눈으로 들어오면 쓰릴것  
시라고 느낀다 폭들어  
간 눈시울에는 또 바르  
로 정련이 지나갔다 짐  
으로 가야만 된다고 보

覺한다  
질: 절룩 한다리와 하  
나의 지평이가 돌이켜 나  
간히 뜨거운 햇살일 地球  
위 흙을 밟고있다



틀안스럽게 올라오던 포성도  
차츰 멀어져 가는듯 싶었다

재선이는 현참동안이나 망사리던  
끝에 자리에서 기만히 일어났  
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던순간  
멈지하고 걸음을 멈추어 섰다

대문앞담 모퉁이에는 나이 어린  
젊은 兵士가 . 입으로 피를 토하  
며 눈속에 열갈을 묻고 쓰러져 있  
었던것이였다

그 시계 밑으로는 미수가루와 신  
빵이 흩어져 널리고 ..... 그  
래도 살펴보겠다고 뚝부림 치던  
끝에 죽을수 밖에 없었던 가  
람들의 풀을 길 없는 관(假)이  
어우러져 섬적하게도 가련한것  
이 눈송이가 편々 날리는 속으로

침착이 어리어 피어가는 것이였다

아직도 총소리는 이마금씩 머  
리위를 스치어 죽음을 슬조리서 가  
고 있다 열핏 흘려다 보아 그  
죽은 병사는 어느편 군인인지 분간  
할수가 없었다 그무렵 양쪽군  
인들은 흔히 적에게서 빼앗은 총  
기를 들고 있었고 심지어는 사  
체에서 벗어난 군복조차 격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삼십을 에러내듯 싶은 새벽눈  
보라가 회뜰아치는 수를 똑똑  
고지를 향하여 공격하는 국군의  
전투 대렬속에 이등병들은 흔히  
중공군에서 빼온 털로던 망한모를  
쓰고 있었고 어둠속에 인해건  
술로 물려들던 적 部隊는 살방파

기 소총이다 때로는 BAR( ) 까지 쏘아대며 언뜻처럼 달려 들고 하였던 것이다.

좌부대의 침투 작전과 포위작전에 뒤이어 사단의 역포위작전 속에서 우리를 뒤생병은 부상병을 데리고 직군속에서 방황하다가 구출되기가 일수였다.

나는 눈속에 무릎을 세우고 두손으로 어퍼전 시체를 제쳐 하늘을 보고 읊게 하여 주었다.

눈을 뜬채 죽은 소년병은 이제 슬프게 하늘을 안고 누어 있다. 이십 안팎의 소년이었다. 그의 배낭에서 담요를 풀어 시체를 덮어주고 그곳에서 불리웠다.

그렇게 하여주고 나니 한결 마음이 놓이는것 같았다. 한스럽게 지름뚝 눈이 떠오른 것이다. 바로 이때였다.

「여보, 거칠게 부르는 소리가 내 등뒤에서 들려 왔다. 「여보 게 있느게 누구요」 그소리는 조급하게 재차 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다.

이때 나는 실란을 재인살빙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팔

뚝 에다는 외생병의 표식인 적십자를 그려 붙인 완장을 둘러고 있었다.

내가 총을 들어 앞으로 겨누며 뒤돌아다 보았을때 저쪽에서든 이미 나에게 총구를 겨누게 자 있었다.

최 전선으로 나온후 몇해를 지나면서 여러고비의 험한 죽음의 날을 ( )치루고 난 오늘 날에 와서 오로지 짐작되는 생사의 문제가 무감각에 가까운 피로움 속에서 체험으로 접어 고개를 숙여가던 무렵이라 극도에 이른 방심상태에서 더연 할수가 있었다.

저 쪽의 어린 표정은 살기를 파우고 작은 눈이 무섭게 번득이고 있었다. 머리에 쓰고 있는것은 중공군의 방한모였으나 그의 동작과 언어에서 사단이라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던 아주 전형적인 모국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동병이 었기 아랫에 계급장도 부치지 않고 다만 대한이란 표식만을 ( )하고 있었다.

나의 허투렛에 크러진 중사의 계급상과 위생병 완장을 모피는 그는 가만히 조심스런 어조로 웃는 것이었다

충구는 아직도 이쪽 가슴팍을 겨누고 있는 채였고 나도 방아쇠에서 손을 떼지 않고 있었다.

「뭇 중대 임니까」 그리고 엄방 주위를 정제하는 눈초리를 하였다. 몹시 초조한 빛이 었다

「구호소 위생병 이다」 하고 나는 분명한 소리로 대답하여 주었다

이 소리에 그는 충구를 데리고 어떤 열차에 무엇을 호소하는듯 삼은 표정으로 평순한 태도로 나에게로 가까이 붙어오는 것이었다

「실례했습니다. 지금 막요원에서 피검을 할리 자격을 갖하고 교전을 ( )하다 오는 길이라 당황 하였습니다」 하고 나를 신뢰하는 지선으로 우러르며 구슬픈 음정으로 입을 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오중대 연락병 이라고 했다

관망의 치열한 전투는 소련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두수한 피아의 전사자속에 신음하는 부상자를 끌리면서 전투대열은 먼동이 속으로 쫓겨해 들어왔다

그렇게 고키한 희생을 무릅쓰고 전령한 XX고지에서부터는 오래 머물러 수는 없었다. 또 다시 부대는 진격 명령을 받고 붉은 단막이 죽음의 거미줄을 느리며 마친듯이 각종 모험가 을부짓는 가운뎃길 뚫고 앞으로 나갔었다

그 저녁에 나는 XX고지에서 최우 부상병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 온 것이었다

인부들을 시켜서 험한 산길을 부상병을 업고 구호소까지 당도하는데 조히 두시간만이나 걸린 것이다.

밝은 햇살에 붉은 표정은 눈이 무시도록 하얀 눈이 나리어 쌓여 어린날의 희상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국민학교 교사를 사웠하던 때대 구호소는 이미 이동을 하고 난 후였으므로 붉은 방마다는 공허하게 비어 있었다

새로 이동한 지점은 이곳에서

이십오리 상거한 전방의 면사무소 건  
물아래는 것을 사전에 연락을  
받고 알고는 있었으나 무상을 입  
고 임혀온 병사나 산원을 업  
고온 인부들이나 다같이 근속에서  
덩쿨이 덮어붙은 사지가 찢어지고  
클켜메어도 무감각 풀리만치 피  
로한 지금에 있어 어쩌할수 없  
는 것이었다 부다 내가 나가  
서 연락을 취할 방도를 연구  
하느라 밖으로 나오던 길에서 뜻  
하지 않는 선과병의 출현에 당  
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연락병은 흥분을 가라 앉치고는  
저속히 안도하는 기색으로 두서  
없이 자기의 사정을 늘어 놓는  
것이였다

xx 포지에서 다시 전진을 시  
작한 부대는 적부대의 완강한 저  
항을 만나 많은 희생자를 내고  
공격을 중지하였다는 것이요 xx  
포지도 철수한 그는 대대본부로  
연락을 취하러 가던 도중 적의  
패잔병을 만나 간신히 빠져  
나온것이 이곳에까지 왔다고 하  
였다

그가 자신 없이 늘어놓은 변명

에서 나는 상저름지 않는 세  
감에 불안해졌다

그는 나의 동생보다도 어려보  
이는 소년이였다

「그래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관찰동안을 생각던 끝에 할  
일없이 이렇게 물어보았다  
「머머 구호소를 찾아가서 응  
원을 청하던지 무전으로 연락  
을 취해 달라고 할까라고 소  
단말에 이 앞에서 또다시 패  
잔병을 만났던 것입니다

「지금은 동히 적군과 이군을 구  
별하기 힘든데 긴급요」 하고는  
허리를 굽신하고 조금 아까는  
살해했다는 인사를 치루는 것  
이였다

무전이 있을터인데 소대 연락  
병이 왜 대대로 연락을 가는데이  
며 어떻게 해서 구호소의 위치  
를 알았었던 것인가 벌써 그  
런것까지 알수있는 그라면은  
구호소가 이동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인데 나는 식  
편치 않는 기분으로 뒤선 그를  
데리고 환자들이 있는곳으로  
돌아왔다 그곳은 전정



전에는 숙적실로 사용하던 온  
돌방이었다

차가 와서 우리를 새로 이동한  
대머 구호소로 데리고 갈것이라  
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뜻밖  
에 나타난 연락병 문제를 하여  
나는 적지 않아 불안해졌다

환자와 인부는 아직껏 잠들  
어 있었다 다들 구두를 신은채  
피난민들이 남기고간 이불을  
덮고 따물은 엇가래처럼 느러  
져 신음하고 있었다

「위생병」 「위생병」 내가 방  
으로 들어서자 환자들은 눈을  
뜨고 쳐다보면서 울음 불듯하니  
소리 소리 지르는 것이었다

「여기가 어디야 빨리 치료를 하  
여야 될것이 아니냐」 말야 열  
(熱)에 들른 열콜에 들른 솟  
아 올른 침술이 금시에 휘  
어 나올듯한 고통스런 표정으  
로 성난 짐승처럼 신치는 것  
이었다

경기사수는 판등상을 입은  
어제 죽지를 한손으로 잡아 쥐  
쳐 소리 소리 지르며 금시에  
라도 달려들듯이 상반신을 이

르키려 드는 것이었다

수류탄으로 허벅지에 부상을 당  
한 소총수는 힘없이 눈동자를  
굴리며 처량한 어조로 「여보  
들 그만들 하소 위생병만 혼자서  
딱 하지 않소 우리 조금만 더 참습시  
다 끈 차가 와서 구호소로 들  
아가게 될것이니 그때까지 좀  
더 참습시다」 참혹한 인생  
의 쓰라림을 겪고 일적암치 모  
든것을 처량한 조용한 말씨였  
다

그소리에 경기사수는 갑작 이  
죽은 사람처럼 고함소리를 들  
치고 줄기 차게 눈물을 쏟아가며  
삼상서린 투소리로 신세 타령  
을 느러 놓는 것이었다

어떤 부상병이고 처음당하는 환  
세 용변하면 무의식중에 혼미  
들 짓거리든 복두리인 것이다

「부모인 얼굴도 모르고 자라난  
목숨이 말이야 경마장 앞에서  
자전거포를 내고 근수히 그날 그  
날을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  
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밤만  
생각해보아도 이렇게 상처가 무사  
고 열이 올라오는것을 보아서는 다

지 살아낼것 같질 않아 다시 살아났는  
다 치드라도 병신이 되기가 심상할거  
야」 그는 실신한 사람처럼 부르짖고  
록매어 우는것이 었다 수많은 부상  
병들 처금한 나의 감정은 이미 마비  
되어 버린듯 그들을 헤아리는 마음  
조차 사무적인 것이 되였었다

팔복에 관동상을 입은 증사는 눈을  
뜨고 일어나 벽에 기대여 었아  
한손으로 담배를 입에 틀고 불을  
찾았다 나는 라이다 불을 샅다 대어  
주었다 군복에는 붉은 피가 짐々  
흘어져 캄혹한 전투의 장면을 연  
상시키는 것이 었다

「외상병 어떻게 해서 식사를 하도록  
합시다」 그는 몹시 미안한듯이  
한참동안이나 망서리다 입을 떼는  
것이 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들어오면서  
취사일로 쓰던 곳을 드려다 보았는  
데 벽다 남은 찬밥이 함지박에  
남어 있더군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요 끝 인부들을 깨워서 좀 데워  
오리고 할것이나까」 「어찌 제 부려  
후대 식량만 먹었더니 뱃속이 뒤  
틀리는데」 하면서 벽에 기대어 담  
배를 맛있게 빨면서 곁에서 아직

도 세상을 놓고 사지를 오구리고  
잠들어 있는 인부의 한 사람을 흔  
들어 깨우는 것이 었다

사냥개 흔들어 깨운 인부들은 캄  
에 서린 낮으로 서로가 모으고는  
약몽에서 깨어난 사람들 처럼 멍  
하니 한참동안이나 었아왔다

나는 인부들을 데리고 취사일로  
쓰던 방으로 들어가 함지박에 남  
은 밥을 돌려가지고 부엌으로 나갔  
다 이밥을 지서 놓고 막해보지  
도 못하고 술을 거두어 버린 부  
상병들과 흡수상례에 빠진채 후  
송당한 부상병들의 모습이 눈앞  
세 삼삼하게 떠오른다 조국과  
자유를 위한 다은 치드라도 뼈를  
세 사모치는 고난속에서 수만  
당하는 청년들의 심정을 헤아리  
며 표개를 떨어뜨린채 담배 연기  
를 길게 내뿜고 걸어가면서  
무거운 시름으로 환숨을 지었다  
앞뒤로 틀리어가는 인부들은 연  
소한 사람들 처럼 향수 어린 표정으  
로 「우리들은 언제나 곁으로 들  
아가게 될까요 희생병남」 하는  
것이 었다

숫이 벌린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애원하듯이 또다시 다른 인부가  
묻는것이였다. 「간호병님 저이  
들은 언제나 집으로 돌아갈수있  
겠나요?」 「한 열흘 있으면 다모반  
하고 그럼디다 아마 상부의 지신  
과 받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징발  
한 인부들은 다들 돌려 보낼것이  
라고 그러드군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자  
그들은 좋아라고 금시에 떠들석하  
게 수구덕 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였  
다. 그럼속에서 나이 한 자십  
음식한 후츄그러하게 퉁퉁한 한  
복에 중풍군 털모자를 빌려쓴 수  
랍한 체격의 낫이 좋고 광대뼈  
가 두두러진 인부 하나 이 불췌  
소리로 발끈하여 그들은 육박절  
러 버리는 것이였다.

「야이 사람들 어린애들도 아니  
고 나이 다 삼십씩 넘어 먹은 사  
람들이 힘나게 된다고 크나지도  
좋은가 좋은법 가만이나 있으려브나,  
슬픈지 그여운지 문간할수없는 어  
취구나. 앓는 낫으로 계속한다

「이복에다 식구들 다 파두고 내  
려오다가 팔자에 없는 인부가  
되어서 벌써 몇달째 기러구 있

~//~  
는줄 알으입니까. 더러는 우리들의  
신세도 되어서 바꿔 생각해 보려무  
나요.」 평산 북도 맹중리에서 국군  
을 따라 걷는 땅을 버리고 내려 쫓  
겨 왔다는 사나이의 팔에서는 어  
딘가 모르게 방낭인의 구슬픈 애  
수가 풀리며 불행으로 굳어 버린  
어두운 표정이 복선인의 독특한  
정간한 모글에 석々히 어리어  
있었다.

「그건 그렇고 여보, 차고 나는 북  
선 피난민을 돌려주고 좀사이를 두  
고 말하였다

「당신은 안성서 다들 돌려 보낼  
때 돼 앓떠나 갔었오,」 나는 그가  
와 아래까지 이곳에서 피생을  
하며 따라다니는가를 벌써 잘알  
고있었으나 이렇게 물어보는것은  
다른 생각이 있어서였다.

그것은 자기만이 외롭고 자기만  
이 원통하게 끝없는 고생을 계속  
할것이라 그와 한마디라도 더 다  
정하게 견뎌어 지겨려 보고 싶었기  
도한 것이였고 또, 그가 다른 인  
부들에게 자기의 불행을 호소할수있  
는 기회를 주어서 자기표현의 자  
위(自慰)를 주기 위해서도 있었나

방안에 있는 연락병이 필시 부대에서  
낙오하여 이말하려고 있는 어린병  
사에서 현란의 지간의 사정을 들  
어보라는 뜻에서 었다

「말 마쇼 명중리서 부러 이부대를  
따라 무거운 포관과 식량을 저 받  
으며 사나운 전투에서 포위망을 뚫  
고 나오기가 조반석 죽이 었지요

그리던 끝에 안성으로 열썩이 후퇴  
하여 포진을 하였을때 부머장의  
명령으로 후방으로 도라가게 되었습  
니다만 어데 잘못이라고 었어야

지요 한참 망서리던 끝에 그래 사내  
가 이 죽을 표비를 몇번씩 뚫고  
나온 녀석이 무슨짓을 하면 목구덕  
하나 못살리겠느냐고 그래도 생사를

같이한 부머 여러분과 저유한 생  
각을 서기지 못하면서 작별을 하고  
안성을 떠나 후방으로 내려 갔었지요  
그는 여기서 말을 끈치고 길  
게 한숨을 쉬었다

다른 인부들은 부엌 바닥에 쭈구리  
고 앉아서는 고개를 쳐들고 그의  
혼자서 슬퍼하는 커다란 열골을 지키  
고 있는것이 었다

「그런데 왜 또 돌아 오셨나요」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피고 었던 사

나이가 벌기케 되서 불빛에 관송  
한 수염을 달고 몇일씩이나 세수  
를 못한 그런 열골을 이룬거리며  
웃단이 려게 보이는 이들을 들  
어내고 들는 소리였다

여기서 그는 좀더 자기 불행을 파  
장하여 여울하고 원통한 사정을  
온갖 표정과 몸짓으로 지며 보이  
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고 말을  
이어가는 것이 었다

「천안저. 얼마 가지 않아서 최  
체 하는것이 샹예요. 정찰이다  
헌병이다. 청년머다. 특수머다. 방  
위머다」 이 소리에 다들 「무  
슨 취체요」 하고는 어리 병병한 낫

을한다 마치 약속이라도 사전에  
하였다는 하나같이 우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무슨 취체라니」 여기서 가래를  
뚫구어 힘껏 땅바닥에 내어 뵈  
어 버리곤 이 세상의 온갖 불행  
은 자기 혼자만이 겪어왔다는

뜻이 이번에는 어찌조차 은수 거  
린다  
( 다음호에 계속 )



# 잃어버린 世代

(張奎鏞)



察漢이든 지금 최고료를 받아들이고 결음이 자꾸만 망자려지는 것이다 만구천환이란 돈이 그의 모-든 生覺의 동떨미를 짝부여 잡고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30이 넘은 오늘날까지 독신으로 지내는 察漢이든 그다지한 생활의 궁핍이란것을 모르고 지내왔었다

그러나 요즈음 그는 병방에서 끼니를 굶기가 일수인 것이다

S 申岸을 나와 K 대학을 마치도록 기숙사와 하숙을 전전하고 돌아다닌 察漢에게 외롭고 때로는 을지면 스런 생각이 드는 하숙생활을 청산하고 아파트로 재(稅)로 든것은 6.25 사변전

의 일이었다

어느 미망인의 소옥로 되어있는 회화동 아파트를 친구의 소개로 세들었던 것이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불타버린 양조장이 교향에서 경기(景氣) 좋게 운영되며 나가고 있었다

아버지가 작고하신 후로는 재산 상속을 받은 察漢이 되었음으로 외숙에게 그 양조장의 관리를 맡기고 달달히 보내오는 수익으로 얼마든지 농땡이를 부리며 현대 미술을 논하고 야스 파스와 샤루트르를 마음껏 얻을수 있었고 밤낮으로 건축을 들고 베트벤에서 드뭇까지 나중에는 상숙, 광고, 알쓰 에레지를 담당으로 들어가며 스스로 데카란으로 자처하

~114~

고 창백한 안색과 긴 머리를 풀어 흘리며 이웃방에서 수근거리며는 속물들을 마음껏 조소와 연민의 정으로 내려와 볼수 있었던 것이다

6.25는 이러한 문학청년 容漢이를 참혹한 지경으로 몰아 넣었던 것이다

지금 容漢이가 만구천환이란 많지 않은 원고료를 받아들고 모든 생각에 열미를 집힌채, 허덕이며 불안과 초조에 떨어져 가는 것이었다

지난번에 원고료를 받든 날 일을 되풀이 非魔해보았다

x x x

그때는 창작이 96 枚에 수필이 15 枚였다

오백환짜리로만 받은돈 꾸피가 그래도 마음에 든 듯하였다

6.25때 재산을 송두리채 불러워 버리고 직업마저 잃어버린 요즈음의 容

漢이는 문학청년시대에 자킨 친구들이 그들에게도 쉬지않고 정진하여 작가로 시인으로 화가로 출세를 하여 더러는 신문잡지등의 편집을 맡아보고 있는 관계로 그들의 권유를 따라서 피나는 노력을 쓸아가며 창작과 번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겨우연명하고있는 형편이었다

전도가 촉망되는 신진작가로 앞날이 촉망되는 수재라고 저나리즘의 곱판을 받아 빛나는 존재도 아니고 그리 오랜동안 쌓은 체험과 습작의 연륜이 가리키는대로 고독한 속에서 창작을 계속해 나가는 자신이 어느 불행한 宿命으로도 느껴지기도하는 容漢이는 솔직한 심경인 것이었다 그런데도 솔을 즐기는 친구들을 찾아서 쌓인 회포를 풀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하였다  
다망 회가 두 앞에서 元  
泰를 만났다

6.25 전까지만 카드라  
도 습작에 여념이 없던  
元泰는 어느 사이에 이름  
없는 씨나리오 작가가 되  
어서 영화인들의 패에  
어울려 항상 우월한 표  
정을 하고 패가 완성하  
던 몇일이 회상된다고  
한숨섞여 되파리기를 잘  
하는 친구였다

가까운 중국집을 찾아  
들어가 그들은 술을 마  
셨다

이제는 소식조차 끊쳐  
버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그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나추악아 해가  
져우도록 마셨다

취할때로 취하고 난  
그들은 화제의 빈곤을  
느끼면서 마구 술잔을  
거둬하였다

「容漢이 아직 해가 남  
았는데 이가 나머

어 우리같이서 康彬시한테  
가볼까」 元泰가 헛코부라  
진 소리를 하였다

「암, 그러세 요즘 康彬이  
시집을 냈다지」 그리고  
들이서는 실기 한숨을 물  
아 귀였다

康彬은 어려서부터 재주  
가 무섭고 약은 친구였다  
고등학교 시절서 부러

시인 B씨를 사숙하고 열  
심히 찾아 다니며 시작에  
정진하던 문예지 XX에서  
추천을 받고 꾸준한 노력  
으로 지금은 문단에서 눈  
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일  
면 C大學에서 현대 시론  
과 문학개론을 담당하고 있  
는 친구였다

容漢의 소설이나 元泰의  
씨나리오나 康彬의 알수 없  
는 시보다는 우수한 것이었  
으나 씨나리움은 오히려  
康彬의 작품을 가치 있는 것  
으로 지켜 율리고 있는 반  
면 元泰나 容漢의 작품은  
거의 독살되기가 일수였다

문단이란 것과 재나리즘  
이라는 것을 뜻해서 뼈저  
리게 느끼는 것이었다

나이 겨우 30을 지나  
서 무슨 중견이고 나발이  
고 있겠는가 이제서 부러  
가 본체적인 작문 활동의  
시기라고 元泰나 容漢의  
두가슴속에는 무엇이랴 고  
짐어 말할수 없는 것들에  
對한 증오심에 불타오르는  
것이였다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이것이 예술가 상호간의  
두거운 질투라는 것이 아  
닌가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부지게 꾸짖기도 했다

이심전심(以心極心) 容  
漢이 조조해하면 元泰는  
관을 권하며, 외로와 격려  
의 말을 주고 元泰가 소  
리없이 신음하면 容漢이  
견도(顯啟)한 가치의 현실  
을 신 하게 공격하여, 친  
구의 절망을 달래여주는 것  
이였다

학교로 신문사로 잡지사

로 다방으로 주점으로  
교제를 하고 싸돌아다니  
고 타고 康彬은 항상 바  
빤다

그러나 요즈음은 실어  
(失語)로 번역된 샤르  
트르의 작품을 재주껏  
번역하느라고 집에 들어  
마쳐있다는 元泰의 소리  
를 쫓아서 그들은 중국  
요리집에서 나왔다 康彬  
의 집은 남산동 숲이  
육어진 언덕에 있었다

주위에 으리 으리하게  
걸어서 있는 문화주택에  
비쳐서 초라한 벽식 단  
층외가였다.

집안에는 값진 가구하  
나 제대로 보이지 않는  
가난한 살림이였다 어  
린것들도 남누를 저우변  
한 정도였고 그의 안해  
의 유행을 모르고 때늦  
게 빛바랜 옷이 쏘솔한  
방안에선 그래도 화사한  
것이였다

康彬은 자리에 누어있



있다 출판사의 독촉을 받고 연일 무리를 하고 쉴어진 것이나

신문과 잡지에 오르나 리는 사인 金東彬이라고 는 믿어지지 않는 실생 활이었다 머리맡에는 주사 약감이 쌓여 있고 일 역판(日沢版) 원서가 보 였다

그래도 원서에 충실하 려 애쓰는 그였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불하 가격이 인상되기 전 에 아주 자기명의로 불 하를 받아볼까 하고 주 선을한 금액이 모자라서 출판사에 사정을하고 선 금을 받아 시작한 것이다

하면서 별정계 열이 글른 낫을 들고 찾아온 친구들의 열골을 치켜보는 것이었다

x x x

밤늦게 東彬이와 작별하고 거리로 나왔다 東彬은 고 생을 하더라도 예술 활동 에 있어서는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보람이 있는 것 같 았다 다방으로 돌아온 元 泰와 容漢이는 또다시 다 른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지려 나섰다 까닭 없이 일어나는 패배감에서 容漢 은 안식을 놓을 정도로 술에 취해 들러섰다 이튿날 아침 한나 절이 되어서야 술에서 깨어 난 容漢이는 빈뿔동아리로 그날 점심값도 수중에 남아 있지 않음을 발견했던 것이다 (계속)



# 逸波教室

(徐在德)

하 하 하 : “저 제게  
 무어예요” 키에서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어깨  
 넘어로 쳐다보고 있  
 든 표기가 알々  
 대며 妖邪한  
 웃음을 친다  
 “오빠 그게  
 무어야” 그  
 림두 아니구.  
 ” 아 요게  
 가불어 웃긴  
 왜 웃어”  
 多후인지 不후인지는 몰  
 라도 내가 男子이니까  
 이렇게 이르고 말았지  
 萬若에 女子였도라면 아  
 마 흥당무 보다도 더  
 빨간 저 참? 白雲公主  
 에 나오는 난쟁이를 덜  
 갈빛 喪해지듯 했을는지  
 도 몰라 그렇지만 世  
 상 사람이 다 알고 이사



람도 아는 바와같이 어  
 린애가 世로男세 다와  
 그럭 저럭 看日만 되면  
 사람을 아  
 는척 하는  
 것파같이  
 우리도  
 아는척 이라  
 기보다 거름  
 마는 질졸아  
 는 모양 같  
 습니다  
 頃看日間을  
 그려왔으니 線으로 이으  
 면 幾億萬耗가 될것이니  
 가 如何를 이제는 표이  
 들 되레 “죽-코” 할수있  
 는 價이니 개발 작발  
 그려 풍아도 글자가되니  
 神奇하다그나 할까요  
 그건 그렇고 甲子 乙丑  
 (one) (two)  
 원 두 ..... 따져보니  
 꿈작없이 우리는 속아왔

단 말이세요 校長 先生  
 任은 아마 國際派物産鉛  
 筆聯合合同株式合資會社  
 社長 校長先生이신지  
 몰라. 그리고 先生任들은  
 分明히 租上任들이 그러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주실 오래기로 라도  
 열켜진 그무슨 因緣이었  
 는지 제가 인식이 調査  
 해 보지 못한것이 큰 잘못  
 안파 더부러 자못 後悔  
 하지 않을수 없는 일  
 입니다

이제와서 이미 몇그릇  
 을 치우고 바가지 짝깎  
 은 팔통을 두드려가며  
 主覺해보니 적지 않는  
 70名 우리 젊은 녀름들  
 은 봉황 校長先生任以下  
 先生任들의 會社로 都處  
 金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말리세요 그러나 한마  
 다 원한도 하소연 할리  
 이 없어서 學父兄會를  
 열어 告誡를 해버릴까  
 했으나 學父兄任들은 風

부애 듣자하니 싸움은 못  
 하셔도 오림의 선수들이지  
 라니 말은 못하고 라노니  
 비속만 다서든 일찍이 棄  
 擲한 사람들은 나와같이  
 속을 태워 버리고 흡사 「  
 로버트」와 같은 人間이  
 되어 점잔케 後退하신 모  
 양이라 이런 사람들을 論  
 해져라도 물어던벼 먹살재  
 비를 해보고 싶은 主覺도  
 없는것은 아니지만 예날에  
 돌아가신 孔子任의 말씀이  
 무서워서 「아는게 병(病)  
 이라」 三綱五倫 5은 이런  
 데 쓰는 모양이지 지난해  
 내가 高校時踰반해도 이것  
 이 라디오에서 한번들은  
 압록강, 大同江, 漢江 이렇  
 게 三江이고 집차마귀 4  
 個와 스페야 다이야 하나  
 들 合해 五문 이것이 三  
 江五倫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래서 諺語學校는 高等教  
 育을 받은 사람중에서도  
 三江五倫을 理解할줄 알고  
 나같은 힘이 弱한 사랑을

뿔은 모양이지 그래서 그  
만 머리는 2개로 돌아버  
렸단 말씀입니다

한달에 두어번씩 착아버  
리는 버리렐이나 2개로 돌  
았으면 어느 래이디에 부  
럽지 않는 몇수 圖자리 파마  
린트가 되울는지도 모를  
원인데 양기 통조림등만한  
骨통에 싸워보려는 空想.  
亡想, 空亡想이 한꺼번에  
돌아버렸어요 왜? 원진  
틀라도 내 버리통이 三角  
形이라 내 生覺인지 肉角  
인지가 삼백육십도에 半이  
라 半만 돌아버렸거든 萬  
若에 四角形으로 보여 먹었  
다면 역시 生覺인지 肉角  
인지도 삼백육십도 아나까  
完全히 한바퀴를 돌아 倦  
吐重未格이 될것을 그렇지  
못해서 라는 理由밖에 天  
天的으로 라고난 苦痛을  
怨望한다면 우리父母任을  
怨望하는 소리밖에 饒되니  
할수없이 최후 手段으로  
棄權해 버리고 結局은 乙

支路=街 先生任내 종이  
사돈집인지 무슨집인지는  
내應接室이되고 말았나 봐  
요. 이런 수가있나 비지  
땀을 흘려가며 찾아가아  
冷水 한잔 饒주는테를  
생표들 널깃만하면 찾아  
가거든 이 何題는 기왕  
이렇게 落着되었으니 제  
치놓고 다른것은 내가  
第一 잘한 다고치고 연필  
종이 갈쿠기는 第一 못하  
든 속의 한사람인데도  
그동안 該비산 미제 선  
필만 치드라도 數百자루  
가 다라버렸어요 勿論  
學生全員이 쓸것을 따진  
다면 셀수도 없겠지만  
내 주머니 릴리  
는것은 17題가 안되지만  
자나 깨나 南北統一을  
이루기못해 渴望하는 이  
나라에서 國家的인 損失  
이 莫大하거든 每年 增  
加하는 細窮民 求護対策  
도 惝하지만 首先 우리  
遞波學校 豫算을 세워

종이 鉛筆 保助對策을 通過  
시원 自信이 있는 사람을  
次期에는 第四回 國會議員으  
로 揀擧해야 되겠다라 이런  
말입니다

物的 損失은 이러하거나와  
生覺하면 生覺할수록 기가막  
혀요 왜? 어려서 父母任속  
을 무던히 썩었기때문에 나  
도 이다음에 마누라 한테는  
돈뭇버려온다고 속썩을 것이  
고 子息들 한테는 파자 얹  
사온다고 속썩을 줄은 生覺  
라고 있지만 「아닌 밤중에  
홍두깨」格으로 速記學校가  
보여 내속을 미리 썩이거든  
지금은 날씨가 서늘하니 말  
이지 닥쳐올 三伏더위 눈보  
라치는 三冬 고 두름쪽이 된  
손발을 호々물며 종이 연필  
을 달할 生覺을 하니 더욱  
孔子任이 怨望됩니다

앞서 淸々한것은 勿論이고  
淸幸이 나는 이程度로 끝나  
고 알지만 억을 하세도 남을  
때 썩었다 크지 못하고 흑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鹿韮

슴을 살마 자랐는지  
읽어서 말성이거든 好  
評하면 조출하고 雅澹  
하니 또는 大將夫라  
肉重한 体格이라고 하  
였지만 事實 自身도  
外觀 그렇게 生覺하지  
는 아아 ----- 그렇다  
고 自殺이나 悲觀을  
꿈꾸는 일이 없도록  
讀者 諸位께 삼가 前  
題條件으로 말씀드리고  
계속합니다 마는 사람은  
키가 크고 입이 커야  
간다는데 이놈은 눈이  
커서 말이거든 그렇다  
고 病菌이 눈에 보여  
서가 아니라 그程度면  
비판은 좋았었는데 내  
말은 마음대로 볼수 없  
으니가 볼수 없지만 視  
相생이 이상으로 남의  
꼴을 보면 가만이 있  
기 싫어하는 性質이나  
역시 垂手傍觀할수가  
있는가 뵈? 그래서  
미처 자살것을 덜자섯

든지 여하튼 적다하는 양반은 "거, 너, 더, 용인지 무슨 용인지는 몰라도 五耗라고 해두고 辨識한 말이지만 좀 실다하는 양반을 그대로 실다했으면 좋겠지만 아니 뎡키 種子얼지도 모르니 칼그대로 롱 (long)이라 했으면 좋겠으나 總한 우리말에 世界 共通符號를 부쳐 우리 韓 사람이 듣기 좋고 부르기도 좋게 "고, 용와" "오, 용인지는 몰라도 15 耗라고 하면 어떨까? 注意해 보았지요? 하긴 遊激速託에 位置. 吳 또는 20 耗도 存在하지만 三綱五倫을 잘 알며 美人만 아니 神士淑女만 모인 우리學校에 있을리가 만무하니까 그리고 鉛筆 종이를 本人 파같이 高尚한 말로 잘 消費할 줄 모르는 사람은 7.5 耗가 어떨까 왜? 適當히 이리저리 고어 좋면 단 날말이 되고 結局은 韓 紳 紳스

가 되는데 7.5 耗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換言하면 遮託界에서는 永安하지만 必要外의 存在라 이런말이지요 다음은 每日같이 잘달쿠라고 祝願 祝禱해 주시는 先生任들로부터 學生들만 號를 갖이표 하시며 배우지 못한놈들 소리와 함께 들려올 공격을 피하기 爲하여 x x x 라고 지어 놓았으나 아직 認准을 얻지 못해서 있으니 마치 는 사람은 다음 號에 發表하여 實品을 授與할 緣旋입니다 斗先 愈해서 號(號)로 適當이 지어 들렸으면 이 사람은 硬하셨습니다만 旧時代의 癖은 이름보다는 故비싼 "아號, 바號, 또는 마號로서 종이 연필을 승저 祇筆사돈任네 라고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世

記的이며 高尚한 이름이  
많을까봐 입맛이 볼거든  
많이 불러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教日內로 祭明式을 奉  
行할 緣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百圓짜  
리 會費를 가지고는 財  
務部長 법질을 출랑 벗  
겨바도 不可能한것 같으  
니 省略하는것도 무리는  
아니라 生覺합니다

그외도 무슨 새우니  
뚝탁이니 말뚝 호박씨  
쏘무라그 양간이 등々  
불러달라고 暗々里에 請  
히 많은 模樣입니다만은  
매가 무서워서요 원제  
주먹이 약해와서 7 嚙  
7 만 된다면이야 別問題  
겠지만 父子, 母子가 디  
리치면 「독안에든 쥐거  
든」 기분이 艱尙할래

。 。

別 檢査隊를 激瀆하신다면  
이社舍에서 第二國民兵令狀도  
夫王의 呼出狀이나 받시

붓을 들은 김이실래 慕 繼  
筆사둔님이 尙상 잘하시든  
말씀과 같이 머리도 원점  
해서 卑並한 例를 들어가  
며 좋은 생각은 있지만  
「외염 잘하는 품이 물에  
빠쳐 죽는」 식인지 신바람  
에 보재기 쓰고 춤추는 식  
인지 너절한 이야기가 되  
여서 學術的인 面에서는  
5 糲, 10 糲, 15 糲도 아닌 7.5  
糲 格막에 飡되고 猨어몰  
가치라고는 제로에 無限代  
로 가차우니 事故입니다  
어쨌던 目的은 여러분의  
매음이 消化가 할될 程度  
로 桂榎運動을 하였다면  
이사람의 任務는 다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一 種  
의 消化齊가 되어서는 飡  
되겠지만 쓰고보니 謝 過드  
릴일이 많아서 杞憂인지는  
몰라도 先庄, 學生, 合同,  
作筆, 司田, 本部로부터 時

作者 S는 가독이나 不廢란  
이社舍에서 第二國民兵令狀도  
夫王의 呼出狀이나 받시 飡을는지 讀者여러분의 판단

한 處分을 바라며 적지 않은 疑心을 품고 떠납니다  
사 사 사

# 交換一句



낯은 피아노에서 고운 메로디를 찾으라	沈 章 輔
一口 二 言	李 相 鎔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權 諲 太
未未는 무분명하다 그러나 험컷 싸우라	咸 永 一
소금도 입에 넣어야 짜다	李 漢 鏞
혈벋고든 살아도 죄짓고든 못산다	吳 錫 然
멍! 자자 멍! 일하자	金 俊 漢
평범한 生活은 가치가 없다	朴 元 植
내일은 비가 온다	金 勝 烈
眞 善 美 聖	金 興 烈
달다 삼키고 쓴다 배르지 달라	徐 在 德
음지가 양지 된다	李 在 根
自我發見	金 淳 蒂
眞實이란것뿐 그러나 이것도 복잡한거야	全 海 成
내自身을 믿을수 있어야한다	金 得 源



不 怒

崔 權 興

恒常自身の 修道院에서 忍 그리고 耐로서

窮極의 目的을 完遂하자

朴 奉 植

꽃살이 아름답고 호수같이 맑아라

李 亨 泰

한손으로 두마리의 토끼는 못잡는다

朴 明 鎬

外面은 차고 마음은 뜨거운 사람이되자

朴 明 俊

人間은 生覺하는 살때다

南 基 豐

百 忍

權 星 運

부드러워라 그리고 강하라

李 如 參

眞理에 살자 봉사는 幸福이다 感謝를

알고 行하자

朴 在 甲

결범은 바보의 가슴에서 낀다

李 英 侯

眞實 素朴 言行一致

尹 應 造

막연해석

宋 在 鶴

希望속에 일어나고 感謝함에 자라

禹 銀 出

唇安 齒安

金 允 承

作心三日이지만 겸손 血의努力 規則的

信義 儉素

金 丙 斗

忍耐은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金 永 祚

과 활

鄭 秉 浩

글세요

丁 奎 鈞

~126~

一片丹心 改할 수가 있으라

There is no royal road to learning.

百忍堂中有泰和

눈은 입보다 더 잘 살한다.

자연스러운 동작은 모두 우미하다

웃음은 썩은 피를 만든다

어려운 일을 내가 먼저 —

緻密 勇敢 大肚 決斷

天才는 忍耐의 연장이다

말음을 명위하기 前에 어름을 명위하라

바람에 흔들리지 欲했오

정직과 믿음

忍 耐

나보다 우리

無言冥踐

외지 遠은 節

고기 보고 즐겨 말고 가서 그릇을 버라

許 嗣性 있는 節

꿈 많은 小女가 되자

栖 檀 있는 살자

朴 鍾 亮

元 光 淵

金 鍾 壽

尹 炳 直

張 奎 錫

金 珍

朴 璟 喆

林 慶 沃

曹 重 煥

金 眩

車 贊 寧

沈 鉉 洙

崔 姬 貞

白 允 基

趙 允 浩

李 錫 未

金 載 勳

申 世 莘

張 慶 子

李 金 定

天下를 統治하기 前에 自身을 알자

Rome is not built in a day

一步 前進은 成功의 階段

쓴맛을 알아야 단맛을 안다

- 1. 正直 2. 忍耐 3. 博愛

勤 勉

自己 일은 自己가

- 1. 眞實 2. 沈着 3. 忍耐 4. 儉素

열가지 세력보다 한가지 실천

삶은 힘ियो 힘은 덕이다

- 1. 恒常기배하며 2. 모든일에 감사하자

- 3. 되지 말고 기도하자

오늘의 一分은 미래의 十分보다 중요하다

수업이 대자라도 먹어야 산다

잘먹고 잘살기 爲해 돈을 벌자

의은 벼가 고개속이다

끓어 일하고 끓어고세

金 蕙 聖  
 柳 得 煥  
 洪 鍾 才  
 崔 炳 哲  
 張 辰 錫  
 鄭 辰 燦  
 李 玉 順  
 年 達 廉  
 河 大 煥  
 韓 弘 仁  
 金 命 種  
 曹 萬 允  
 曠 永 煥  
 方 華 石  
 李 昌 一  
 金 哲 顯  
 金 泰 圭  
 金 昌 爨  
 黃 起 性  
 奉 元 順  
 徐 華 山

# 編輯後記

먼 — 하늘에 銀河水  
 물결소리 구슬뜨기 들  
 리고 줄기 차게 흐르는  
 漢江에 물뜨기의 숨소  
 리만이 어두움을 헤치  
 고 들려오는 밤  
 寂寞의 외로운 우름  
 소리가 키를 울리고 있  
 나 봅니다  
 x x x



우리가 入學한지도 於焉  
 三個月하고도 열한 週誌學  
 會에 在 코 들사이 없이  
 찾아드니 望息은 生長을  
 徒求할듯 百口산치로  
 裝飾하는 波瀾學報는 뜻깊  
 은 汗송이 꽃이 아닐수 없  
 다

그러나 별저승의 어린피  
 덩어리로 짧은 期間內에  
 달려드는 波濤와 부닥치며  
 哀勞를 克服한 나머지 나  
 온 本報가 시 할이되고 보  
 니 面目이 缺을 辨입니다  
 期待를 담백안은 여러  
 스승님과 여러 學友들앞에  
 거듭 謝過하여 마지않는

바랍니다  
 x x x

精誠을우어 寄稿해주신  
 여러 先輩在 또한 先  
 生任들의 글을 대할때  
 우리의 決意는 더욱 굳  
 어지며 산 生活의 所産  
 인 學友들의 貴한 投稿  
 를 한장 한장 頂禮때  
 마음이 뜨거워짐을 禁할  
 수가 없는 心情  
 여러 學友들에게 고마움  
 의 인사를 슬러 寫이  
 머릿속여 表하는 바입니  
 다

그러나 紙面閑穢로 실  
 리지 못한 原稿가 많음을

이 또한 어쩔수 없는 事情이니 다음號에 미루기로 하였으니 널리 諒解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가난하나마 精誠이런 百日간 처로 이 學報를 내놓았다

이제 充分한 研磨와 準備를 갖추어 適甲맞이에 일로 邁進할것을 굳게 決意하고 보다 낡은 內容과 체제를 가진 學報를 變것을 期約하며 무거운 펜을 弄을 辨입니다. (해성)

< 編輯委員 >

金	慧	聖
朴	在	甲
金	鍾	壽
丁	奎	哲



追 書

특히 우리 权龍太君의 創作 "悲情"은 本報의 動脈이 되어있으며 現役文壇에서 活躍이 多大한 君의 貴한 原稿를 投稿해준데 對하여 深心으로 謝意를 表하며 君의 茁발에 더욱 榮光있기를 祈願하는 바이다.

